루드비카는 동그랗게 떠진 눈을 하며, 잠시 동안 헤르세인을 쳐다봤다. 그런 질문을 예상치 못한 것도 있지만 마치,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루드비카는 입가에 진한 호선을 그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제게 관심이 생기신거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만.”

능청스럽게 대답한 루드비카의 대답에 헤르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에 대해 여전히 관심은 없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어 담기도 뭐해,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눈짓으로 그가 읽던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책을 읽고 있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루드비카는 미소를 짓고 있음에도 아쉬운 투로 옅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저는 또 제게 관심이 생긴 줄 알고 방금 전까진 무척 기뻤는데….”

“착각이 심하네.”

뭐 이리 뻔뻔한 남자가 다 있을까. 그녀의 무미건조한 대답에도 루드비카는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냐 물으셨죠? 저는 이래봬도 악기를 꽤나 잘 다룬답니다. 특히나 피아노가 제 주특기이죠. 어렸을 때부터 유독 그쪽에 관심이 많아 한때는 미칠 듯이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다뤘지요. 지금은 예전만큼 아니지만, 잠깐의 취미생활정도로 이제는 피아노만 다루고 있습니다.”

“피아노만? 바이올린은 왜 안 다루고?”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기울인 본인과는 달리, 루드비카는 그 모습이 꽤나 사랑스러워 하마터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껴안을 뻔 했다. 다행이도 그 모습을 상상 밖에 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족했다. 루드비카는 태연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바이올린도 잘 켜면 굉장히 멋있지만 의외로 피아노보다 손가락에 굳은살이 잘 생기죠. 굳은살이 박히기 싫어 바이올린을 안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피아노 쪽을 선호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올린을 켜라 해도 다루지 못할 겁니다.”

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기 싫어 더 이상 안 다룬다니. 왠지 그 다운 대답 같기도 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어떤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지. 그리고 그 연주를 들을 수많은 관객들의 모습까지. 상상은 해보니 분명 아름답고도 훌륭한 연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곳에 자신은 없었다. 자신의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한 존재였으니까. 헤르세인은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아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가 눈앞에만 보인다면 자꾸 자신도 모를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의 눈과 마주쳤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꽃받침 같은 포즈를 하고서 제멋대로 약속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던가.

“언제 한 번 제가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님,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어떤가요? 저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말을 주고받기 위해 찾아 온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점점 음악 쪽으로 가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넘어가선 안 됐다.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이런 얘기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잖아. 정신 차리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거기에 답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그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꼭 전해야만 했다. 등을 곧게 핀 헤르세인은 여전히 손등으로 꽃받침을 하고 있는 루드비카를 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바르게 입술을 열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꼭 전해야할 말이고.”

“할 말이라면 혹시….”

“저번에 당신이 내게 고백한 그 대답을──.”

여태까지 머릿속에 적어둔 그 말을 바로 뱉어내기 위해 헤르세인은 차분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루드비카는 그런 헤르세인에게 생긋 웃으며 엉뚱한 말을 뱉어냈다.

“이런, 갑자기 중요한 할 일이 생각났네요. 실례지만 오늘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잠깐!”

할 일이라니? 방금 전까지 느긋하게 자리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던 그였다. 그런데 갑자기 할 일이라고? 헤르세인은 금방 눈치 챘다. 지금 이 남자는 도망치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지금 도망치려는 거지? 아직 내 얘긴 시작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아가씨는 제게 ‘거절’이 담긴 대답을 하실 생각이죠.”

“그건!”

그의 말처럼 당연했다. 자신은 거절할 생각으로 이곳에 왔으니까. 하지만 루드비카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하고는 대답했다.

“저는 아가씨가 어떤 대답을 하든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다시피 저는 천천히 기다린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은 주셔야죠. 가끔씩 아가씬 너무 매정할 때가 있어요. 날카롭고도 상처를 후벼 팔 정도의 매정함이.”

“…….”

정말로 자신이 매정한 걸까. 그저 그를 위해 빠르게 생각해내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이었다. 그런데 정작 다 듣지도 않고 나온 대답은 매정하다는 말이라니. 어째서인지 헤르세인은 그의 말이 더 매정한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준비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해주시길. 그러니 아직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선 조금 빨라진 걸음걸이로 어느새 도서관의 문 앞까지 다가간 루드비카의 뒷모습이 보였다. 문고리를 잡고서 그가 그대로 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문을 열기 전, 루드비카는 뒤를 돌아 아주 잠시 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곤 또 다시 그 얄팍한 미소를 보이곤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그를 불렀지만, 이미 그는 도서관에서 완전히 나간 후였다.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헤르세인은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선 루드비카가 사라진 그 문만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었다.

케시아 왕녀가 태어난 탄생일의 당일. 이미 이른 새벽부터 시녀와 하녀들 할 것 없이 성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성대하게 열릴 연회장부터 연회장을 꾸밀 화려한 장식들과 화려한 요리들. 왕실 요리사들도 밤을 새어 잠을 못잘 정도로 케시아 왕녀를 위한 요리를 만들고자 성심을 다했다. 그리고 왕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는 이미 수많은 초대장이 뿌려진 상태였다.

기사들과 병사들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 왕성의 경계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아침이 되어서도 준비하는 것은 바빴다.

“왕녀전하, 이쪽으로.”

헤르세인도 마찬가지로 왕비가 보낸 하녀들을 보며 준비에 한창이었다. 애초에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하녀들이 와서 씻겨주는 것보단 스스로 씻는 편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이미 목욕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때문에 하녀들은 놀라면서도 마사지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두 망설이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단호히 대답했다.

“마사지는 필요 없어. 어차피 준비는 빨리 할수록 너희들에게도 좋은 거니까.”

헤르세인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싶었는지 하녀들은 결국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도 아직 물기가 덜 마른 헤르세인의 머릿결을 말리며 하녀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왕비가 준비한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그녀의 눈에 보였다. 짙은 남색을 주 바탕으로 하늘색의 면과, 검은 레이스 조합으로 만들어진 드레스였다. 영롱한 아쿠아마린과 백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물론, 드레스의 핵심 부위마다 은색 수가 놓아져 있어 채도가 낮은 드레스임에도 색 배합이 잘 되어 고풍스러움을 살렸다.

환영식 때는 눈에 띄는 하얀 계열의 드레스를 입었다면, 이번에는 정 반대의 무거운 색을 입는 셈이었다. 어째서 왕비가 이번엔 어두운 계열의 드레스를 골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패션에 대해 무지한 헤르세인은 그저 왕비가 준비해준 대로 입으면 그 뿐이기에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오히려 드레스를 보고 있자니 꾸준히 갈아입을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한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았다.

“코르셋을 조일 테니 불편하면 말씀해주십시오.”

벌써 코르셋을 준비하는 하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순간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들이켰다. 숨을 들이키자 뒤에 있던 두 명의 하녀가 코르셋의 끈을 잡아당기며 그녀의 허리를 옥죄듯 코르셋을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웬만하면 입을 생각이 없는 코르셋이지만 드레스를 입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입어야 한다는 하녀들의 완고한 모습에 헤르세인은 입을 수밖에 없었다.

허리를 조일수록 평범하게 숨을 쉬는 것이 어색할 만큼 많이 벅찼다.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숨을 쉴 때마다 허리를 조이면서 내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헤르세인은 코르셋을 누가 만들었는지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세상에서 만든 것 중 가장 쓸데없는 것이 코르셋 같았다.

“조금 더 조이겠습니다. 숨을 더 들이마셔 주십시오. 왕녀전하.”

“흐읍!”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허리를 바짝 조이는 하녀의 힘에 헤르세인은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웠다. 거의 숨도 못 쉬기 일보직전, 드디어 코르셋을 고정하는 게 끝났는지 뒤에 있던 하녀들이 물러나자 헤르세인은 벅찬 숨을 토해내며 코르셋을 적응해야했다.

“후우….”

하지만 쉴 틈조차 없이 바로 하녀가 가져오는 여러 개의 속치마를 보며 헤르세인은 한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평소보다 더 껴입는 것 같은데….’

불평을 한다 해도 하녀들은 왕비의 소속이었다. 거의 인형처럼 하녀들의 손에 입혀지길 반복하며 어느새 헤르세인의 속치마는 풍성하게 부풀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겉 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의 치장이 끝나자마자 머리와 얼굴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그녀들의 손에 따라 다시금 움직여야 했다. 하녀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헤르세인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멍 하니 앉아 하녀들이 머리 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헤르세인은 벌서부터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했다. 머리만 만졌다하면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색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고정시켜야 하니 왕녀전하, 움직이지 말아주십시오”

움직이지 말라는 하녀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꼼짝 할 수도 없이, 굳어 있는 상태로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같이 묶고 있던 남색의 머리는 길게 풀어 해 처져 하녀의 손에 빗질 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에 묶은 다음 머리를 몇 번 꼬아 틀어 올리며 뒷머리를 고정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다행이도 바짝 틀어 올리는 것이 아닌, 느슨하게 틀어 올리기 때문에 머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꽤나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았다.

하녀가 옆머리를 내려 어떤 머리가 가장 어울리는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만지며 어느새 머리가 완성되자 이번엔 머리 장신구를 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장신구들을 머리에 꽂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파이어와 백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를 끝으로 머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하녀들은 손을 바삐 움직이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아주십시오. 화장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런저런 불만은 가득했지만 헤르세인은 끝내 눈을 감으며 자신의 얼굴을 하녀의 손에 맡겼다. 은은한 향기가나는 치덕치덕한 물기의 무언가가 얼굴의 전부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분칠을 시작하는지 푹신한 무언가를 두드리는 하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뺨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이마와 눈, 코, 턱을 두드리며 하녀는 꼼꼼하게 분이 묻혀 있는 솜뭉치를 두드렸다.

두드림이 끝나고 이번에는 눈가에 붓으로 무언가를 칠하는지 눈두덩이 위로 붓털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몇 분간의 붓질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입술만이 남았는지 입술까지 완전히 칠해지자 하녀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깨웠다.

“끝났습니다. 한번 거울을 보시겠습니까?”

하녀의 목소리를 듣고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던 헤르세인이 눈을 떴다. 하녀들의 행동을 봐선 꽤 진하게 칠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거울 속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옅게 분칠이 되어 있었다. 분홍색보다 붉은 사과 빛의 연지로 칠해진 입술과 옅은 갈색 계열로 이것저것 혼합하여 눈두덩위로 칠해진 짙어진 눈매의 모습. 그리고 뽀얘진 얼굴.

“…….”

역시나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은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거울에서 무표정으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던 헤르세인은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노크소리를 듣자 당연하게도 헤르세인은 왕비일거라 생각을 하며 하녀들이 손수 문을 여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문 밖에 서있는 건 왕비가 아닌 한껏 잘 차려입은 빈센트였다.

“누, 누님… 그동안 별 일… 없으셨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날 이후로 빈센트의 얼굴을 안본지 꽤 되리라 생각했다. 일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감정도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안 좋은 감정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다시 빈센트가 찾아왔는지 헤르세인의 미간이 곱게 좁혀졌다.

“네가 여긴 왜 온 거지?”

그 작은 어깨가 더욱 움찔거리도록 헤르세인은 얼음처럼 차갑게 물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상당히 날카로웠는지 빈센트의 어깨가 움찔거린 것을 단번에 본 헤르세인은 어느 정도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아주 찰나에 불과한지, 그 물음에도 눈앞의 어린 철부지 왕자는 수줍게 볼을 붉히며 대답했다.

“누, 누님을 에, 에스코트 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에스코트라고?”

“예! 누님!”

에스코트라니. 저렇게 뻔뻔히 나올 정도로 그날의 일은 머릿속에 지워버린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에스코트를 하고 싶다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거기다 그 고귀한 핏줄이 감히 사생아 따위에게 에스코트를 한다하니 우습기 짝이 없었다. 헤르세인은 바로 거절하려 입을 떼려 했지만 문득 의심이 들었다. 혹시 에스코트를 빙자해 자신을 모든 이들 앞에서 욕보이게 하려는 건지 아님 그때처럼 자신에게 굴욕을 주려하는 건지. 에스코트가 단순, 순수한 의도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빈센트의 에스코트는 달갑지 않았다.

“에스코트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에스코트란 명분으로 너와 붙어 있는 것은 더더욱 싫구나.”

“누님….”

풀죽은 강아지마냥 고개를 푹 숙이는 빈센트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도 헤르세인은 전혀 그 어린 동생이 불쌍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제 그만 자신의 앞에서 사라주길 바라며 헤르세인은 빈센트를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한 건지 또 다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끼어들었다.

“어디 있나 했더니 이곳에 있었구나. 빈센트.”

“어머니!”

이곳은 만남의 광장이라도 되는 것일까. 이번엔 왕비까지 찾아온 모습에 헤르세인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그녀의 등장으로 언제 풀 죽었냐는 듯이 귀를 쫑긋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 같은 빈센트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헤르세인은 두 사람의 모습이 거슬렸다.

“이곳에서 뭣하고 있었느냐, 빈센트.”

“저, 그게….”

평소라면 아기 새 마냥 재잘재잘 잘도 떠들 빈센트이건만, 어째서인지 말을 끄는 모습에 왕비는 고개를 들어 이번엔 헤르세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헤르세인은 역시, 아예 두 사람 쪽에는 시선을 두고 싶지 않은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왕비는 어렴풋이 분위기를 눈치 챘지만 그럼에도 모른 척하며 빈센트에게 다시 한 번 물었다.

“말해 보거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빈센트.”

결국, 왕비의 집요한 눈빛을 이겨낼 수 없었는지 빈센트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누, 누님께 에스코트를 청하려 찾아왔습니다.”

“에스코트라고?”

“예에… 저번 연회 때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누님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표정이 그런 것이냐.”

왕비의 핵심어린 말에 빈센트는 저도 모르게 움찔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헤르세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던 빈센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다.

“표정이라뇨? 어머니도 참. 제가 언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그러세요? 잠깐 빈혈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빈혈… 이라고?”

“예!”

왕비는 의심어린 눈빛으로 빈센트를 조용히 보았다. 어딜 봐도 자식이 속이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으나 오늘만큼은 그녀 역시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왕비는 그런 빈센트를 오늘까지 모르는 척 해주기로 생각하며 헤르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 그녀가 고른 안목대로 짙은 남색의 드레스는 헤르세인과 조화가 잘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더불어 오늘따라 유독 하녀들이 화장에 힘을 준건지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한 환영식 때보다 더욱 눈에 띄고 세세히 신경 쓰인 것이 보였다.

왕비의 만족어린 시선의 반대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훑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낀 헤르세인은 먼저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대놓고 물었다.

“만족하십니까?”

왕비가 원하는 것을 입고 원하는 대로 입히고 그녀가 마음에 들겠끔 단장했다. 그 어느 것 하나, 헤르세인의 것도 없었으며 이 왕성에 있는 이상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다. 하지만 왕비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되 마음 속 깊숙한 심연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왕비는 그 마음을 모른 채, 평 이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전보다는 봐줄만 하구나. 그럼 가자꾸나. 연회장으로.”

왕비가 먼저 등을 돌리곤 연회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빈센트가 살짝 헤르세인을 쳐다보곤 아쉬움을 남긴 채, 허겁지겁 달려가는 것이 보였지만 헤르세인은 성급히 그들의 뒤를 쫓지 않았다. 두 다리는 이 궁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그녀의 명을 거절할 명분이 없기에 헤르세인은 결국 무겁게 가라앉은 두 다리를 움직여야 했다.

오늘 따라 유독 연회장으로 향하는 헤르세인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 이미 성대한 연회가 열릴 거라는 국왕의 예고 덕분에 귀족들은 오래전부터 왕녀를 위한 선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물뿐만이 아닌, 아직 혼인을 올리지 않은 공녀들이나 혼인을 한 귀부인들조차 이번 연회가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옷이며 장신구며 하나하나 최고급으로 신경 쓰고 꾸며야 했다. 덕분에 맞춤 제작 드레스나 연미복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들은 이미 왕녀의 탄생일이 다가 오기 전인 몇 달 전부터 수많은 주문을 받고 옷을 제작하기 바빴다. 그리고 현재, 수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미복 디자이너로 알려진 ‘알렌드로’는 자신의 최고 단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루드비카의 앞에 서 있었다.

“연미복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루드비카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심열을 기울여 만든 저의 걸작 중 하나랍니다.”

“흐음.”

루드비카는 알렌드로가 만든 연미복을 입고서 전신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기저기 꼼꼼하게 둘러보는 것은 물론, 뒤를 돌아 거울로 확인하는 것까지 루드비카의 눈은 집요했다. 반면 계속되는 루드비카의 침묵에 알렌드로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 될 수밖에 없었다. 루드비카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골 고객이면서도 VIP중의 VIP고객이기도 했다. 그리고 ‘루드비카’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교계의 ‘붉은 장미’가 아니던가.

다른 남성 고객들이라면 화려한 연미복을 찾거나 디자인은 전적으로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남달랐다. 연미복의 디자인이나 단추의 모양새, 옷의 길이나 문양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유일한 남성 고객이기에 어찌 보면 더 특별하다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세세한 만큼 라인하르트 가문이 어떤 가문이던가. 중앙 귀족들 중에서도 상당한 재력가의 귀족이 아니던가.

연미복 하나 심혈을 기울일 만큼 후작 가문에서 주는 선금이 꽤나 거대하기 때문에 알렌드로에게 있어 루드비카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거기다 알렌드로와 루드비카의 취향이 생각보다 비슷했기 때문에 더욱 잘 맞는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워낙 세심한 성격인 루드비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완성된 연미복을 만들어 그가 심사할 때면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단추도 그렇고 조끼도 겉옷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이번 연미복은 조금 의외인 디자인이군요. 이번엔 좀 더 화려한 색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이런 차분한 색으로 고를 줄은 몰랐습니다.”

루드비카는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에 걸쳐 있는 연미복을 뚫어지게 보았다. 알렌드로가 만든 이번 연미복은 확실히 걸작이라 불릴 만큼 옷의 문양이나 단추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역력했다. 그러나 예외인 것이 연미복의 색 정도.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그의 특성상 이번의 연미복도 붉은 계열이나 아님, 노란 계열, 또는 보라색의 계열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확 튀는 색이 아닌 차분할 정도의 짙은 암녹색의 연미복 색깔에 처음엔 적응되지 않았지만, 계속 입고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보니 루드비카는 서서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다.

짙은 암녹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을 이용해 만든 겉옷은 진중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한층 살렸고, 겉옷의 밑단에 새겨진 넝쿨 문양은 금빛 자수를 놓았는지 포인트를 주어 한층 멋을 살렸다. 그리고 겉옷을 잠그는 커다란 단추마다 작은 루비가 장식되어 있어, 마치 단추에 붉은 꽃망울이 핀 것처럼 세공이 잘 되어 있었다.

안에 입은 옷들도 마찬가지로 겉옷과 잘 어울리겠끔, 하얀색과 조금 초콜릿색을 잘 배합하여 한층 성숙한 분위기의 연미복을 띄우고 있었다.

“이번 연미복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설마 이런 색의 연미복을 제가 입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역시 알렌드로님의 솜씨는 대단합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이번 연미복을 만들기까지 과정의 실수가 많았지만, 루드비카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다른 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니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루드비카는 알렌드로에게 마지막 계약금과 추가로 보너스까지 건네주며, 다음 옷에 대한 약속까지 잡고서 그를 정중히 보내주었다. 손님을 보내고서 옷의 세팅은 전부 마친 루드비카는 흡족한 얼굴을 하고서 연미복에 어울릴만한 머리 모양을 생각해야 했다. 그러다 하녀들과 이런저런 논의 끝에 오랜만에 머리를 땋기로 결정한 루드비카는 바로 그녀들에게 부탁하고서 느긋하게 머리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루드비카, 아직도 준비가 안 끝난──.”

“아, 형님.”

“…별일이구나. 네가 그런 옷을 다 입고. 오늘도 눈 따가울만큼의 화려한 연미복으로 입을 거라 생각했는데.”

루드비카를 끌고 내려가기 위해 직접 행차한 클로드는 무슨 일인지 오늘따라 차분한 계열의 연미복을 입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이런 큰 연회가 있는 날이라면 마치 눈에 띄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화려한 것만 주구장창 입던 루드비카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 화려함을 버리고 오늘따라 한층 차분한 계열의 연미복을 입고 있는 루드비카를 보니, 어쩐지 클로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차분한 계열의 색이라 해도 연미복에 수가 놓아진 문양들이나 장식을 보면 그렇게 차분한 옷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은은한 화려함을 보이고 있는 연미복을 보고 있자니 클로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네가 제정신을 차린 건 아닐 테고, 설마 아버지께서 협박이라도 하신 거냐. 그것도 아님, 아버지께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

“형님은 너무 저를 사고뭉치로 보시네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각하께서 제게 협박이라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멀쩡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하긴…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네 사지가 멀쩡할 일은 없겠지. 그럼 무슨 이유로 네가 직접 그런 옷을 입은 것이냐.”

살짝 삐딱한 자세로 클로드는 팔짱을 끼고서 하녀들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있는 루드비카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신거울을 통해 마주치고 있는 루드비카의 얼굴이었다. 루드비카는 거울을 통해 마주친 클로드를 보고서 담백하게 어깨를 으쓱인 것이 전부였다.

“디자이너가 완성하여 가져다 준 옷이 이런 연미복이더군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니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그런지 마음에 들더군요. 이런 연미복을 한번 쯤 입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 디자이너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해야겠군.”

“제가 화려한 연미복이 아닌 이런 연미복을 입어서 인가요?”

“그래. 네가 굳이 그런 연미복을 입을 정도면 솜씨가 대단하단 뜻이겠지.”

루드비카는 피식 웃고서 어느덧 하녀들이 손길이 멈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머리가 다 완성됐는지 살짝 거울을 보던 루드비카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하녀들이 완성한 머리 모양을 살폈다. 중간지점부터 머리를 땋아 연미복 색과 매치한 것인지, 붉은 큐브가 박힌 녹색 리본이 머리끝에 매듭지어져 있었다. 이제 귀걸이까지 끼면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이 완벽할거라 생각한 루드비카는 하녀들을 물리고서 귀걸이가 나열되어 있는 테이블 위의 작은 상자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 모습을 유심이 지켜보고 있던 클로드는 귀걸이를 끼려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루드비카가 입은 옷이 마음에 쏙 들기에 딱 한 번, 눈감아주기로 생각했다. 어느덧 마음에 드는 귀걸이를 골랐는지 거울 앞에서 루드비카가 양쪽 귀를 만지작거리며 귀걸이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금방 귀에 걸렸는지 루드비카가 양손을 내리자, 그의 양쪽 귀에는 물방울 모양의 가넷이 박힌 귀걸이가 짤랑거리고 있었다.

붉은 귀걸이를 포인트로 꾸미자 루드비카는 상당히 만족한 표정을 짓고서 클로드 쪽으로 뒤를 돌아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실까요? 형님.”

이른 새벽부터 일찍 단장을 시작한 케시아는 어느덧 완벽하게 드레스 자태를 갖춘 채, 왕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왕후역시 완벽하게 단장한 자신의 딸이 흡족한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케시아를 불렀다.

“케시아,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구나. 날이 갈수록 네가 이토록 아름다워지니 폐하께서도 널 아직까지 혼인시키길 꺼려하시는지도 모르겠구나.”

“과분한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아직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걸요?”

“역시 나의 딸답구나.”

어쩜 이리도 말을 예쁘게 하는지 카타리아 왕후는 오늘만큼 이토록 기쁠 수가 없었다. 매 1년마다 한번 뿐이 없는 왕실의 큰 행사. 그리고 왕녀의 한번 뿐인 탄생일. 1년 마다 한번 뿐인 탄생일이기에 왕후는 케시아를 위한 연회를 매번 화려하고 성대하게 꾸며주고 싶었다. 그렇게까지 해줘야 자신의 기가 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딸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다른 귀족들에게 과시할 수 있지 않던가. 거기다 국왕까지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그런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뭔들 못할 수 있을까. 왕후는 손톱이 붉게 칠해진 하얀 손을 들어 뽀얗게 화장을 칠한 케시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케시아, 넌 누가 뭐라 해도 내 핏줄이다. 이 카타리아의 자랑스러운 왕녀이자 적녀. 너의 아름다움은 모든 귀족가의 공녀들이 질투 할 것이고, 너의 아름다움에 모든 공자들이 매료되겠지. 그리고 넌 그 정점에서서 고귀하게 빛날 것이야.”

“예, 어머니.”

“하지만, 그 고귀함이 끝까지 빛이 나려면 넌 누구보다도 가장 잘난 공자와 혼인을 해야 할 것이다. 절대로 신분이 낮아서도 안 되며, 널 빛나게 해줄 공자와 혼인을 하여 그 자리에 앉아야만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신중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왕후의 눈과 케시아의 눈이 마주쳤다. 많은 귀족들은 유독 케시아에겐 왕후와 많이 닮지 않았다고 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건, 모든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왕후와 조용히 표현하는 케이사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케시아는 왕후의 딸이었다.

왕녀라는 위치 때문에 모든 이들에겐 한 없이 자애로우면서도 예를 존중하듯 대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 케시아는 욕심이 많으며 탐나는 것이 있으면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타인에게 맡겨 지금까지 손에 넣지 않은 건 없었다. 단지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케시아는 뼛속까지 왕후의 판박이이자 그녀의 핏줄이었다.

“어머니.”

“그래, 말해 보거라 케시아.”

“혹시 제가… 공작가 또는 후작가의 장남이 아닌 후계권이 없는 차남인 공자와 혼인을 하게 되면 어머니께선 반대하실 건가요?”

후작 그 이상의 공자와 혼인을 바라는 왕후였다. 무조건 거대하면서도 오랜 혈통의 명문가와 혼인하길 늘 바랐던 왕후이기에 케시아도 한때는 당연하게도 중앙 귀족 중, 오랜 혈통이 이어진 명문가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눈에 반한 사내를 마음에 품게 된 그 순간부터 케시아는 처음으로 왕후가 바라는 대로 혼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

오로지 케시아가 원하는 사내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면 혼인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 케이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왕후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반발하듯 물었다. 명문가 이되, 가문을 이을 후계자가 아닌 차남이라면 그 혼인을 왕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나 그 물음이 물색할 만큼 왕후의 표정은 한껏 일그러지더니 케시아에게 따지듯 대답했다.

“케시아, 네가 어째서 그런 물음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버리거라. 차남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구나. 널 빛나게 해주고 네가 돋보일 자리는 후작부인이나 공작부인의 자리이지, 가문의 후계자를 잇지 못할 차남의 부인자리 따위가 아니다. 왜? 어느 후계자도 아닌 공자가 혹여 네게 추파를 던지기라도 하는 것이냐?”

당장에라도 그 공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왕후의 눈동자가 뱀처럼 매섭게 케시아를 쳐다봤다. 그 매서운 눈동자에 케시아는 서둘러 고개를 젓고서 입을 뗐다. 아무래도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았다.

“…아니요, 그냥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께선 어떻게 하실까 싶어 궁금하여 물어본 것 뿐 입니다.”

케시아의 애매한 대답에 왕후의 가느다란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이내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서 진한 미소를 그으며 케시아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네가 별 헛소리도 다 하는 구나. 하지만 케시아, 넌 절대로 그런 공자와 혼인을 해선 아니 된다. 네 미래와 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넌 절대적으로 최고 사내와 혼인을 해야 해. 그것이 왕녀로서의 또 다른 의무이다. 알겠느냐. 그러니 허튼 생각은 앞으로 삼가는 게 좋겠구나.”

“…예, 어머니.”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기쁜 날이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일로 기분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 왕비는 케시아의 뺨에서 빠르게 손을 떼고는 근처에 있던 하녀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오늘 왕녀가 입을 드레스 후보들을 다시 내 앞으로 가져 오거라.”

“어, 어머니? 갑자기 드레스는 왜….”

갑작스럽게 하녀들에게 드레스를 가져오라는 그녀의 명령에 바로 앞에 있던 케시아까지 놀란 눈을 하며 왕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왕후의 대답은 너무도 단순했다.

“지금 다시 보니, 그 드레스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구나. 그런 칙칙한 아이보리 색 드레스 보단 화려하고 눈에 띄는 드레스가 오늘 같은 날, 널 더욱 돋보이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녀들은 뭣들 하고 있는 것이냐! 어서 드레스를 가져오지 않고!”

이미 케시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왕후의 변덕 덕분에 다시 세팅해야할 상항이 오고 말았다. 다시 드레스를 다른 것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긴 했지만 왕후의 말처럼 이런 특별한 날일수록 화려하게 입어주는 것은 맞기에 케시아는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았다. 어느덧 왕후의 명령으로 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여러 개의 드레스를 눈앞에 대령한 것이 보였다. 그리고 케시아는 왕후와 함께 다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다.

왕비와 빈센트의 뒤를 따라 연회장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벌써부터 속이 좋지 못했다. 이른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치장 준비에 시간을 빼앗긴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귀족들의 시선이었다. 처음 환영식 때도 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영 적응이 안 되는 건지 벌써부터 연회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헤르세인에겐 가슴이 턱턱 막혔다.

“어머, 아라네아 왕비전하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빈센트 왕자전하까지.”

“안녕하십니까, 왕비전하.”

“오늘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왕비전하. 그리고 빈센트 왕자전하께선 늠름하시기까지 하군요.”

연회장에 있을 뿐인데 귀족들이 너나할 것 없이 왕비와 빈센트의 곁으로 모여드니 마치, 자신만이 다른 세상에 동떨어진 것 같아 헤르세인은 자연스럽게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멀리 동 떨어진 채로 귀족들에게 둘러싸인 왕비와 빈센트를 보니,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왕비뿐만이 아닌 빈센트와 자신의 차이를. 사생아란 꼬리표가 붙어있는 자신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서 자란 빈센트의 곁에는 마치 빛 무리를 따라붙는 신도들처럼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었다.

씁쓸하거나 서운한 감정 따윈 들지 않았다. 애초에 사생아인 자신과는 다르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가 아니던가.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귀족들이 빈센트에게 갖는 호의적인 시선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다만, 만약 자신이 사생아 따위가 아닌 빈센트처럼 왕녀로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럼 내 곁에도 저들이 알아서 모였을까? 설령 거짓된 호의일지라도 웃으면서 내 곁에 다가왔겠지. 루드비카… 그 남자처럼….’

“아….”

왜 여기서 그를 떠올린 걸까.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좁히고 말았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고 말았다. 어딘지 모르게 나사 하나는 빠진 것 같은 남자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느 것 하나 예상하기 어려운 남자. 이내 헤르세인은 그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내기 위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서 그를 떠올릴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도 귀족인 이상, 어쩌면 이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물 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마, 여기 어디쯤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라도 날 아는 척하면 그건 그거대로 곤란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아직 연회시작은 한참 남아 있어 모든 귀족들이 회장에 도착해 있는 건 아니었다. 회장에는 무수한 귀족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가문이고, 어떤 작위를 가진 귀족인지 헤르세인은 알 수 없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귀족이라곤 루드비카가 유일했고, 그가 라인하르트 후작가의 차남이란 것 밖에 알지 못했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그에게 대해 아는 거라곤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을 떠나, 그의 존재는 어차피 금방 잊혀야할 존재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주변을 쭉 탐색하다가 익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아직은 모습이 안 보이지만 연회가 시작이 되면 나타날지도 몰라.’

지금당장은 안심할 수 있다 해도 연회가 시작되고 그가 나타난다면 헤르세인은 무조건 이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싶진 않았다. 그것이 과연 그가 자신을 향한 경멸의 시선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다시 들어 왕비와 빈센트가 있는 곳에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많이 모여들던 귀족들도 언제 다 떠나갔는지 소수의 귀족들 모습만 보일 뿐, 두 사람의 주변을 가득매운 귀족들의 무더기는 더 이상 없었다. 어느덧 남은 그들과도 이야기를 마쳤는지 왕비가 고개를 돌려 헤르세인 쪽으로 시선을 주시했다.

‘나보고 오라는 건가….’

왕비의 눈빛이 어서 가까이 오라는 눈짓이었다. 헤르세인은 결국 군말 없이 조용히 걸어가 금방 그녀의 근처에 설 수 있게 됐다.

“어디 있나 했더니 뒤에 조용히 있더구나.”

“제가 그들과 할 말도 없을뿐더러 그들도 저와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단 조용히 있는 편이 더 낫겠지.”

“…….”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님 비꼼인지, 또 아님 왕비의 본심인지 알 수 없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왕비의 말투는 차분했고 날이 서있거나 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 어떤 의미를 가졌던 헤르세인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처럼 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단 가만히 입을 다무는 편이 자신에겐 더 편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우리의 위대한 태양이신 위스턴 국왕폐하 납십니다! 모두, 예를 갖추십시오!!”

그때, 아직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국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연회장의 열려있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면서 국왕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국왕의 모습이 나타나자 귀족들이 일제히 살짝 무릎을 굽혀 허리를 숙였고 왼쪽 가슴에 손을 얹히고서 국왕에 대한 존중과 예를 표하고 있었다.

‘나를 왕녀로 앉힌 국왕….’

사브레 왕국의 현 국왕이자 "피의 숙청"으로 지금의 왕좌에 앉게 된, 위스턴 엘 갈리암 라그디알 국왕. 아직은 왕실 교사들에게서 사브레 왕국에 관한 역사학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현 국왕인 위스턴 국왕에 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이다. 위스턴 국왕은 원래 선대 국왕의 제2왕자이자 선대 국왕의 후계자로선 될 수 없는 위치였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의 형이자 국왕의 장자로 태어난 제1왕자가 왕태자로서 후계자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후계자의 자리를 단단히 다져놓은 왕태자가 있음에도 어째서 후계자가 아닌, 제2왕자가 지금의 국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위스턴 국왕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조금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지만 위스턴 국왕은 분명 "피의 숙청"이란 사건 속에 지금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의 숙청이란 피바람의 과거 속에 당당히 왕좌를 차지한 위스턴 국왕. 그런 국왕이 어째서 한낱 사생아에 불과한 자신을 그것도 제2왕녀로서 입적시켰는지 이젠 국왕의 의중이 궁금했다.

“모두, 고개를 들도록.”

근엄한 목소리가 장내에 퍼지자 허리를 굽히고 있던 귀족들이 슬쩍 눈치를 본 후, 모두 반듯하게 허리와 고개를 세웠다. 얼굴을 드러낸 모든 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된 위스턴 국왕은 이내 만족했는지 회장 내에 있는 단상위의 자리에 앉았다. 국왕이 자리에 착석하자 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국왕에게 있었으며, 국왕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오늘 나의 사랑스러운 딸인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그대들에게 감사를 표하네. 회장을 보아하니 아직 탄생일의 주인공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특별한 날인 오늘만큼 그대들도 즐겨주길 바라네.”

모두가 입을 맞춰 ‘예, 폐하’라고 대답하자, 국왕은 손을 들어 손뼉을 두 번 쳤다. 두 번 쳐진 손뼉의 신호에 회장 안에서 연주를 준비하던 악사들이 다양한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시작했다. 회장의 분위기에 맞춰 바이올린의 선율이 흐르는 잔잔한 리듬을 시작으로 국왕의 등장으로 딱딱해져 있던 분위기가 풀어졌다. 귀족들은 언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지 제각각 다시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풀어냈고, 나이가 있는 고위 귀족들은 부인들을 데리고 국왕에게 따로 인사를 올리고자 움직이는 발걸음이 많았다.

위스턴 국왕의 등장으로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왕비 쪽을 보고 말았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도 국왕에게 달려갈 거라 생각한 것과는 달리, 헤르세인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왕비는 환영식 때처럼 그저 멀찍이서 국왕의 모습만 무심하게 보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반가움이나 국왕을 향한 ‘애정’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혹시, 표정에만 드러나지 않는 건가.’

헤르세인이 보는 왕비의 모습은 냉혈한 그 자체였다. 표정이 없는 것도 그렇고 말투며 손짓이며 왕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신이 사생아이기에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싸늘히 대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헤르세인도 어느 정도 왕실에 적응이 되면서 지나가다 조용히 떠드는 하녀들의 이야깃거리나 시녀들의 재잘거리는 수다를 들어보면 왕비는 왕후보다도 국왕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총애를 듬뿍 받는 왕비는 정작 얼음 그 자체이니….

헤르세인은 이내 왕비에게 가있던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가 국왕의 총애를 받든 그녀가 국왕을 애정하지 않든 무슨 상관이던가. 그것은 그녀만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헤르세인은 다시 왕비 쪽으로 시선을 옮겨 마른 입술을 뗐다.

“국왕폐하께 인사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

“…왕비전하?”

이상하게도 반응이 없는 왕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조용히 그녀를 주시했다. 그러자 왕비는 그제 서야 반응하는지 눈을 느릿하게 깜박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말대로 국왕폐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사람이 가득한 이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평소 같지 않은 왕비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조금 의아했지만, 왕비의 그 모습은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왕비를 중심으로 헤르세인가 빈센트는 그녀의 뒤를 따라 금방, 국왕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왕비의 등장에 멀찍이서 보았던 국왕의 얼굴은 귀족들과 담소를 나누었던 것 보다 표정이 펴져 있었다.

“오, 이런. 아라네아.”

“폐하께 인사를 올립니다.”

왕비는 그 어떤 귀족들보다 기품 있고 우아한 동작으로 절제 있게 허리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왕비의 행동하나하나에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않은 국왕의 모습이 헤르세인의 시선에 잡혔다. 한 없이 냉랭하기만 한 왕비의 모습과 불처럼 왕비의 모습만 쫓는 국왕의 모습. 귀족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몰라도 헤르세인이 보기엔 마치 두 사람은 뒤 섞이지 않은 물과 기름 같았다.

“고개를 들라, 아라네아.”

“예, 폐하.”

국왕의 목소리에 왕비가 허리를 곧게 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왕비는 양쪽에 있는 헤르세인과 빈센트를 보며 입을 열었다.

“너희도 어서 인사 올리거라.”

왕비의 말이 떨어지자, 제일먼저 빈센트가 밝은 목소리로 국왕에게 예를 차렸다.

“제2왕자 빈센트가 국왕폐하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 빈센트. 요즘 내가 업무가 바빠 도통 너를 만날 시간이 없더구나. 요즘 어찌 지내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학문에 집중하라 하시어 평소보다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역사학 쪽에 재미가 들려 그쪽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폐하.”

“그래? 하하하! 기특하구나. 그래야 내 아들이지!”

빈센트가 수줍게 인사를 끝내자 이번엔 헤르세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국왕에게 인사를 올렸다.

“제2왕녀인 헤르세인 이라 합니다. 폐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가… 헤르세인이구나. 아라네아의…….”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국왕의 표정이 어떠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국왕이 말꼬리를 흐린 걸로 봐선 분명 탐탁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 어떤 이가 그것도 부인의 사생아 따위를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특히나 총애하는 왕비의 사생아를. 그러나 우습게도 사생아인 자신을 왕녀로 앉힌 건, 국왕이자 국왕의 권력이었다. 그 권력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개를 들라.”

국왕의 명령조에 헤르세인은 허리를 피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국왕의 인상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멀리서 볼 땐,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지만 막상 가까이서 본 국왕의 모습은 왕비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아니, 어쩌면 자신만의 생각일지도 몰랐다. 빈센트를 바라보던 국왕의 눈빛을 정확히 보았던 헤르세인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국왕의 눈빛이 어떤지 이미 눈치 채고 있었다.

‘사생아 따위를 좋게 볼 리가 없겠지. 그것도 핏줄을 중시하는 왕가일수록.’

애초에 국왕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빈센트라면 몰라도 자신은 국왕의 피조차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아니던가. 문득, 궁금증이 일어났다. 자신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어떤 사람이기에 왕비는 아버지란 사람의 언급조차 없을뿐더러 자신을 사생아로 그냥 내버려둔 것인지. 또, 아버지란 사람은 과연 자신의 존재를 알고는 있을지 아님, 살아있기는 한 건지. 하지만 왕비가 친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친부도 어쩌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얼굴조차 모를 친부를 떠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던가. 자신은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사생아일 뿐일 텐데…….

헤르세인은 더욱 곧은 자세로 메마른 눈을 움직여 국왕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마치 서로가 눈빛으로 탐색하듯 국왕도 헤르세인도 둘 중, 누가 먼저 입을 떼지 않았다. 그 기나긴 침묵에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고 있던 귀족들은 좋은 구경거리라도 되는지 그들의 눈도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이어지고 결국 먼저 지쳐버린 건지 아님 탐색을 끝냈는지 국왕이 작게 미소를 띠며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버렸다.

“아라네아를 왕비를 아주 많이 닮았군.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아라네아라고 해도 믿어지겠어.”

살짝 입술이 열려있던 헤르세인은 이내 입술을 꾹 닫아버렸다. 헤르세인에게 있어 왕비는 그야말로 복수의 대상. 아무리 친모라 해도 자신을 자식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녀인데, 닮았다는 말이 듣기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국왕. 여기서 입을 계속 다물고 있다간 건방지기 짝이 없다며 귀족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물론, 국왕은 더욱 자신을 좋게 볼 리가 없었다. 헤르세인은 떨어지지 않은 입술을 떼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황송한 칭찬이십니다. 폐하.”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서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국왕의 눈과 마주쳤다. 그때, 국왕은 또 다른 할 말이 있는지 다시금 입을 열려 했지만 회장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헤르세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했다.

“우리의 위대한 달이신 카타리아 왕후폐하! 그리고 위대한 작은 태양이신 윌리스 왕태자 전하와 하나의 별이신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드십니다!”

연속으로 왕후와 왕태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케시아 왕녀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에 귀족들의 시선이 닫혀 있는 거대한 문으로 향했다. 거대한 문이 병사들의 손에 열리면서 왕후의 모습은 물론, 왕후의 핏줄이 나타나자 귀족들은 언제 떠들었는지 모를 만큼 잽싸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달, 왕후폐하와 작은 태양이신 왕태자 전하, 그리고 하나의 별, 케시아 왕녀전하께 인사를 올립니다.”

귀족들이 너나할 것 없이 딱딱하게 예를 갖추고 있자, 민망함조차 없는지 왕후는 살짝 경박하게 웃으며 귀족들의 예를 서둘러 거두었다.

“모두, 어서 고개를 드세요. 국왕폐하께서 자리에 앉아계신데 제가 오래 인사를 받을 수야 없지요. 그리고 폐하. 먼저 오실 거라면 제게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지 않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왕후.”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러셨다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군요.”

입꼬리를 진하게 끌어올린 왕후와는 달리, 왕후를 보는 국왕의 시선은 싸늘할 만큼 냉랭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왕후와 국왕의 시선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그녀가 왕실 교사에게 배운 지식으론 왕후와 국왕은 서로 정략 혼인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말로는 선대 국왕의 강압으로 맺어진 정략혼인이라고도 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저토록 엇갈린 건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국왕은 왕후에게 호의적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였다.

왕후에게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떼어낸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국왕은 그 어느 때 보다 진중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전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왕녀가 도착했네. 모두 케시아 왕녀를 위한 연회인 만큼 아무런 일 없이 즐겁게 이 연회를 즐겨주길 바라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국왕의 목소리를 끝으로 길고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음을 알렸다.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면서 케시아 왕녀와 윌리스 왕태자의 주변으로 젊은 귀족들이 모여들었다. 오늘은 하나 뿐인 여동생, 케시아를 위해서인지 윌리스 왕태자는 점잖은 제복차림을 입고 있어 케시아의 뒤에서 귀족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런 오라버니의 배려에 케시아는 더욱 화려한 드레스차림을 뽐내며 공녀들을 상대했다.

“어머, 케시아 왕녀전하. 그 드레스는 맞춤 드레스인가요?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는 제 생에 처음 봅니다. 혹시 전하의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가 있다면 제게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왕녀전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특히나 이런 붉은 드레스를 입으신 왕녀전하를 보니,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어쩜 이리도 아름다우신지요.”

“탄생일 축하드립니다. 왕녀전하. 어쩜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지 그 비법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색찬란한 부채를 뽐내며 공녀들의 제잘 거리는 입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신하게 미소를 지은 채, 칭찬이 담긴 말들은 모두 귀에 담고 있던 케시아는 분홍빛 파스텔 톤의 부채를 들어 작게 입술을 열었다.

“과분한 칭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입은 붉은 드레스는 왕후폐하께서 제게 특별 제작하여 선물해주신 드레스랍니다.”

“세상에 특별제작이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왕녀전하.”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런 드레스 한 벌 제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직까지 드레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 공녀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나름 만족감을 어리게 해줘 케시아의 미소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마가지 않아 한 공녀의 발언에 부채 속에 웃고 있던 케시아의 미소는 살짝 내려가고 말았다.

“그런데 아까 봤습니까?”

“보다니, 무엇을 말이죠?”

“아이참, 헤르세인 왕녀 말입니다. 꼴에 어디서 드레스를 갖고 왔는지 상당히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더군요. 장신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듣기론 헤르세인 왕녀에겐 따로 재산 같은 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아, 그러고 보니…….”

케시아의 주변에 모여든 공녀들의 관심사가 모두 헤르세인 왕녀에게로 향하자 부채 속에 미소를 감춘 채로 케시아는 저도 모르게 바짝 귀를 기울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라면 동화 이야기도, 로맨스도 아닌 바로 남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그것도 타인을 지극히 폄하하는 뒷이야기.

“아무리 그래도 케시아 왕녀전하의 탄생일인데 그런 칙칙한 색의 드레스 따위를 입다니. 역시 사생아라 그런지 드레스를 고르는 꼴도 최악이네요.”

“그런가요? 그래도 헤르세인 왕녀가 입은 드레스는 꽤나 값이 나가 보이던데….”

“어머, 공녀. 설마 헤르세인 왕녀를 두둔하는 건가요?”

“두둔이라뇨?! 어두운 드레스 색과는 별개로 값이 꽤 나가보인다는 소리죠!”

살짝이라도 헤르세인 왕녀를 두둔하려는 기미라도 보이면 가차 없이 뒤돌아설 그녀들이었다. 아무리 그녀들보다 높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태생부터가 다른 핏줄과 신분이 아니던가. 거기다 일반 평민도 아닌, 슬럼가 출신의 사생아이기까지 했다. 그냥 사생아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인데 슬럼가 출신이기까지 한 헤르세인 왕녀를 어떻게 더욱 좋게 볼 수 있을까. 한 번 시작된 험담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공녀들의 험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케시아는 조용히 부채를 펼친 채로 공녀들의 속사포와도 같은 입들을 막아서지 않았다. 만약, 헤르세인이 환영식 때 첫날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였더라면 나름 두둔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때와의 사정이 달랐다. 그와 헤르세인이 함께 있었던 그날 이후로 전속시녀인 루네즈에게 시켜, 헤르세인에 관한 보고와 감시를 시켰다. 이 왕성 안에서 모든 시녀들은 그녀의 수족과도 마찬가지이기에 케시아가 모를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루네즈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듣자, 그 어떤 때보다 머리가 차게 식었다.

"헤르세인 왕녀에 관해 알아본 바로, 시녀들이나 하녀들이 가끔씩 왕실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붉은 머리를 가진 한 남자와 헤르세인 왕녀가 자주 마주친 것을 봤다는 목격이 있습니다."

그저 그날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케시아만의 생각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두 사람이 인연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주 마주쳤다는 목격을 듣게 된 이상, 케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움직이기에 왕실에는 수 백 명의 눈이 가득했고 그녀는 제1왕녀였다. 마음속에는 성난 불길이 솟구침에도 귀족들에게서 온화한 왕녀라 인식되고 있는 이상, 케시아는 그 솟구치는 불길을 끝내 다스려야 했다.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지. 왕실에 발을 들인 이상, 사교계란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번쯤은 겪어봐야겠지.’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의 모습을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봤을지도 몰랐다. 자신도 모를 상냥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며 몇 번이나 마주쳤을 헤르세인을 생각하니 질투란 것이 무섭도록 머릿속을 지배했다. 공녀들이 아직도 헤르세인의 험담을 대놓고 떠들고 있을 동안, 케시아의 눈동자는 재빠르게 헤르세인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얌전히 서있는 헤르세인이 발견되자 케시아는 교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들고 있던 부채를 가지런히 접으려 했다.

“어머, 저기 라인하르트 공자님들 아닌가요?!”

“어머머! 정말이네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서 우리들도 인사드리러 가야죠!”

부채를 채 접기도 전에 케시아는 영애들의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마음속을 휘젓던 질투란 감정은 사라지고, 어느새 케시아의 눈은 온전히 한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왕비가 빈센트를 데리고 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헤르세인은 나 홀로 떨어져 조용히 구석진 곳에 서 있었다. 악사들이 연주하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거나 또는 샴페인을 마시며 저들끼리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헤르세인의 고요한 눈에 담겼다.

몇 분이나 이곳에 있었던가. 정확히 시간을 새보진 않았지만 비록 구석진 곳에 있음에도 헤르세인의 곁으로 오는 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눈과 얼핏 마주친 귀족들은 있어도 그들은 마치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생아이기에 그들이 다가가길 꺼려하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모를까 대놓고 보거나 눈이 마주쳤음에도 경멸어린 시선을 띄며 외면하는 그들을 보니 속이 더 거북해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이 거북한 곳을 벗어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 헤르세인은 돌아가기 위한 허락을 받고자 왕비의 모습을 찾아야 했다. 어차피 케시아 왕녀의 탄생일이라 귀족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녀이기에 헤르세인이 이곳에 있을 이유는 없었다. 거기다 있을 만큼 오래있지 않았던가. 이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며 헤르세인의 눈은 바쁘게 왕비의 모습을 찾아내야 했다.

“저기 라인하르트 공자님들 아니야?”

“어머나! 라인하르트 공자님들이시잖아!”

왕비의 모습을 찾고 있던 헤르세인의 눈동자가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말았다. 혹시 잘못들은 건가 싶어 왕비를 찾길 포기한 눈동자가 재빠르게 시끌벅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동자가 멈춘 곳은 정확히 착각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듯 한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벌써 여기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평소 옷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습은 어째서인지 계속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화려하면서도 차분해 보이는 그의 주위로 모든 영애들이 모여든 것이 보였다.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평범히 만났던 때와는 전혀 다른 루드비카의 모습이 헤르세인의 눈에 비쳤다.

“아…….”

이제야 실감이 난달까. 평범히 보면 그저 방정맞은 사내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진중이 차려입고 공녀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니, 마치 그녀가 알고 있는 루드비카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온 몸이 싸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 채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루드비카쪽에 있던 시선을 돌려 헤르세인은 황급히 왕비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했다. 재빨리 눈동자를 굴려 간신히 왕비를 찾긴 했지만, 왕비는 빈센트와 함께 다른 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애매한 상황이었다. 지금 여기서 움직이자니 루드비카가 있는 곳과 왕비가 있는 거리는 멀지 않았다. 자칫 왕비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다가 루드비카에게 들킬 수도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짧은 갈등 끝에 조용히 움직여 회장에서 빠져나가기로 선택한 헤르세인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움직였다. 아니, 움직이려 했다. 혹시라도 들키지 않기 위해 그의 행동을 살피며 움직이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드는 동시에 헤르세인의 눈은 뜻하지 않게 그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

눈이 마주치자마자 헤르세인은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분명 순식간에 고개를 돌렸음에도 등 뒤로 따갑게 느껴지는 시선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루드비카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혹시라도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헤르세인은 무작정 이곳을 벗어나기로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해 헤르세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다급했다.

다급하게 앞을 해쳐나가며 보이는 길대로 걷다보니 헤르세인은 어느새 회장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가장 다행인 점이라면 회장의 문이 하나가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가 회장 바깥으로 나간 모습을 보지 못했다. 무작정 앞만 보고 걸으며 모퉁이를 지나 거의 인적이 없는 복도가 보이자 헤르세인은 일단 주변을 살핀 다음, 벽에 기대어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어디에도 따라오는 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후우…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뭐가 말이죠?”

“!!”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 동시에 발이 꼬이게 되면서 무개 중심이 뒤로 당겨지고 있었다. 창피는 물론, 이대로 완전히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에 헤르세인은 눈을 꼭 감은채로 이를 악물었지만 어째서인지 엉덩방아는커녕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무개 중심이 돌아 온 건가 싶어 눈을 번쩍 뜨자 그녀의 바로 눈앞에는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이런, 괜찮으십니까?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

“…아가씨?”

“……아.”

처음엔 왜 그의 얼굴이 이토록 가까이 있는지 머리가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머리가 이해하자 이번엔 그의 몸과 그의 손이 자신의 신체와 가까이 있는 것은 물론, 그가 접촉했다는 것을 떠올리자 헤르세인은 도저히 그의 손에 몸을 중심을 맡길 수가 없었다. 서둘러 그의 품에서 반 강제적으로 떨어지자 다행히도 그는 쉽게 놓아줬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눈과 손은 많은 아쉬움을 보이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그가 다시 붙잡을까봐 최대한 세 걸음 이상 뒤로 물러났다.

“아가씨?”

“왜…….”

“예?”

“왜 날 쫓아온 거야. 굳이 쫓아올 이유가 없는데… 왜….”

자신의 뒤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의 뒤를 쫓아온 게 어떻게 말이 될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뒤엎듯 루드비카는 너무나 당연하게 눈에 미소를 머금으며 입술을 모아 대답했다.

“어떻게 아가씨의 뒤를 쫓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 눈엔 오직 아가씨 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만약,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 공녀들 중 한명이었다면 그 달콤한 말에 흠뻑 빠졌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은 수많은 공녀들 중 한명도 아니거니와 그에게 비밀을 감추고 있는 왕녀 헤르세인이었다. 더군다나 이곳은 수십의 눈이 가득한 왕성의 연회장. 지금 당장 그에게 정체를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위험했다. 헤르세인은 지긋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시선을 외면하며 이대로 돌아가려 했다. 정확히 뒤를 돌아 한발자국 대리석 바닥에 구두를 내디딜 때까지 헤르세인의 마음은 굳건했다.

“후우, 찾았군요. 라인하르트 공자! 그보다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어머… 헤르세인?”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헤르세인? 네가 왜 이곳에….”

“헤르… 세인?”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키며 헤르세인은 숨을 멈췄다. 여전히 자신을 향해있는 두 사람의 시선. 어째서 자신이 그와 함께 있냐는 케시아 왕녀의 시선은 어떡해서든 감내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물론 케시아 왕녀의 대답을 따라 ‘헤르세인’이라 그 이름을 토해낸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헤르세인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어머, 혹시 공자께선 아직 제 여동생을 모르시는 건가요?”

케시아 왕녀의 입에서 ‘여동생’이란 언급이 나오자 루드비카는 설마 하는 눈으로 이번엔 전혀 닮지 않은 두 자매를 봐야만 했다.

“케시아 왕녀전하, 여동생이라 하시면… 이 아가씨… 아니 이 분은….”

“상황을 보니 아직 서로 통성명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된 거 제가 소개시켜드리지요. 라인하르트 공자, 이쪽은 아라네아 왕비전하의 여식이자 저희 왕가에 입적한 제2왕녀인 헤르세인입니다. 그리고 헤르세인, 이쪽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둘째 공자이신….”

헤르세인은 케시아 왕녀의 소개가 다 끝나기 전에 파르르 떨리는 두 손에 힘을 주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가문의 둘째 공자이신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공자… 비록 ‘초면’이긴 하나 저도 성에 살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2왕녀인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 이라 합니다. 또, 넘어질 뻔 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가 지금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배신감? 아님 경멸어린 눈? 또 아님 사생아 왕녀란 것을 알게 되어 혐오감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상하게도 겁이나 헤르세인은 숙이고 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차피 영원히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비록 그와는 많은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생애처음으로 ‘선물’이란 것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꽃’에 관한 이름과 아름다운 향기를 몰랐을 것이며, 그에게 치료를 받은 ‘고마움’이란 감정조차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그를 피하고 싶어 했는데 정작 다시 생각해보니 그에게 받은 것이 뜻하지 않게 너무도 많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자신을 ‘헤르세인’이 아닌, 정체모를 시녀로 상대해준 것 뿐.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앞에선 이름 모를 일개 시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일개 시녀조차 아닌 왕녀 헤르세인이었다. 그것도 모두가 경멸하는 슬럼가 출신의 왕녀 헤르세인 말이다.

헤르세인은 차라리 그에게 먼저 무시와 경멸을 받을 바에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 일을 없던 일처럼 하고자 오늘 처음만난 것처럼 대하고자 했다. 완전히 초면인 것처럼 대해준다면 오히려 그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 헤르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은 기분이 되었다. 물론, 힘을 주고 있는 두 손은 여전히 작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반듯이 턱을 올리고 내리깔고 있던 눈동자를 정면을 향해 움직였다. 새하얗던 시야가 탁 트이게 되면서 정면을 향한 눈동자가 온전히 그의 모습을 담아낸 순간, 헤르세인은 어떤 눈으로 그를 봐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철면피 인걸까? 아님, 자신이 말한 대로 이전의 기억을 싹 지운 채 초면인 사람처럼 대하고 싶은 걸까. 그는,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향해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라니요, 오히려 신사로서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한 것 뿐 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몸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여 다행입니다. 고귀하신 몸에 상처가 생기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케시아 왕녀전하.”

“…예? 아… 예… 공자….”

갑작스럽게 불린 이름에 케시아는 잠깐 생각에 빠져있던 시선을 거두고 서둘러 루드비카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케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헤르세인과 루드비카의 만남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분명, 헤르세인과 루드비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가 틀림없었다.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의 눈으로 직접 두 사람이 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은 물론, 도서관 근처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까지 있으니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두 사람의 현재 행동이었다.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두 사람은 서로 초면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뻔히 만난 사이임에도 처음 만난 사람마냥 행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케시아는 그 생각을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났던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중요치 않았다. 여전히 케시아에게 있어 루드비카의 존재는 자신의 남자였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여인은 자신 빼고 모두가 적이었다.

거기다 넘어질 뻔한 헤르세인을 루드비카가 도와주었다고 한 이상, 케시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움을 받은 장본인 앞에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왕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님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케시아는 펼쳐진 부채 속에 숨겨진 잔인한 미소를 숨기고는 자애로운 언니의 모습으로 바꾸어 헤르세인과 루드비카에게 전했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야기 하고 있을게 아니라, 모두가 있는 정원에서 이야기의 꽃을 펼치는 게 어떨까요? 라인하르트 공자. 그리고 헤르세인.”

헤르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모든 일이 꼬이고 있었다. 뜻하지 않게 루드비카에게 정체가 들킨 것은 물론, 누가 봐도 경멸어린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귀족들 사이에 자신을 끌고 온 케시아 왕녀. 그나마 다행이도 모두의 시선이 루드비카와 케시아 왕녀에게 향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만, 그들 무리에 끼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헤르세인은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니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과 케시아 왕녀전하,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닌가요?”

“공녀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과 같이 설 수 있으려면 케시아 왕녀전하 정도는 돼야겠지요. 아아, 부러워라.”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담긴 그녀들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에게 들렸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루드비카와 케시아 왕녀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쳐다보았다. 아까전의 일은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두 사람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마다 부러운 시선을 하고 있는 공녀들과 치기어린 질투가 담긴 시선을 슬쩍 비치고 있는 또 다른 모습들. 그러나 그런 시선이 있음에도 두 사람은 무슨 얘기가 그렇게 즐거운지 미소까지 보이며 자기들만의 이야기에 빠진 것 같았다.

‘이게 정상인 거겠지. 아무것도 없는 왕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니까….’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루드비카의 모습에 완전한 낮선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케시아 왕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초면’이라는 제자신이 뱉어낸 단어. 그리고 그 기점으로 완전히 끊어낸 그와의 있었던 일들. 미련은 없었다. 다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을 왜 일까.

‘돌아가자,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더 이상 없어.’

케시아 왕녀로 인해 얼떨결에 끌려오긴 했으나, 이곳에 온 후로 거의 무시와 방치되다시피 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저들만의 이야기의 꽃이 피고 있을 때 환영받지 못한 외부인은 그저 빠져주면 되는 일이었다. 헤르세인은 완전히 등을 지고서 연회장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발 한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발자국 걸을수록 멀어져가는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웃음기가 가득한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유독 이명처럼 귓가에서 윙윙 울리며 떠나가질 않았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세발자국, 헤르세인은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그리고 때마침 정원의 중심인 가장 큰 분수대 앞을 지나려 할 때쯤, 그녀의 앞에 낮선 여인들이 막아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헤르세인 왕녀, 저는 소리에트 후작 가문의 적녀인 율리아 윌 소르네 소리에트라 합니다. 아, 물론 왕녀께선 절 초면으로 보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미 왕녀를 본적이 있답니다. 라인하르트 가문을 위한 환영식이 열린 그때 말이지요.”

“…….”

자신을 소리에트 공녀라 소개하며 대뜸 앞을 막아선 여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어떻게 반응하기 보단, 여인의 행동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았다. 대놓고 적의를 드러내며 자신을 하대하는 말투는 물론, 자신을 왕녀로서 대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오만함의 표정까지.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을까봐 사람이 많은 연회장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일은 비껴갈 수 없는 일인 듯싶었다. 그래도 벙어리마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단 적당히 상대하며 무시할 생각으로 헤르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저야말로 처음 뵙겠습니다, 소리에트 공녀.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 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리에트 공녀께서 제겐 무슨 볼일인지….”

그나마 다행중 하나라면 정원에 있는 젊은 귀족들은 모두 루드비카와 케시아 왕녀 쪽에 쏠려 있는 덕에 그녀의 앞으로 지나가는 다른 귀족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헤르세인의 물음에 부채를 펼치며 고고히 웃고 있던 소리에트 공녀는 부채를 싹 접으며 한걸음, 한걸음 헤르세인의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헤르세인을 향한 내리까는 시선을 하고서 비틀린 입술을 움직였다.

“볼일이야 아주 많지요. 비록 초면인 사이이긴 하나 왕녀께서 이 사교계에 한번 발을 들이셨으니 사교계가 얼마나 왕녀에게 가혹한 곳이란 것쯤은 누군가가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알려주고자 일부로 제게 오셨단 말로 들리는군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방심이라니… 그게 무─!”

첨벙!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분명 눈앞에 소리에트 공녀가 있었는데 헤르세인의 몸은 이미 누군가의 강한 밀침으로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중심을 잃어버렸다. 재빨리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헤르세인은 그대로 바로 옆에 있던 분수대의 물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기가 없던 몸과 드레스는 순식간에 물에 흡수되어 축축이 젖어버린 것은 물론, 틀어 올린 머리조차 물에 젖어 헝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물에 젖은 생쥐 꼴. 헤르세인이 완벽하게 물에 젖은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경쾌하게 보던 소리에트 공녀는 더욱 짙게 웃으며 부채를 촤르륵 펼쳤다.

“말했지 않습니까, 방심을 하면 안 된다고. 특히나 이런 거대한 사교모임이 있는 곳일수록. 아아,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마세요. 제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왕녀께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드릴 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부채를 살랑살랑 움직이던 소리에트 공녀는 그 순간, 부채를 싹 접고서 표정을 바꾸어 이번엔 헤르세인을 향한 완전한 적의를 드러내는 목소리로 경고를 하였다.

“주제를 알아야지. 왕녀? 하! 천한 출생인 주제에 왕녀라니?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가당키나 한 자리인 줄 아나본데, 천만에 말씀. 천한 출생은 죽을 때까지 천한 핏줄을 지울 수 없는 법. 네까짓 게 제 아무리 왕녀자리에 앉았다 한들, 고귀한 왕녀가 될 수 없는 법. 특히나 너 같은 천한 슬럼가 출신이 케시아 왕녀전하를 흉내 낸다 해도 그분의 발끝하나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하지. 그러니 오늘 일을 교훈삼아 명심하는 게 좋을 거다. 한번만 더 그 더러운 몸으로 사교계에 발을 들인 순간, 이번 일로 끝나지 않으리란 걸. 그럼 부디, 그 머리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지요. 헤르세인 왕녀.”

“…….”

처음부터 앉고 싶지 않은 자리였다. 그저 억지로 앉혀진 자리나 없는 왕녀의 자리.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 생모는 자신을 그저 치부라 여기는 냉혈인에 불과했고, 슬럼가에서 자라난 것과 사생아란 이유만으로 자신은 달갑지 않은 외부인이자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다. 하지만 자신을 여기까지 강제로 앉힌 생모가 너무도 밉고 증오스러워 모두가 경멸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수’하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참아내야 할 만큼 복수란 것이 가치가 있는 걸까….

“꺄아악!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헤르세인 왕녀께서 물에 빠졌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소리에트 공녀가 자조적인 비명소리를 지르며 곳곳에 외쳐댔다. 그리고 그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정원에 있던 모든 귀족들이 분수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물에 빠진 헤르세인의 몰골에 저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헤르세인 왕녀 꼴 좀 봐요.”

“대체물에 왜 빠진 거래요?”

“어머머, 저 왕녀 하나 때문에 왕실 물을 다 흐리네요.”

또 다시, 이명 같은 울림이 헤르세인의 귓가에 울렸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을 물에 빠트린 다음, 치욕스러운 굴욕을 주고자 사람들을 끌어 모은 소리에트 공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들었으니 그녀의 계획은 그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어쩜 좋아요… 바람에 실려 간 제 손수건이 하필 분수대 위로 빠지는 바람에 제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는데 하필 헤르세인 왕녀께서 기어코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어 이런 일이…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도와 달라 하지만 않았더라면 헤르세인 왕녀께서 저렇게 물에 빠지실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헤르세인 왕녀가 물에….”

“아무리 그래도 왕녀인데 하녀에게 명령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니… 역시 출신이 그런지 명령조차 익숙하지 않나 보네요.”

모두가 혀를 차며 되려 소리에트 공녀를 감싸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누가 직접 나서서, 헤르세인을 도와주려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물에 빠진 동물을 구경하는 것 마냥 헤르세인의 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비웃기 바빴다. 헤르세인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던 상관없이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수대 바깥으로 나왔다.

철퍽─

뚝─ 뚝─ 뚝─

드레스가 물을 많이 먹었는지 몸이 굉장히 무거워진 것은 물론이고 단지 물속에서 나왔을 뿐인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헤르세인에겐 바깥 공기가 시리고 아렸다. 헤르세인이 한발, 한발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저마다 키득키득 비웃었으며, 마치 닿아선 안 될 병균을 대하듯 그들은 그녀가 걸을 때마다 두발자국 씩 뒷걸음질을 쳤다.

또각, 또각. 유난히 울리는 것 같은 구두 굽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헤르세인이 다섯 걸음 정도 걸었을 쯤, 그녀의 시선 아래 두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다.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그곳엔 케시아 왕녀와 루드비카가 서 있었다.

“세상에, 헤르세인! 그 모습 어찌된 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몰골이!!”

유난히 호들갑어린 목소리로 케시아 왕녀가 헤르세인을 쳐다보자 요란스럽게 비명을 질렀던 때와는 다르게 아까부터 가만히 있던 소리에트 공녀가 케시아 왕녀의 옆으로 다가가 재빨리 상황 설명을 했다.

“송구합니다, 왕녀전하! 헤르세인 왕녀께서 저를 도와주시려 하다 분수대에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분수대에 미끄러지다니? 어찌 그런 일이… 헤르세인, 괜찮은 거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여전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케시아 왕녀를 지나 바로 옆에 서있던 루드비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까보단 표정에 웃음기가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헤르세인은 먼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손에 강하게 힘을 주며 헤르세인은 추위에 파래진 입술을 열었다.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생일 축하드립니다, 케시아 왕녀전하.”

최대한 예를 갖추고서 케시아 왕녀에게 인사를 올린 헤르세인은 이내 두 사람을 조용히 지나쳤다. 돌아가기 전, 연회장에 들려 왕비에게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몰골 그대로 연회장에 들어갔다간 모두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연회장으로 가는 선택을 포기했다. 자신의 궁전이 있는 레인 궁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궁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면 매번 마주치는 시녀와 하녀들이 저마다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헤르세인은 그 웃음소리를 무시하고서 간신히 자신의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끼이익─ 하고, 유난히 오늘따라 음산하게 들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닫히는 소리.

침실에 도착하자마자 헤르세인은 문에 기대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 몸을 끌어 다리를 감싸 안아 고개를 숙였지만 그럼에도 오한과 한기가 들 정도로 헤르세인은 몸을 떨었다. 분명, 옷을 입고 있음에도 따뜻한 침실에 있음에도 이토록 온 몸이 시린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슬럼가에서 살던 한겨울 때보다 헤르세인은 지금 이 순간이 미치도록 시리고 추위를 느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왕녀란 것도, 헤르세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다. 슬럼가보다 더욱 고독할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곳. 또한 자신을 받아들이긴 커녕 철저히 소외하며 고립시키는 이곳은 헤르세인에게 있어 숨이 막히는 지하 감옥과도 같았다. 헤르세인은 깊숙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멀리 떨어진 정면 앞에 있는 창가를 보았다. 서서히 해가지는지 그렇게 푸르던 하늘은 붉은빛에 물들어 노을이지고 있었다. 그 노을이 마치, 어둠속으로 스며들려는 자신의 마음과도 같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뺨 위로 빠르게 떨어지는 차가운 눈물 한 방울.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어 복수 따윈 무리였던 건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란 단단한 착각에 빠져 숨이 막히면서도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던가. 지금까지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발버둥 치던 처음 때 완전히 도망쳐야 했던 것이 정답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것이 왕비를 향한 복수가 되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헤르세인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뺨 위에 흐른 눈물자국을 훔쳤다. 그리고 뒤를 돌아 단단히 닫혀있는 침실 문을 보고서 그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약간의 힘조차 없이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헤르세인은 완전히 이 궁전을 나가기 위해 발을 디디려 했지만, 발을 앞으로 딛기 전에 문을 완전히 열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여긴 왜 있는 거야.”

“헤르세인 왕녀전하.”

왜 일까. 단지 그가 자신을 남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며 왕녀전하라 불렀을 뿐인데, 그것이 거북하고 생모다음으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였다.

“그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 애써 나를 왕녀로서 대해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런 동정어린 눈으로! 날 보지 마!!”

“제가 그런 눈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다 생각하나요?”

“그건─!”

헤르세인은 입을 뻥긋하다, 이내 아랫입술을 강하게 내리 깨물고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처럼 루드비카는 자신을 동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변함없이 자신을 그저 비천한 출생인 왕녀가 아닌, 이름 모를 시녀로서 그대로 봐주고 있었다. 차라리 여느 귀족들처럼 경멸어린 눈과 비틀린 표정으로 자신을 봤다면 그의 존재는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졌을지도 몰랐다.

그저 자신을 싫어하는 한 사람 중 하나라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왜, 동정어린 눈도 아닌 처연한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는 걸까. 헤르세인은 그것이 괜히 화가 나, 그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가길 요구했다.

“돌아가. 난 당신과 할 말 따위 없어.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라지란 말이야!!”

“…아가씨.”

“그 아가씨란 말도 집어치워! 그러니 돌아가! 제발 돌아가라─!”

헤르세인은 그를 밀쳐서라도 눈앞에서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시야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리치고 어린아이마냥 떼를 쓰듯 목 놓아 외쳤지만, 이미 그를 밀어내기도 전에 헤르세인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낮선 품. 사람의 품이 이토록 아릿하고 따뜻하나 싶을 정도로 그의 품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절로 떨어질 만큼 따뜻했다.

“놔! 이거 놓으라고…! 제발… 제발 놓아줘….”

“놓을 수가… 없어요. 이토록 위태로운데,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을 만큼 여리고 위태로운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를 놓을 수 있겠어요.”

“위태… 롭다고? 내가…?”

“네, 아가씨.”

“거짓말… 거짓말….”

“아가씨….”

위태롭다니. 제 아무리 슬럼가에서 몇 번이고 죽을 위기에 있을지언정 흔들린다거나 그런 나약해진 모습을 스스로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루드비카가 그런 말을 뱉어냈다. 자신은 위태롭다고. 여리고 위태로워 품에서 놓아줄 수 없다고. 왜 그 말이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고 마음을 흔들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까.

왜 이토록 그는 자신을 내버려두지 않는 걸까. 왜….

“죽기 살기로 살았던 슬럼가에 있을 때가 내겐 더 좋았어. 늘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았음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곳이 슬럼가야.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이곳에서 견뎌낼 자신이 없어. 슬럼가에서 살았던 때보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고, 넝마조각조차 입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 살고 있음에도 나는 이곳이 힘겨워… 내겐 너무 벅차고 내 정신이 감당하기가 버거워. 내 생모가 이곳에 버젓이 살고 있음에도! 내가 기댈 곳은 없어….”

“……,”

“그래서 떠나고 싶어. 복수를 하겠단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숨을 갉아먹는 이곳을 떠나, 차라리 죽기 살기로 살았던… 배고픔에 허덕이던 슬럼가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있어야할 곳은 처음부터 거기였어. 그러니, 날 놓아줘… 제발….”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히 말해본적이 있던가. 배고픔에 빵 한 조각이라도 달라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싹싹 빈 적은 있어도,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떠날 수 있도록 놓아달라고 한 적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부탁에도 오히려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품에 안은 힘을 더욱 주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못 놓아 준다고… 위태로운 아가씨의 모습을 떠나 아가씨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전 아가씨에게 반했는데, 아가씨를 제 눈과 마음에 이미 담아냈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바보같이 놓을 수 있겠어요?”

“…….”

“제가… 제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홀로 있는 당신을 위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홀로 식사를 하는 당신을 위해 같이 식사를 하고 홀로 심심해할 당신을 위해 제가 당신을 웃게 해줄 광대가 되어드리고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가씨. 전 당신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데? 어째서?”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이름뿐인 왕녀에 불과한 자신이었다. 그런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그는 이토록 자신의 곁에 함께 있으려는 걸까.

그러자 루드비카는 대답대신 한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헤르세인의 눈물로 얼룩진 뺨 위로 손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도자기 다루듯 움직이며 눈물에 젖은 뺨을 닦아주며 루드비카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그리며 대답했다.

“아가씨를 좋아하니까요. 이토록 내 눈과 마음을 쫓게 한 사람은 아가씨가 유일하니까.”

“…당신은 멍청한 거야? 아님 정말로… 바보야 인거야? 어째서 나를…… 왜…….”

“글쎄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아가씨 밖에 모르는 바보천치가 된 건지도 모르겠죠.”

이렇게까지 바보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 변할지 모를 연모한다는 감정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헤르세인은 그 대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가슴에 벅차고 미어질 만큼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상냥함이 한껏 얼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끼익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품에 안겨 욕실 안으로 들어섰다. 욕실에 들어서자 그녀를 안고 있던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욕조 안으로 내려준 후, 다정한 미소를 보이곤 헤르세인의 창백해진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역시, 얼굴이 얼음장이네요. 빨리 뜨거운 물로 씻고 나오지 않는다면 감기 걸리겠어요.”

“옷만… 갈아입어도 괜찮은데….”

헤르세인은 약간 불만인 얼굴로 그가 어루만지는 손길을 슬쩍 피하자, 루드비카는 군말 없이 손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지 나름 엄한 목소리로 감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했다.

“그럴 순 없지요. 물에 빠져 계속 차가운 상태로 몸이 말랐을 텐데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구는 편이 좋아요. 그보다 시중을 해줄 하녀들은….”

“…없어, 그런 거. 아라네아 왕비… 전하가 내 치장을 위해 하녀들을 보내지 않는 이상, 내 시중을 들 하녀나 시녀 같은 건 없어. 이름뿐인 왕녀에게 애초에 그런 하녀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또, 내 출신이 이러한데 누가 내 시중을 들고 싶겠어.”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넓기만 하고 어쩐지 싸늘하기만 한 욕실을 대충 훑으며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궁전에 비해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레인 궁전. 하지만 헤르세인에게 있어 이곳은 충분히 넓은 것은 물론, 오히려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궁전과도 같았다. 언제나 자신 혼자 밖에 있지 않는 넓기만 한 궁전. 가끔씩 궁전 관리를 하고자 들어오는 하녀나 시녀들을 빼면 거의 이곳은 폐쇄된 궁전과도 같았다.

그런, 아무도 거의 오지 않는 이런 궁전일 텐데 처음으로 누군가 이곳에 발을 딛게 되었다. 침실을 넘어 그것도 욕실 안까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얽힐 거라 생각지 못한 남자, 루드비카. 만약,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낮선 남자가 그것도 욕실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평범하기 보단 슬럼가에서 줄곧 사내들과 치고 박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보단 그가 자신의 공간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묘했다.

대충 싸늘하기만 한 욕실을 훑던 헤르세인은 어느새 루드비카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그는 생긋 웃고서 장난기 어린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럼, 제가 아가씨의 시중을 들까요?”

“……뭐?”

“제 시중은 싫나요?”

시중이라니. 그는 엄연히 콧대 높은 귀족가의 자제였고 시중을 받았으면 받았지 남에게 시중 따위를 할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의 시중을 들겠다니. 거기에다 그는 엄연히 사내가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어이없을 만큼 순수한 얼굴로 고개를 기울이며 자신을 보고 있는 루드비카를 향해 가자미눈을 하며 단칼에 거절했다.

“시중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말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나가줘. 씻을 테니까.”

“아쉽네요. 저는 아가씨의 허락만 떨어진다면 아가씨를 여왕님처럼 모시는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목욕 시중을 들어줬을 텐데. 아, 뭣하면 제가 드레스를 벗기는 것까지 해드리면….”

“나가.”

결국, 루드비카는 아쉬운 표정을 역력히 보이며 욕실에서 나가야 했다. 끼이익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어느새 욕실에는 헤르세인 혼자였다. 그저 루드비카 한 사람만 욕실에 있었을 뿐인데, 그가 나간 것만으로도 욕실은 더욱 휑하게 느껴졌다. 헤르세인은 괜히 느껴지는 오한의 느낌에 서둘러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고서 드레스를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씩 무겁게 내려가는 드레스의 무게와 속옷 드레스의 무게. 마치,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지듯 바닥위로 옷가지가 떨어져가면서 헤르세인은 서서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음을 느꼈다. 이제 코르셋을 벗기 위해 헤르세인은 최대한 손을 뒤로 움직여 끈을 풀려고 했지만, 이번엔 하녀들이 꽤나 꽉 묶어놨는지 몇 번을 시도해도 코르셋 끈을 풀 수가 없었다. 다른 드레스는 겨우겨우 벗었다 해도 오늘따라 유독 꽉 묶인 코르셋 끈으로 인해 십 여 분간의 사투 끝에 결국, 헤르세인은 입을 앙 다물고서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조금 열어 몇 번이나 망설이다 입을 떼야 했다.

“저, 저기….”

“아가씨? 벌써 목욕이 끝나신 건가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침실 실내에 있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 그게 아니라….”

“그럼 대체 무슨 일로….”

“코, 코르셋 끈이….”

“아아, 그렇군요. 이런,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헤르세인은 약간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서 그가 욕실로 들어오길 허락했다.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루드비카가 부드럽게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입안이 바싹 말라가고 있음을 느껴야 했다. 다행 중 다행이라면 헤르세인은 얇은 속옷 드레스와 그 위로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가 ‘사내’란 사실이었다.

어떻게 마음을 담은 이성을 눈앞에 두고 속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녀를 냉정히 볼 수 있을까. 거기다 그녀의 속옷 드레스 차림은 더욱 루드비카의 이성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했다. 어깨가 훤히 드러난 그녀의 살결은 물론, 아래로 내려갈수록 치마 쪽은 약간의 시스루인지 보일락 말락 비치는 그녀의 다리선이 루드비카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했다.

‘눈앞에 버젓이 아름다운 꽃이 있음에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니, 나는 지금 신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그저 보고만 있을 뿐인데 모든 욕망과 유혹이 루드비카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욕망에 충실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루드비카는 눈앞의 여인을 두 번 다시 보지 못 할 거란 느낌이 들어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 욕망을 억눌러야 했다.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어색히 입꼬리를 올리며 나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뒤로 돌아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으응.”

이상하게도 뻣뻣해진 몸을 겨우 움직여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향해 등을 보이고 돌아섰다. 단지 뒤를 돌았을 뿐인데,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얼굴에 열이 오를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 든단 말인가. 헤르세인은 그 이상한 느낌을 억누르고자 아랫입술에 피가 베일정도로 꽉 물며 루드비카가 어서 빨리 끈을 풀어주길 기다려야 했다.

스윽, 스으윽하고 울리는 끈이 풀어지는 소리. 단지 꽉 묶인 끈만 풀고 있을 뿐인데 묘하게 그 소리가 욕실에 크게 울려 퍼져 동시에 두 사람의 몸을 바짝 긴장시키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끈이 꽉 묶여서 인지, 끈이 풀리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지막 끈까지 말끔히 풀어내자 루드비카는 약간의 숨을 토해내며 끝마쳤음을 알렸다.

“자, 끝났습니다.”

“고, 고마워.”

“별말씀을.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헤르세인은 아직 코르셋을 풀지 않은 상태로 몸을 반쯤 돌려 루드비카를 향해 물었다. 물론, 고마운 것도 많았지만 그가 왜 기다린다는 건지 이해가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지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오른손을 자신 쪽으로 정중히 끌어당겨 그녀의 손등위로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시간은 충분히 많지만, 저는 아가씨에 대해 많이 알고 싶으니까요. 그러니 제게 들려주세요. 아가씨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

“제가 말했죠? 아가씨의 곁에 있겠다고. 저는 의외로 성미가 급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당장 해야 하는 성격이랍니다. 그러니 아가씨. 아가씨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응.”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루드비카는 진하게 웃고서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돈해주고는 조용히 욕실에서 나갔다. 어느새 다시 홀로 남게 된 욕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돌려 욕조에 꽉 찬 뜨거운 물을 보고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루드비카가 풀어준 코르셋을 완전히 벗고서 마지막 속옷 드레스까지 전부 벗은 뒤,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아직 연회가 끝나지 않은 저녁의 시간. 연회가 끝날 때까지 긴 시간이 남았지만, 정작 오늘 연회의 주인공인 케시아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고서 이내 분에 참지 못했는지 눈앞에 있는 찻잔을 던지고야 말았다.

쨍그랑―!

찻잔을 던졌음에도 그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한참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씩씩 거리던 케시아는 바로 옆에 있던 부채마저 집어 던지고서야 어느 정도 분을 삭 힐 수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왕녀전하….”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전속시녀인 루네즈는 벌써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정작 화를 내는 장본인은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어떻게 라인하르트 공자는… 어떻게 그분은! 도대체 어째서!!”

오늘이 어떤 날이었던가. 1년에 한번 뿐인 자신의 탄생일이자 오늘만큼 어머니 부럽지 않은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단 한 사람이 망치고 말았다. 그것도 피도 안 이어진 여동생이라 하는 헤르세인으로 인해. 루드비카와 헤르세인 두 사람을 복도에서 발견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가. 하지만 예상치 못한 헤르세인의 발언으로 인해 케시아는 잠시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서 루드비카에게 ‘초면’이라 언급하며 완전한 선을 긋던 헤르세인의 행동. 하지만 그 이전에 케시아는 이미 두 사람이 도서관에서부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을 깨는 오늘, 초면이란 발언. 그러나 두 사람이 복도에서 자신도 모를 이야기를 나눴던 것만으로도 케시아의 분노를 사기엔 충분했다.

케시아는 애써 그 사이를 모른 척하며 두 사람을 일불로 정원 쪽으로 유도를 했고, 대놓고 헤르세인을 소외시켜 모든 이들의 주목을 자신과 루드비카에게 가겠끔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케시아는 헤르세인을 흘끔 보며 루드비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월감에 차 있었다. 어디한번 소외감을 느껴보라고 너와 자신의 차이는 물론,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자들 사이에 천한 피가 이어진 너 따위는 함부로 낄 수 없다고. 케시아는 그 우월감을 느끼며 홀로 소외된 헤르세인의 모습을 신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케시아에겐 부족했다. 자신을 가장 잘 따르고 자신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소리에트 공녀를 이용해 케시아는 헤르세인을 물에 빠트렸고 그야말로 모두의 눈앞에서 헤르세인에게 굴욕을 선사했다.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었다. 만약, 헤르세인이 루드비카와 털끝만큼 근접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불쌍하디 불쌍한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름뿐인 왕녀로서 생각해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헤르세인은 자신도 모를 루드비카의 모습을 봤으며 자신의 것을 건들고 말았다.

이젠 이름뿐인 왕녀이기 이전에 헤르세인이란 존재는 케시아에게 있어 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 꼴을 만들고 헤르세인에게 굴욕을 주며 겉으로는 다정한 언니로서 헤르세인에게 더더욱 치욕을 주고자 했지만 마지막은 케시아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

"왕녀전하, 실례지만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워야할 것 같습니다."

"그,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인하르트 공자. 라인하르트 공자께서 이 자리를 비추지 않는다면 누가─!"

"정말로 송구합니다, 왕녀전하. 하지만 왕녀전하를 위한 선물은 가문에서 시종을 시켜 준비했으니 오늘 저의 가문의 이름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왕녀전하."

"자, 잠깐! 라인하르트 공자! 라인하르트 공자!!"

그가 없는 자리면 자신의 탄생일이 무슨 소용이던가. 그를 위해, 이 날만을 위해 어머니에게까지 부탁해 심열을 기울여 돈을 쏟은 드레스 수십 벌을 준비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자신은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정작 빛나지 않은 그가 없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빛을 뿜게 만든단 말인가?

케시아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그 ‘촉’이란 것이 케시아를 집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케시아는 자신의 시녀를 시켜 몰래 그의 동태를 파악하게 명령했고, 모두의 춤 신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잠시 쉰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궁전에서 명령을 내린 시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돌아온 시녀의 말은 케시아의 촉대로 흘러갔다.

“대체 헤르세인! 그 아이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은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갔단 말이야!! 대체 그 아이의 무엇에 이끌려!!”

“왕녀전하, 진정하십시오. 아직, 연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닥치거라! 그 말이 오히려 내 화를 돋우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루네즈!!”

아무래도 그녀를 진정시키려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결국 닥치라는 함구에 루네즈는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이대로 가만히 그 사람을 빼앗길 순 없다고!!”

핏발이 설 정도로 케시아는 눈을 부릅뜬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켜보고 어떡해서든 인내를 하며 그가 알아서 여인의 곁에 떨어지길 기다렸지만, 지금은 달랐다. 루드비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케시아는 깨달았다. 헤르세인에게 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순 없었다.

나름 빠르게 목욕을 마치고 나온 헤르세인 평소대로 입던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서 침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루드비카를 불렀다. 만약 하녀나 시녀가 이 궁전에 들어와 그의 모습을 봤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행이도 훤한 대낮을 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궁전이기에 그 점에 있어선 한시름 덜 수 있었다.

“들어와.”

들어오라는 작은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말끔해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기로 인해 젖어있는 긴 머리칼과 드레스를 입은 모습과는 다른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마치, 두 번째로 그녀와 왕성 바깥에서 만났던 때가 떠올라 루드비카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눈앞의 그녀는 ‘사내’라는 것에 경계심이 거의 없는 건지 너무도 덤덤히 들어오라는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경계가 없어서야… 나는 어떻게 인내를 한다 해도 만약 다른 사내가 다름 마음을 품고 그런다면 큰일일 텐데….’

그런 루드비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헤르세인은 어느새 창가 쪽에 앉아 눈을 느릿하게 깜빡이고는 앉을 것을 권유했다.

“아무데나 앉아도 돼. 마땅히 편히 앉을 만한 곳도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아가씨 따라 옆에 앉도록 하죠.”

“…….”

아무데나 앉으라고는 했지만 설마 바로 옆에 앉을 줄이야.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슬쩍 엉덩이를 옆으로 빼고서 그와의 사이를 조금 더 벌렸다. 그 모습에 루드비카는 피식 웃을 뿐, 살짝 고개를 틀어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바깥의 풍경을 살폈다. 어느새 해가 떨어지고 하늘에는 깊은 어둠이 찾아왔는지 먹물로 물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속에 몸을 숨긴 숲 너머, 저 멀리 보이는 환한 불빛들. 아마도 저 불빛들은 왕성 바깥의 광장과 도시임이 틀림없었다. 그 처음 보는 이색적인 풍경이 마음에 들어 루드비카는 미소는 어느새 더욱 짙어졌다.

“밤이라서 그런지 이곳에서 보는 바깥의 풍경이 아름답네요. 처음입니다, 왕성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히나 아가씨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네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만약 평범한 여인이 들었더라면 마음을 뒤흔들 고백처럼 들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이유를 모르겠단 표정을 하고서 루드비카를 향해 물었다.

“여전히 이유를 모르겠어. 당신 같은 남자가 왜 나 같은 걸 좋아하는지… 나 같은 거 보다 당신 눈에 차고도 넘칠 아름다운 공녀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나인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을 하며 헤르세인은 빤히 루드비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친 루드비카의 호박 빛 눈동자는 온전히 그녀의 모습을 전부 담아내고 있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완전한 모습.

설마 이렇게까지 깊이 빠지리라곤 루드비카 역시 생각지 못했다. 그녀와 만날수록,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루드비카의 눈은 그녀를 쫓았고 이젠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머릿속이 저절로 그 모습을 그릴 만큼 루드비카에게 있어 헤르세인의 존재는 너무도 거대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지만, 오늘 헤르세인의 진짜 모습을 보고서 루드비카는 생각을 고쳐야 했다. 그녀는 루드비카조차 생각지 못한 상당한 상처를 안고 있으며 잘못 건드렸다간 그 상처가 곪아터져 영영 그의 시선조차 닿지 않는 곳에 떠나갈지도 몰랐다. 한 없이 여리고 여린, 상처 입은 아기 새를 조심히 다루듯 그 아기 새가 온전히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날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욕심이 앞서던가. 넘치고 넘칠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는 그녀가 몇 번을 되묻든 대답해주고 싶었다.

“아가씨이기에 제 몸과 마음이 모든 감정이 아가씨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당신 말이 어려워서인지 그래도 난 모르겠어. 그 말의 의미를.”

만약,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눈으로 그를 보고 있을까. 또 어떻게 자신이 변해져 있을까. 아직까진 헤르세인에게 있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렀다. 좋아한다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루드비카처럼 이성으로서 그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으로서 행동하기 이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아무도 있지 않는 자신의 곁에 있어준다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일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심이 되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저 곁에 있어준다는 그의 말 뿐이었는데 이토록 안도감이 들고 너무도 무겁던 어깨를 억누르던 돌덩이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기분이란….

헤르세인은 괜스레 자신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꼭 붙잡고서 눈을 내리깔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부모가 누군지 조차 모른 채 슬럼가에 버려져 있었어. 자칫하면 그대로 갓난아기인 채 죽었을지도 몰랐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한 창부에게 발견되어 그때부터 나는 창부의 손에 길러지게 됐지. 나는 나를 키워준 창부의 이름조차 몰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죽은 그 순간까지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이름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 아무튼 창부의 손에서 자랄 때가지 배고픔에 늘 허덕이는 것을 빼면 아무런 문제는 없었어. 하지만 내가 말을 트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사고력을 가지게 됐을 쯤, 창부는 내게 학대를 일삼았지.”

“학대를… 말입니까?”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이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에 놀랐는지 흔들리는 커진 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놀란 루드비카와는 다르게 이미 오래전 과거이기 때문인지 헤르세인은 마치 옛날이야기처럼 덤덤하게 이야기를 나아갔다.

“학대를 시작하기 전까진 창부에게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 내 어림짐작으론 창부와 그 남자사이에 무언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남자가 갑작스럽게 떠나고 나서 창부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약 같은 거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지. 특히나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될 때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했어. 안 그러면 더 심하게 맞아야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계속 때릴 때마다 폭언을 쏟을 때마다 힘이 들었는데 계속 맞고 살다보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 그래도 맞을 땐 아픈 건 아팠지만 정신적인 면에선 그냥 어서 그녀가 빨리 나를 때리고 지쳐 잠들어줬으면 싶었으니까.”

“아가씨…….”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유독 창부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었어. 저녁 내내 일어나지 않아 처음으로 안도 했어. 아, 오늘만큼은 창부의 손에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말이지. 그런데 깊은 밤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창부의 모습에 이상해서 곁에 가보니 창부는 숨을 쉬지 않았어. 바로 전날만 해도 그렇게 죽도록 날 때리던 창부가 갑자기 눈앞에서 숨도 쉬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됐구나 생각했지. 그 해방이란 것이 너무도 찰나의 순간이라 만끽조차 못했으니까.”

헤르세인은 창부가 죽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약과 술에 절어 피폐한 몰골로 하루아침 사이 시체가 되어버린 창부의 모습. 그녀의 학대란 고통에서 벗어난 건 좋았지만, 그 해방은 너무도 짧았었다. 슬럼가는 대체로 사람 살 곳이 아닌지라 배고픔에 굶어죽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노려 아무리 낡아빠진 판자나무 집이 있다 해도 그 집의 주인이 죽는 그 순간,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한 도둑들도 존재했다.

헤르세인 역시 창부가 죽은 뒤로, 도둑들이 들이닥쳐 그 집을 빼앗긴 채로 아무것도 없는 거리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창부의 집은 헤르세인의 집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녀가 지금까지 자란 곳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맨손으로 쫓겨나 그때부터 거리 생활을 시작한 헤르세인은 그야말로 거지나 다름없었다. 추운 날이면 찢어진 넝마조각을 어떡해서든 몸에 걸쳐서라도 추위를 이겨야 했으며, 거리에 찌푸려지거나 혹은 흙에 묻어 털어먹을 수조차 없는 빵조각이라도 보인다면 헤르세인은 무조건 그것을 주워 먹어서라도 살아야만 했다.

어쩌면 그때가 가장 치열하고도 가장 힘들게 버텨내던 시절이 아닐까 싶었다. 비록 어린 몸에 거리의 거지가 되고 말았지만 어린 그녀의 눈에 보인 모든 이들은 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거리 생활을 하며 살기를 십 수 년. 헤르세인은 더 이상 그 과거로 인한 울적한 마음이고 싶지 않아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기억을 이어 지금의 일까지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했다.

“어쨌든, 거의 거지 생활이나 다름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야 했어. 그리고 살기 위해 나는 독해져야 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이기적여야만 했지. 그곳은… 슬럼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지 했어. 도둑질 하는 법이나, 그나마 사람취급 해주던 불법상인들 밑에서 일을 해 얼마 되지도 않은 수당을 받고 하거나. 그때는 그렇게 독하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내 모습을 얼굴조차 모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들이 버린 딸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당신들은 나를 잊고 평범히 살아가는 동안 나는 독하게 살아남아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렇게 살고 있을 즈음, 어느 날 내 앞으로 그들이 찾아왔지.”

“혹시 그들이란 게….”

“응, 이곳 왕성의 병사들. 처음에는 그들이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오히려 신종 사기 치는 노예상단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의심을 품고 막상 그들을 따라 도착하니 이곳이었고, 내 앞에 그 사람이 있었지. 단 한 번도 나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날 그저 치부라 생각하는 사람, 내 생모라는 사람.”

“그래도 기쁘지 않았나요? 왕비전하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냐고? 헤르세인은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고 떠올렸다. 그때 당시는 기쁨보단 떨림, 불안감,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었다. 자신과는 다르게 손 하나 물 한 방울 묻힐 생각도 없이 고귀한 모습으로 그것도 매 마른 얼음 같은 눈동자로 저를 모던 모습. 그 눈빛을 보고서 헤르세인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든 오직 제 자신의 존재로 인한 앞날의 생각과 자신의 존재를 그저 치부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욱 잔인하게 뱉어지는 매정한 왕비의 목소리. 두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파르르 떨리는 그 두 손을 꾹 잡고서 헤르세인은 고개를 틀어 루드비카의 호박 빛 눈동자와 마주했다. 그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동자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되레 그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있어, 어머니란 존재는 어떤 거야? 당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어떻고? 내게 기쁘지 않았냐고 물었지? 난 그 감정을 몰라. 왜냐면… 나는 바로 눈앞에서 생모에게 조차 사생아란 치부에 불과하단 말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지우고 싶은 흔적인거야.”

“…….”

루드비카는 입술을 떼려다 결국 고요히 다물어야 했다. 그녀와는 다르게 루드비카는 가정사가 조금 복잡할 뿐,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됐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그에게 있어 하늘과 같으며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어떻게 그녀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루드비카의 침묵에 어렴풋이 눈치를 챘는지 헤르세인은 그의 대답을 재촉하지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헤르세인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있지. 헤르세인… 이란 이름, 나는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그런데 왕후폐하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국왕폐하도 그 사람도 지은 게 아닌, 그저 누군가에게 맡기듯이 그냥 지어낸 이름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도 모를 내 심연의 깊은 곳에서 작은 기대를 하고 있긴 했었나봐. 결국, 아무런 뜻도 그저 귀찮듯이 지어진 이름에 불과했지만 말이야.”

“헤르세인… 이란 이름이 싫은가요?”

루드비카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일말 고민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싫어. 처음부터 내게 이름이 없던 것도 있지만 헤르세인이란 이름은 내가 왕녀로서 있기 위한 이름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마치 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싫어….”

그런 이유여서 일까. 루드비카는 문득 아까전의 일이 떠올랐다. 자신을 ‘헤르세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던 그녀의 모습. 물론 가능하다면 루드비카는 ‘아가씨’가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그녀는 잘 모르겠지만, 루드비카는 그녀의 이름이 좋았다. 부드럽게 입안으로 퍼지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울림. 이보다도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루드비카는 때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녀를 향해 제안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애칭으로 부르는 건? 평범히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싫다고 하시니, 애칭이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애칭?”

루드비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을 하듯 검지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쳤다.

“네, 애칭이요. 대부분 애칭을 자신의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죠. 애칭으로 부르면 뭐랄까 조금 더 친밀하게 불리는 느낌도 있고, 부르기가 더 편한 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애칭은 또 다른 이름과도 같다 해야 할까요? 저도 한때는 제 어머니에게 애칭으로 불렸답니다. ‘루카’라고 말이죠.”

“루… 카?”

조심스럽게 그의 애칭을 따라 부른 그녀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애칭으로 불린다는 것이 이토록 가슴 떨리는 느낌이었나? 싶을 정도로 루드비카는 다시 한 번, 그녀의 목소리로 자신의 애칭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해도 과연 그녀가 순순히 불러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오히려 싫다고 대답을 듣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랐다. 그 아쉬운 마음을 내리 숨기며 루드비카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가장 듣기 좋으면서도 오직 자신만이 부르고 싶은 그녀의 애칭을 루드비카가 조용히 불렀다.

“헤세… 어떤가요? 헤르세인 보단 짧아서 부르기도 쉬워,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애칭이지 않나요?”

“…헤세? 그게 내 애칭?”

헤르세인, 헤세. 헤르세인, 헤세. 분명 똑같은 이름이고 불리는 방법만 다를 뿐인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막상 헤세라고 불릴 생각을 하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물론, 그의 말대로 헤세란 것은 애칭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 누가 애칭으로 부른단 말인가. 애칭에 관해선 잘 모르지만 헤르세인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는 애칭은 그의 말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애칭으로 부르는 이는 잘 없었다. 헤르세인은 이내 고개를 저어 루드비카를 보며 애칭은 결국 접어두고자 했다.

“생각해보니 애칭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불리는 거잖아. 애칭을 지어줘서 고맙지만 아마 애칭으로 불릴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싫어도 헤르세인이라 불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접고 시선이 돌아가려 할 때, 겹쳐 있던 헤르세인의 두 손위로 크고 부드러운 따뜻한 손이 그녀를 잡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손길에 헤르세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다시 틀어 루드비카를 쳐다보자, 루드비카의 표정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헤세… 라고. 당신의 애칭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이제 ‘아가씨’가아닌 한 사람인 ‘헤세’로서 부르고 싶어요.”

“아가씨가 아닌 한 사람…?”

손등위로 느껴지는 그의 온기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살짝 힘을 줬을 뿐인데 그 손마저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작은 힘이 헤르세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대답을 들려주기 전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그 눈동자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말하고 있어,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두 손에 힘을 뺐다. 왠지 그 라면, 루드비카 라면 ‘헤세’라고 불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불러줘, 왕녀 헤르세인이 아닌 당신의 말처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헤세’로….”

“네, 헤세.”

헤르세인의 생활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다만 그날의 이후로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었다. 늘 혼자 먹던 식사는 어느새 루드비카가 함께했고 헤르세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 루드비카가 함께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개를 틀면 반드시 그곳엔 그가 있었고 헤르세인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란 것이 기쁘면서도 어색했다.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당신… 이곳을 너무 드나드는 거 아니야?”

헤르세인은 하녀가 가져다 놓은 식사가 담긴 쟁반을 가지고서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리고 뒤를 돌자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왔다. 처음엔 루드비카에게 비밀통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궁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결국, 그에게 비밀통로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비밀통로를 알려준 덕분인지 루드비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헤르세인의 앞에 나타났다.

“방금 당신의 목소리… 만약 하녀나 시녀가 들었으면 어쩌려고? 내 귀가 밝아서 노크소리가 들리기 전에 조용하라고 했길 망정이지….”

그가 이곳을 온 시간은 지극히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만 타이밍이 좋게도 그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점심 식사를 가져왔음을 알리는 하녀의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하마터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다행이도 하녀는 어떤 소리도 못 들었는지 식사가 담긴 쟁반만 바닥에 놓고는 조용히 떠났지만, 그래도 불안한감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찌푸린 얼굴에도 루드비카는 여유롭게 웃으며 오히려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즐기는 듯싶었다.

“저는 하녀든 시녀이든 들켜도 상관이 없는걸요? 그리고 저는 한번 뱉은 말은 기필코 하고 마는 성격이란 건 아실 텐데요? 헤세의 곁에 쭉 있겠다고.”

“…….”

이제는 적응이 될 법도 한데, 그가 부르는 애칭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그 낮선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헤세. 그가 지어준 애칭이자 그 만이 유일하게 불러주는 자신의 또 다른 이름. 다행이도 그가 헤세라고 자꾸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묘하게 나른하면서도 유혹하듯이 부르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어쩐지 자신의 애칭이, 애칭으로 느껴지지 않는 기분이었다. 그 묘한 찝찝함이 남아있지만 이미 루드비카 쪽은 입에 달라붙었는지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모습에 헤르세인은 결국 들고 있는 쟁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쟁반을 가지고 낡은 탁상에 내려놓은 헤르세인은 의자를 끌고 앉아 늦은 점심식사를 시작하려했다. 냅킨을 두를 것도 없이 평상시처럼 보온을 위한 은색의 뚜껑을 열어보니, 퍽퍽한 빵 하나와 유독 오늘따라 묽어 보이는 스튜가 보였다. 은색의 스푼을 들고서 이제 막 한 숟가락 떠먹으려던 찰나, 자신의 얼굴을 찌르는 듯한 집요한 시선으로 인해 헤르세인은 식사 시작도 전에 잠시 멈춰야 했다.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식사를 못하잖아.”

“부담스러운가요?”

“당연한 소리를.”

그것도 집요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잘 먹던 음식도 체하기 마련이었다. 헤르세인은 다시 스푼을 들어 스튜를 떠먹으려 하자, 이번엔 무슨 일인지 루드비카가 식사를 말렸다.

“그걸 로는 배가 차지 않을 것 같은데 아가씨와 저, 둘이 왕성 바깥으로 나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요?”

“…맛있는 거?”

뜬금없는 그의 제안에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스푼을 다시 내려놓고서 루드비카를 빤히 보았다. 맛있는 거라니.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보던 그가 맛있는 걸 먹으러 성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 갑작스러우면서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영문을 모르겠다는 헤르세인의 표정을 읽었는지 루드비카는 어느덧 창가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김이 나고 있는 스튜 그릇위로 다시금 은색 뚜껑을 덮어버리며 싱긋 웃었다.

“네, 맛있는 거요. 매번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질리니, 제가 맛있는 걸 먹게 해드리죠. 아! 물론 거절은 없습니다.”

“맛있는 거라니… 그 보다 잠─!”

헤르세인은 어느새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루드비카의 부드러운 힘으로 인해 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루드비카의 이끌림에 따라 헤르세인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 비밀통로가 숨겨져 있는 서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익숙한 손짓으로 비밀통로 문이 숨겨진 장치버튼을 찾아 문을 연 루드비카는 망설임 없이 헤르세인을 이끌고 앞장 서 걷기 시작했다.

십 여분 정도 비밀통로를 지나 어느덧 통로를 벗어나 도착하게 된, 낡은 비밀의 집. 헤르세인은 두 번째 이자 오랜만에 보는 낡은 집안의 광경에 작은 생소함을 느꼈다. 처음 이 집을 발견했을 때만해도 먼지에 뒤덮인 것은 물론, 집이라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방이 거미줄에다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손을 대기라도 했는지 약간의 먼지가 남은 것을 빼면 집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기 이전으로.

“혹시, 당신이 이 집을 정리한 거야?”

그에게 손이 붙잡힌 채로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호박 빛 눈동자와 마주했다. 보석과도 같은 그 아름다운 눈동자가 이내 눈웃음을 치며 루드비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가 알려준 비밀장소인데 깨끗하게 써야죠. 혹시 제가 괜한 짓을 한건가요?”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짓이라기 보단, 고작 비밀장소이자 낡은 집에 불과할 텐데 굳이 이곳을 깨끗이 정리한 그의 행동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고개 짓에 루드비카는 미소를 짓다가 잠시 헤르세인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어디론가 향했다. 적어도 일곱 걸음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향한 루드비카는 무언가를 손에 챙기더니 금방 헤르세인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모습을 가리게 하는 감색 로브를 씌워 주었다.

“이건….”

“혹시, 아가씨가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둔 겁니다. 예전에 아가씨가 썼던 그 낡은 로브는 너무 낡아서 제가 그 대신, 좋은걸 준비했죠. 어떤가요? 저 잘했죠?”

마치 어린아이가 칭찬을 바라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에게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고맙다고 하기엔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잔뜩 기대감 어린 눈으로 칭찬을 받고자 하는 폼을 보니 이상하게도 반대로 행동하고 싶었다. 헤르세인은 그 마음을 모른 척하며 오히려 그도 로브를 써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건넸다.

“당신은 로브 같은 거 안 써도 돼?”

그녀의 역 질문에 루드비카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 같아선 그녀에게 로브를 씌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곳은 왕성의 바깥. 특히나 그녀를 데리고 지금부터 가야할 곳은 고위 귀족들이나 이름 있는 상인들이 들락거리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런 곳에 대놓고 헤르세인을 보였다간 귀족들 눈에 발각되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십상이었다. 물론, 로브를 씌운다 해서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한 번 쯤은 그녀에게 데려가 주고 싶은 곳이었으며 매일같이 묽은 스튜와 퍽퍽한 빵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기름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고 싶었다. 더불어 그 레스토랑은 고위 귀족의 이름을 대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조차 힘든 곳이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로브를 쓰거나 변장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루드비카는 이런 생각을 그녀에게 전부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 괜한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로브를 쓰나 안 쓰나 제 외모가 가려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

그동안 루드비카를 어느 정도 알았다 생각했지만, 그의 이런 점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로브로 가려진 그림자 속에 미간을 찌푸리곤 어서 빨리 그가 앞장서길 권유했다.

“어서 가기나 해.”

루드비카를 따라, 헤르세인이 도착한 곳은 광장을 지나 외곽 구역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파랑새의 정원"이라 불리는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의 입구에 들어섰을 뿐인데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들이 가장 눈에 먼저 보였고, 왜 레스토랑의 이름이 파랑새의 정원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금색의 장식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새장의 안에는 어린아이의 팔만한 푸른빛의 새가 한 쌍을 이루어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아름다운 음색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손님들보다 그 푸른 새의 노랫소리에 이끌리는지 그들은 새소리의 음색을 감상하며 정원의 풍경과 아름다운 새소리에 감회되고 있었다.

“어떤가요? 아가씨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루드비카는 평온한 얼굴로 정원을 쭉 훑다가 헤르세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결정한 이곳, 파랑새의 정원. 루드비카는 부디 헤르세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싶었다.

“레스토랑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 하지만….”

헤르세인은 말을 멈추고서 루드비카를 향해 있던 시선을 틀어 새장 속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푸른 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찌 보면 새장 안에 있는 푸른 새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비틀어지게 본다면, 푸른 새는 그저 새장 안에 갇힌 가여운 푸른 새나 다름없었다. 어떤 경유로 이곳에 들어와 새장 안에 갇혀 저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새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 받고 그야말로 신기한 볼거리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헤르세인은 자신의 모습이 얼핏 겹쳐 보이고 말았다.

“내가, 저 새가 불쌍하게 보인다면 이상한건가?”

“아….”

루드비카는 뒤늦게 깨달았다. 오직 좋은 곳을 데려다주고 싶은 생각에 앞서있었을 뿐이지, 설마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헤르세인은 푸른 새와 제 자신을 겹쳐 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도록 새장 속에 갇힌 푸른 새,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지나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 의미는 다르지만, 그녀가 겪는 현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왕성에 홀로 갇혀 있는 것은 물론, 그녀의 출신으로 인한 이질적인 시선들.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갖게 해주지 않았을 텐데. 그저 마음만이 앞선 것이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저 새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혼자였다면 정말 불쌍했을지도 몰라.”

헤르세인은 그렇게 말하곤 오히려 무덤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루드비카의 마음을 옥죄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녀의 손을 꼬옥 잡고서 대답했다.

“아가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아가씨의 곁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헤세.”

부드럽게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힘이 느껴졌다. 헤르세인은 다시 시선을 돌려 언제까지고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번 시선을 돌리는 쪽은 언제나 헤르세인이었지만, 루드비카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먼저 시선을 돌린 적이 없었다. 늘 그녀를 쫓고 있다는, 그리고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집요한 시선만이 있을 뿐. 또한 다정하리만큼 그러면서도 저를 유혹하기라도 하는 애칭을 부르는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움찔거리게 만들었다. 그 움찔거림이 그가 잡고 있는 손에서 조차 느껴졌는지 루드비카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그녀의 애칭을 또다시 불렀다.

“…헤세?”

“아, 아니야. 아무것도.”

헤르세인은 괜스레 그가 잡고 있던 손을 빼내었다. 갑작스럽게 손을 빼버린 그녀의 행동에 루드비카는 잠깐 놀랐지만 이내 원래대로 돌아와 이번엔 절대로 빼낼 수 없도록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깍지를 꼈다. 갑작스러운 깍지에 헤르세인은 당황했지만 루드비카에게 바로 따질 수도 없이 언제 종업원이 왔는지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의 앞에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 파랑새의 정원,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례지만 예약을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예약제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인지 예약을 묻는 종업원의 물음에 루드비카는 어색한 미소를 하고서 고개를 저었다.

“아, 죄송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금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간다니? 기껏 여기까지 그가 끌고 온 레스토랑이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을 하고서 이곳을 나가려는 루드비카를 향해 물었다.

“나간다니? 설마, 다른 곳으로 가려고?”

“네,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선 나머지 아가씨에게 배려를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배려라니 무슨… 아, 혹시 그 말을 신경 쓴 건….”

잔뜩 기대감 어리게 해놓고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미안한 얼굴을 하며 이 레스토랑에서 나가고자 했다. 고작 자신이 푸른 새 한 쌍과 그 모습을 겹쳐봤다는 이유로. 물론 얼핏 겹쳐본 건 사실이지만,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한 마디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헤르세인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뿐이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 내게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언제 이런 곳을 와보겠어. 그러니, 난 이곳에서 먹겠어. 당신이 날 데리고 와준 이 곳에서.”

“…아가씨.”

비록 로브에 가려져 그녀의 표정은 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려진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확고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 루드비카는 알 수 있었다. 결국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말을 따라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종업원을 향해 자신을 이름을 댔다.

“자꾸 변경해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죠. 예약된 이름은 루드비카 라인하르트. 가장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장소로 부탁드리죠.”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실내와는 다르게 헤르세인과 루드비카가 있는 곳은 조용하면서도 작은 정원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별도의 장소였다. 상위 고위 귀족들만이 쓴다는 조용한 예약실인지 덕분에 헤르세인은 타인의 시선에 부담가질 필요는 없었다. 하얀 천이 감싼 원형의 테이블 위로 정원만큼이나 아름답게 꾸며진 음식들이 어느새 나열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접시가 놓아지는 것은 물론, 눈으로 만족할 사이도 없이 어느 것 부터 먹어야할지 헤르세인은 큰 고민이었다.

“일단, 아가씨를 위해서 이것저것 주문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서 드셔보세요.”

“으, 응.”

헤르세인은 일단 눈앞에 바로보이는 스프그릇을 앞으로 당겨 스푼을 들고서 한입 떠먹어 보았다. 한입에 스프를 떠먹었을 뿐인데 혀에서 느껴지는 담백한 맛과 살짝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계속 맛을 느끼고 싶음에도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는지 스프는 사라지고 없었다. 헤르세인은 다시 한 번 스프를 떠먹으며 맛을 음미하려 하자,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루드비카는 뿌듯한 미소를 그렸다.

마음만 앞선 나머지, 잠깐 그녀에게 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했지만 다행이도 음식은 입맛에 맞는지 어느새 열심히 먹기 시작한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안심이 되었다. 혹시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루드비카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쩐지 배부른 느낌이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 빼고 말이다.

“로브는 벗고 편히 드셔도 되요.”

“로브? 아, 그러고 보니….”

헤르세인은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던 로브의 존재를 뒤늦게 눈치 채고서 조심스럽게 로브를 벗었다. 단지 로브를 벗었을 뿐인데 정원의 햇볕이 강했던 건지 살짝 눈을 찌르는 밝은 빛에 헤르세인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떠야 했다. 그러나 금방 빛에 적응된 눈의 시력이 돌아와 헤르세인은 온전히 정원의 모습과 테이블에 나열된 음식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왕성에서조차 이런 식사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녀였다. 아마, 제대로 먹어본 기억은 루드비카와 두 번째로 만났던 그때가 전부였다. 처음맛보는 기름진 맛, 그리고 왕성에서 매일같이 먹던 묽은 스튜와는 전혀 다른 미각을 자극하는 맛. 그 맛을 한동안 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매일같이 먹는 묽은 스튜와 퍽퍽한 빵이 초라할 정도로 입에 대기 싫을 정도로 헤르세인은 그때 먹었던 맛을 그리워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다시 묽은 스튜와 퍽퍽한 빵에 적응되다 보니, 언제 그 맛을 그리워했는지 잊을 정도로 허전한 식사에 헤르세인의 입맛은 묽은 스튜에 다시 적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때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의 음식은 뛰어나게 맛있었고 이젠 먹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로 눈앞의 음식들은 하나의 예술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손도 대기 아까울 정도였지만 사람은 배가고프면 그 아까움도 결국 배고픔에 지기마련이었다. 지금도 눈앞의 음식을 먹기가 아쉬운 느낌이지만, 손은 매정하게도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뱃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드비카는 픽 웃고는 혹시라도 그녀가 체하지 않기 위해 유리잔에 담겨있던 물을 건넸다.

“천천히 먹으세요. 그러다 체할 겁니다.”

“…응.”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먹는 속도를 늦추었다. 제일먼저 담백하던 스프를 깨끗이 비워내고, 그다음은 샐러드, 또 그다음은 닭고기 요리 등등 어느새 헤르세인은 다양한 요리가 담긴 그릇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있었다.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건?”

“향을 잠깐 맡아봤는데 이국 향신료로 만들어진 스테이크더군요. 한번 먹어보세요.”

원형 테이블은 상당히 컸지만, 그와 마주보고 앉은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어느새 그녀의 앞으로 쭉 내밀어진 먹기 좋은 크기로 썰린 스테이크 모습이 보였다. 헤르세인은 그가 정성스럽게 썰어준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를 받아 조심스럽게 포크로 찍어 한 조각, 입에 넣어보았다.

그의 말처럼 이국의 향신료로 만들어진 스테이크인지 향이 강하면서도 후각과 미각에 강한 자극을 주는 소스의 맛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 맛이 너무 강해 거부감이 들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게 느껴지는 맛에 그녀의 혀는 어느새 적응이 되었다. 그리고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루드비카에게 평했다.

“맛있어. 향이 강해서 조금 적응이 어렵지만 그것만 빼면 맛있어.”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조각이 난 고깃덩이에 포크를 야금야금 찍어 잘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루드비카의 입꼬리는 더욱 짙게 올라갔다. 그러다 마지막 남은 고깃덩이에 포크를 찍어 마지막 한입을 먹으려 했던 헤르세인은 먹던 행동을 멈추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잘 먹던 행동을 멈춘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의아한 얼굴로 봤지만 헤르세인은 그런 그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다.

“당신은 안 먹어?”

이제 와서 생각한 거지만 자신이 이것저것 먹고 있을 동안, 루드비카는 어쩌다 한번 과일주스가 담긴 음료만 홀짝일 뿐, 음식에는 일절 손을 데지 않았다. 혹시 어딘가 불편해 먹지 않는 건가 싶어 그의 얼굴을 봤지만 보기엔 너무도 멀쩡한 얼굴이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자신을 보고 있어, 중간 중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루드비카는 그녀의 생각을 알아챘는지 고개를 저으며 턱을 괴고는 오히려 나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아가씨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걸요?”

“…….”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 어쩜, 저런 말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는 대단한 철면피 인 것 같았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진짜처럼 들려 아주 가끔,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마저 포크를 들어 마지막 남은 고깃덩이를 입안에 넣고서 우물우물 씹어 삼켰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루드비카의 미소는 이미 만족한 미소나 다름없었다.

식사가 전부 끝나고 마지막 디저트 타임까지 헤르세인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본 식사이기도 했지만, 막상 디저트까지 얻어먹으니 이렇게 그냥 얻어먹어도 되는지 눈치가 보일 정도였다.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더 시켜도 되냐는 물음에 헤르세인은 이러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모든 식사를 마쳤다.

다시 로브를 뒤집어쓰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니 루드비카는 이미 종업원에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종업원이 무언가를 적더니 밑줄까지 치며 루드비카에게 오늘 식사한 가격을 알려주었다.

“총 15.5골드입니다. 손님.”

15.5골드. 헤르세인의 머리는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왕성에 들어와 글을 익히는 것만이 아닌, 나름 계산법도 익힌 그녀는 15.5 골드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었다. 골드란 단어만 빼면 적어도 싼값에 보일 가격이나 다름없었지만 골드가 붙는 순간, 그 가격은 어마무시 할 정도로 비싼 가격이나 다름없었다. 15.5 골드. 그야말로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값이었다. 그러나 이미 가격에 대해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별다른 표정 없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서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하르트 가에 청구를 부탁드리죠.”

“저희 파랑새의 정원 레스토랑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님.”

“자, 그럼 계산도 마쳤으니, 가볼까요? 아가씨.”

계산이라 할 것도 없이 라인하르트 가문으로 청구할 이름만 간단히 적어놓은 루드비카는 생긋 웃으며 헤르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내밀어진 손에 헤르세인은 잠시 멍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결국, 먼저 덥석 잡은 루드비카의 손으로 인해 헤르세인은 금방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먼저 입을 떼기도 전에 루드비카의 이끌림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던 헤르세인은 어느새 레스토랑 바깥으로 나와 그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다그닥 거리는 말발굽소리와 바퀴가 움직이는 마차의 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단순히 평범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음들이 헤르세인은 싫지 않았다. 비록 로브에 눈이 반쯤 가려져 도시 전체의 풍경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루드비카의 커다란 등 밖에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 보았음에도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녀의 눈에 비쳐졌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굽이치는 긴 붉은 머리칼. 그리고 양쪽 귀에서 작게 흔들리는 노란 보석이 박힌 귀걸이.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의 뒷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채, 이끌려가고 있을 즈음,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에게 시선을 빼앗긴 걸 눈치 채고 말았다. 밥을 먹고 나서 포만감에 피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의 뒷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멍하니 구경을 하다니. 헤르세인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정신을 차리고자 했다. 그에게 잠시 멍하니 뒷모습을 구경한 건 둘째 치더라도 문제의 15.5 골드를 다시 떠올리니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

갑작스러운 그녀의 멈춤에 루드비카는 걷고 있던 발걸음을 멈춰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상당한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저, 저기.”

“네, 말씀하세요.”

“그… 15.5 골드… 내가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야? 당장은 갚지 못해.”

“갚는다니… 아가씨, 설마 그 돈을 제게 갚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헤르세인은 고개를 홱 올려 눈을 빛내곤 소리쳤다.

“당연하지! 나, 나도 염치는 있다고. 어떻게 15.5골드를 그냥 무시할 수 있겠어? 그것도 그 거금을….”

루드비카처럼 철면피가 아닌 이상, 15.5골드를 그냥 꿀꺽 할 순 없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에라도 고맙다며 그 돈을 전부 돌려주고 싶었지만, 자신은 이름뿐인 왕녀.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왕녀에 불과했다.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모아 루드비카에게 갚을지 헤르세인이 한참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루드비카는 사랑스럽다는 눈을 하며 저도 모르게 또 다시 고백을 하고 말았다.

“역시, 전 아가씨가 좋아요. 이제는 너무 깊게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헤르세인은 당황스러운 나머지 말을 더듬고 말았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신경 쓰지 않는지 여전히 그녀를 잡고 있는 손을 자신 쪽으로 살짝 끌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루드비카는 말을 이어갔다.

“제게 갚지 않아도 되요. 제가 아가씨에게 사주고 싶어서 사준 것이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아가씨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정말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비싼 음식을 얻어먹은 입장으로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루드비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번엔 그가 걷던 걸음을 중간에 멈춰 홱 뒤를 돌아 헤르세인에게 한 부탁을 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아가씨가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그 돈을 갚는 셈 치는 걸로.”

루드비카에게 이끌려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가고 처음으로 배를 꾹꾹 채울 만큼 그녀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어제와도 같았는데 시간은 벌써 그 날 후로 일주일이 지나갔다.

“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지 헤르세인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였다.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 두꺼운 책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가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좁혀야 했다.

“내가 왜 그 남자를 떠올리는 거지? 오던 오지 않던 나랑 상관없을 텐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가 문을 두드릴 타이밍을 기다리던 헤르세인은 오히려 스스로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대답하던 그의 말. 그러나 이내,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마음은 금방 변하기 마련이었다. 아무리 루드비카라 해도 그 역시 사람인 이상, 어찌 안 변할 수 있을까. 곁에 있겠다고 해준 그의 말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는 뼈대 있는 혈통가의 고귀가한 가문의 자제. 그것도 라인하르트란 가문의 이름을 업고 있는 공자. 그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헤르세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두꺼운 책을 덮어 시선을 옮기다가, 문득 시선이 멈춘 곳에 놓인 꽃다발을 볼 수 있었다. 파스텔 톤의 푸른 포장지에 감싸 수수하면서도 단순한 리본으로 포장된 푸른 꽃이 가득한 꽃다발. 헤르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푸른 꽃다발이 있는 작은 협탁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꽃다발을 들어 그 푸른 꽃잎을 뚫어지게 봐야만 했다.

“물망초… 라고 했던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란 어쩐지 아련히 들리는 꽃말.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숙여 꽃의 향기를 맡아보았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까. 아님 꽃 자체에 향기가 진하지 않는 걸까. 유독 기억에 남는 장미꽃 향과는 달리, 물망초의 향기는 진하지도 기억에 남을 만한 향기도 아니었다. 하지만 묘하게 야생의 향처럼 물 향이 은은히 퍼져, 그 향기가 헤르세인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향기를 맡을수록 자신에게 이 꽃을 선물하던 루드비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받으세요, 아가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

"네, 이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여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왠지 아가씨가 이 꽃과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어서요. 또, 이 꽃말처럼 저는 아가씨가 저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까요?"

"이 꽃의 꽃말이 분명…."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꽃말처럼 저는 아가씨가 저란 사람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 주실 거죠? 헤세."

잊지 말아달라니. 그의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그 밖에 없다 생각하니 고맙기도 했다. 어느새 작은 꽃잎이 말라가 그 힘을 잃어 그녀의 발밑으로 조심스럽게 떨어졌다. 헤르세인은 그 꽃잎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번엔 루드비카와 있었던 또 다른 기억이 그녀의 상념을 끌어들였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아가씨가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그 돈을 갚는 셈 치는 걸로."

"부탁? 어떤 부탁?"

"음, 그건 아직까진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만 제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들어주시면 되요. 네? 헤세."

결국 그 부탁이란 것도 비밀에 꽁꽁 쌓인 채, 들어 줄 수 없었다. 여전히 15.5골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루드비카의 성격상 그 부탁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무시할게 뻔했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그 부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책갈피로 만들까?”

어느새 상념에서 벗어난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손에 들려 있는 꽃다발에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직 말라가지 않은 작은 푸른 꽃을 하나 꺾어 꽃다발을 내려놓은 다음 두꺼운 책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책을 열어 종이 사이에 푸른 꽃을 끼어 넣은 헤르세인의 입가에는 어느새 옅은 미소가 걸려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책을 덮고서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까진 그녀는 당연하게도 문에 노크를 한 이가 루드비카 일거라 생각했다. 거의 드문드문 이곳을 찾는 왕비를 빼곤 이 시간 때에 노크를 할 이는 루드비카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무슨 일로 늦게 왔는지 그 작은 호기심을 부풀리며 헤르세인은 조금 서둘러 문을 열었다.

“오늘은 왜 늦게 왔── 왕비… 전하.”

“별일이구나. 네가 직접 문을 열고. 혹, 누굴 기다리기라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누굴 기다릴 리가요. 이 왕성에 제게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왕비전하와 빈센트 밖에 더 있겠습니까.”

왕비는 특유의 냉한 시선으로 헤르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볼일이 있어 왔기에 헤르세인을 쳐다보던 시선은 얼마가지 않아 왕비가 먼저 거두었다. 뒤를 따라온 시녀들과 하녀들을 잠시 밖에서 대기시키고는 왕비는 헤르세인이 열다만 문을 직접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

현재 루드비카는 초조함에 검지손가락을 계속해서 팔위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제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후작은 편한 옷차림과 함께 느긋하게 차를 마시면서 클로드와 함께 루드비카를 닦달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거란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그러니 이 셋 중에 골라.”

“고르다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각하.”

“그래? 네가 그렇게 말 한다니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해줘야겠구나. 물론, 내가 아닌 네 형이 말이다. 클로드.”

바로 옆에 앉아 후작의 목소리를 기다린 클로드는 작게 숨을 내쉬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루드비카의 앞에 세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프로필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며 클로드는 루드비카에게 이 종이의 의미를 전달했다.

“첫 번째 종이에 적힌 가문은 너도 알다시피 다프네아 백작가의 멜디아 안 슈레트 다프네아 공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에 적힌 가문은 메그소아 백작가의 차녀인 시엘라 셴 아그림 메그소아 공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에 적힌 가문은 그레이스 후작가의 아이르리스 룬 아르네 그레이스 공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모른 척 하는 건 아니겠지? 루드비카.”

“하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잘도 알아듣겠군요. 그냥 처음부터 혼인할 가문이라고 말했으면 단번에 알았을 텐데. 의외로 형님, 바보시네요.”

그 순간, 클로드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것을 봤음에도 루드비카는 모른 척하며 오히려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물론, 겉으론 여유롭게 행동하고 있으나 이미 속에선 초조해서 미치기 일보직전이었다. 벌써 그녀의 궁전에 가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다. 아마 이 시간 때쯤이면 그녀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마음은 벌써 그곳에 있음에도 몸은 이곳에 여전히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때마다 루드비카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다. 이러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가 있는 궁전에 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갈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지하니 루드비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두 사람을 향해 단칼에 거절의 의사를 비쳤다.

“전에도 말했지만 싫습니다. 싫어요. 전 그 종이에 적힌 가문과 혼인할 생각이 추오도 없습니다. 하물며 각하께서 고른 가문일수록.”

하지만 루드비카의 대답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는지 클로드는 어리석은 동생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때리고 말았다.

“네가 그리 대답할 줄 알고 이미 아버지께서 손을 써 놓으셨다. 내일, 오전 11시쯤에 그레이스 가의 공녀가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공녀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바로 너이고. 루드비카.”

“어째서 그런─! 후작각하!!”

결국 참지 못하고 루드비카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후작을 노려보자, 루드비카와 눈이 마주친 후작은 오히려 무덤덤한 얼굴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제 자신을 닮긴 커녕, 제 어미를 쏙 빼닮은 둘째 아들. 그리고 어지간히 속을 썩이며 어미와 똑같은 행보를 걸으려는 그녀의 자식. 하지만 그 역시 물러설 만큼 많이 물러났다. 이번만큼은 후작 역시 물러날 수 없었다. 제 아들이 자신을 원망할지라도.

“미리 얘기하지만 당장 내일 잡힌 약속이다. 물릴 수도 없으며 만에 하나 네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의 망신이란 것을 알거라.”

“후작각하!!”

후작은 더 이상 루드비카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덜 비어진 찻물을 그대로 남기고서 후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만 집무실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후작이 한발자국 떼기도 전에 루드비카의 청천벽력 같은 고백이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고백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연모하고 제 마음을 온전히 다 바칠 정도로 그녀를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온 마음을 다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니. 후작은 조금 놀라운 눈을 하고서 루드비카를 다시금 보았다. 그가 알고 있는 루드비카는 이 여인, 혹은 저 여인에게 붙어 방랑한 생활을 하는 철없는 아들과도 같았다. 거기다 워낙 그 전적이 화려하다보니 제 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연모하고 사랑하는 감정 따위 못 느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는 것은 물론, 저렇게 절절히 말할 정도로 사랑을 한다니.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다. 오죽하면 근처에 있던 클로드까지 평소 짓지 않던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제 동생을 보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후작은 루드비카의 아비이기 이전, 라인하르트 가문을 이끄는 가주이자 후작이기도 했다. 특히나 고위 귀족일수록 연모의 감정은 사치이며 정략결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고위 귀족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이라면 자신의 가문보다 낮은 급의 귀족이라면 더더욱 그 가치는 떨어졌다.

후작은 평소처럼 서릿발 같은 옅은 잿빛 눈동자를 움직여 루드비카의 마음을 흔들게 한, 그 여인의 정체를 물었다. 아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가문을 물어야 했다. 그것이 가주로서 미래를 위한 일이었다.

“어느 가문의 여식이냐.”

“그건──.”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냐. 설마, 말 못 할 정도로 한미한 가문인 것이냐? 아님, 내가 모를 저급한 가문인 것이야? 대답해 보거라, 루드비카.”

루드비카는 저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두 손에 주먹을 꽉 쥔 채, 제 아비를 향해 원망어린 눈으로 노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루드비카는 당당히 헤르세인의 이름을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름뿐인 왕녀이자 모두가 아는 아라네아 왕비의 사생아. 그리고 슬럼가 출신의 왕녀. 어느 것 하나, 후작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특히나 명예와 가문의 힘을 중시하는 후작이 아니던가. 또한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후작은 단칼에 제 마음을 후벼 팔 날카로운 말들만 뱉을 것이 자명했다.

아니, 자신이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후작이 매섭게 뱉어낸 말들이 오히려 이곳에 있지 않은 그녀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다. 끝내, 루드비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가 생각한 것 중 하나이겠구나. 어리석은 것. 내가 네 뒤를 밟아 그 여인에게 찾아가 먼저 상처를 주길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네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리고 명심해라. 아무리 네가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일지라도 그 피는 라인하르트 가의 피 임을. 클로드, 오늘 루드비카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라. 저택 내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바깥에 내보내지 말거라.”

“예, 아버지.”

끼이익 소리를 내며 후작은 이미 자리에서 벗어나고 없었다. 이곳에 남은 사람이라곤 스스로에 대한 분노 인해 파르르 떨고 있는 루드비카와 그런 동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클로드 뿐. 이내, 클로드가 먼저 자리에서 움직여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명의 병사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루드비카를 철저히 감시해라. 저택 바깥으로는 물론, 침실 바깥으로 한발자국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될 거다.”

“예, 클로드님. 가시지요, 루드비카님. 저희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겨우 열어 루드비카는 결국 앞장서서 침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유독 헤르세인, 그녀가 보고 싶은 날이었다.

오늘은 시녀가 따라주는 차도 거부한 채, 왕비는 가만히 헤르세인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이 그 누구보다 부담스럽던 헤르세인은 서둘러 왕비와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먼저 입을 뗐다.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 혼인 생각이 있느냐?”

“혼인… 이라니요?”

왕비의 대답에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좁히고 말았다. 할 말이 있다 해서 무슨 중요한 말인가 했더니 혼인이라니. 아예 생각해 본적도 없거니와 살면서 누군가와 다정히 살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는 그런 환상을 꿈꿔 본적도 없었다. 하물며 제 아무리 자신이 왕녀가 됐다 한들, 그 누가 자신과 혼인을 하고 싶어 할까. 그것도 사생아이자 슬럼가 출신의 왕녀를.

“그 말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왕비전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와 혼인하고 싶은 이는 물론, 그것을 바라는 가문조차 없다는 것을. 농담하시는 거라면 웃어 라도 드릴까요?”

“건방지구나, 농담이라니. 이제 왕실의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내게 반 협박 하는 것이냐?”

왕비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냉랭히 쳐다보자 헤르세인은 작게 숨을 토해냈다. 농담이라니, 오히려 왕비 쪽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혼인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뻔히 알면서도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 정도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왕비를 오랫동안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저 빨리 꼬리를 보란 듯이 내리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뿐 이었다.

“제 말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전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벌써 이곳의 생활도 1년조차 되지 않았는데, 제가 벌써 혼인을 한다면 왕후폐하는 물론, 국왕폐하께서 저를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자가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저 같은 왕녀를 좋아할까요?”

문득, 그 바보천치인 한 남자가 떠오른 건 왜 일까. 자신이 좋다던 루드비카.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자신임에도 그럼에도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곁에 있어주겠다던 바보 같은 남자.

‘그러고 보니, 거절도 못 했네… 첫 번째는 그 남자의 억지에 흐지부지 됐지만….’

그에게 고백을 받고서 바로 다음날, 자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을 내린 끝에 나온 거절이란 결말. 그러나 루드비카는 그 거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기까지 하면서 어쩌다보니 그가 유일하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의 고백을 다시 생각하면 머릿속에 폭풍우라도 몰아친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만약, 내가 또 거절의 대답을 들려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지 않겠지?’

루드비카가 곁에 있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다. 그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마음이 변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떠날 날이 오겠지만, 그가 자신을 온전히 봐주는 사람이여서 일까. 그가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치 자신은 왕녀로서가 아닌, 평범하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름뿐인 왕녀, 사생아, 슬럼가 출신을 다 떠나, 그 꼬리표가 보임에도 유일하게 자신을 그저 평범한 ‘헤세’로서 봐주는 사람이었다. 루드비카는.

“헤르세인?”

“아… 예.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말로 네가 이곳의 생활이 어느덧 편해지긴 했나보구나. 이제는 내 앞에서 다른 생각까지 하고 말이지.”

“…….”

왕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계속 루드비카에 관한 생각에 깊이 빠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행이도 왕비가 부른 이름이 아니었다면 더욱 정신 차리지 못했을 것이었다.

서서히 제정신을 차리는 헤르세인의 모습을 봤는지, 왕비는 작게 한숨을 토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어 찾아왔을 뿐이다. 여인으로 태어난 이상 혼인이란 것은 어찌됐든 여인의 꿈이 아니더냐. 그리고 네 말처럼 난 아직, 네가 혼인할 생각은 꿈조차 꾸지 않는 게 좋겠구나.”

혼인할 생각을 꿈조차 꾸지 말라니? 처음부터 그런 환상을 꿈꿔 본적조차 없지만, 왕비의 말은 어딘가 자신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직설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그녀의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피하여 환상어린 혼인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물음을 묻기 전에 왕비는 한 마디만 건네고는 완전히 침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잘 생각하길 바라마.”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 혼인에 대한 꿈? 아님, 자신조차 모를 미래의 신랑에 대한 이미지? 또 아님, 영원히 혼인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 수 십 가지로 가지에 걸려 있는 물음들이 잔뜩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그 어느 것 하나 고를 수 없었다. 왕비가 말한 의도를 정확히 모를뿐더러, 아직까지 헤르세인에게 있어 혼인이란 것은 멀고도 먼 이야기와도 같았다.

헤르세인은 눈의 피로를 느끼며 마른세수를 하고는 굳게 닫혀 있는 자신의 침실 문을 향했다. 왕비가 왔다 간 것을 빼면 오늘 하루 종일 열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문이었다.

“오늘은 안 오는 건가….”

이미 시간은 서서히 저녁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 왔을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헤르세인 끝내 문에서 시선을 돌려 눈을 감았다.

오늘은 유독, 마음이 뒤숭숭한 날이었다.

오늘도 결국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어디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할 인물은 아니라 생각했다. 그는 다름 아닌, 라인하르트 가문의 자제가 아니던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편히 생각했다.

평소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읽어보거나 또는 그가 있어 해보지 못한 종이 접기나 손장난 등등 여러 가지 해보며 헤르세인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눈앞에 있던 사람이 눈앞에 없으니 헤르세인은 어느새 습관처럼 그가 매일같이 앉아있던 창가 쪽에 또 다시 시선이 가고 말았다.

“…….”

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쪽지라도 보내면 이 작은 답답함은 없었을 텐데. 아니, 쪽지를 보낸다 해도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곳에 있으면 루드비카의 모습이 계속 떠올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콧바람이라도 쐬자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침실 바깥으로 나왔다. 여전히 하녀나 시녀조차 보이지 않는 자신의 궁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이라도 있었는지 이제는 대놓고 보이지 않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복도를 둘러보던 행동을 멈추고 정원을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현재 그녀가 향하는 곳은 레인 궁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정원이 있는 곳. 우연히도 창밖을 통하여 궁전과 가까운 곳에 작은 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르세인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조용히 찾는 곳이기도 했다. 정원에 도착하자 헤르세인은 가장 안쪽에 있는 벤치에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벤치에 앉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원의 풍경들. 작은 정원임에도 왕성의 정원사들이 세세히 신경을 쓰는지 이름 모를 꽃들이 시들지 않고 예쁜 꽃잎을 만개해 꽃들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꽃들을 멍하니 감상하며 잠시 생각을 비우고 있을 즈음, 뒤편에서 시녀들이 지나가는지 무리가 섞인 그녀들의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귀에 닿았다. 다행이도 헤르세인이 있는 뒤편은 관상용으로 깎여진 나무들이 있어, 몸을 피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시녀들의 목소리가 달갑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누군가가 루드비카의 언급으로 헤르세인의 귀는 바짝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보다 너희들 그거 들었어?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 약혼하신다는 소식 말이야!”

“어머나, 약혼? 그게 정말이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벌써 우리 쪽에는 소문이 쫙 퍼졌어!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그레이스 공녀님을 초대해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라인하르트 가문이 무척 시끌시끌하대.”

“식사라고? 에이, 그럼 약혼하는 건 아니지 않아?”

“글쎄, 내말 아직 안 끝났다니까? 들리는 말로는 라인하르트 후작각하께서 그레이스 공녀님을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의 짝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나 뭐라나… 아무튼 후작께서는 그레이스 가 공녀님에게 엄청난 호감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호감이 있으니까 가문에 초대해 둘째 공자님께 소개시켜주는 거겠지?”

“음. 그 말에 일리는 있네. 그럼 두 사람이 잘만 되면 정말로 약혼할 수도 있겠네?”

“그렇다니까!”

연신 어머나! 세상에!를 외치며 시녀들은 어느새 정원에서 벗어났는지 꺄르르 웃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녀들의 말을 저도 모르게 몰래 듣게 된 헤르세인은 지금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약혼… 그래서 어제, 오늘 오지 못한 거구나. 아니… 오지 않은 거라고 해야 하나.”

서운한 것보다 먼저 든 감정은 씁쓸함과 아쉬움이었다.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유일하게 있어주겠다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런데 벌써 그가 곁에 없을 것을 생각하니, 축하하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조금만 걱정해서 다행이다. 만약, 많이 걱정했더라면 나는….”

그저 조금 걱정할 것을 떠나, 이토록 아쉽고 씁쓸한 느낌이 든 것은 처음이었다. 루드비카만이 자신을 온전히 봐줘서 때문일까. 아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에게 정이라도 든 것일까. 그 어느 쪽이 되었던 어쨌든 그에게 있어선 잘된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헤르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느새 그녀의 손은 작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약혼까지 한다면 그 고백은 또 거절할 필요는… 없겠지. 차라리 잘 됐어.”

첫 번째 거절은 어물쩍 넘어갔다 해도, 두 번째 거절로 인해 그를 상처 입히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연 이 생각은 올바른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저 위선에 불과했다.

“설마, 내가 위선자처럼 생각할 줄이야….”

귀족의 약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 입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 거라면 약혼까지는 머지않았음이 틀림없었다. 거기다 시녀들의 말처럼 식사까지 초대받았다면 이는 틀림없을 것이었다.

“만약, 내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꼭 말해줘야지. 축하한다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나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사아악─ 하고 옅은 바람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장난치듯 살랑살랑 건드렸지만 아무리 장난쳐도 그녀의 무반응에 주위에 맴돌던 바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저녁노을이 지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루드비카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숨을 뱉었다. 결국, 어제는 꼼짝없이 침실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기다 오늘도 침실 바깥으로 끝까지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꼼짝없이 저택에 발이 묶인 신세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발이 묶이는 건 상관이 없었다. 다만 혹시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한건 어쩔 수가 없었다.

‘전서구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매일 곁에 있다가 정작 그녀의 곁에 자신이 없으니 오히려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루드비카였다. 마음 같아선 전서구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루드비카는 전서구조차 손을 댈 수 없었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가문의 병사들. 그런 그들을 빼돌리고 어떻게 전서구를 손에 넣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결국 그날의 당일이 돼서까지 루드비카는 꼼짝없이 하녀들의 손에 한껏 치장되어야 했다.

‘옷이라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치장이라고 해봤자, 전부 후작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뿐 이었다. 밝고 강렬한 것을 좋아하는 루드비카와는 달리, 후작은 무겁고 색이 어두우며 단조롭고 심플한 고급스러운 의상을 좋아했으며 루드비카처럼 귀를 뚫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조차 질색하는 후작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까지 머리를 기르거나 귀를 뚫는 중년의 귀족은 없지만 그만큼 후작은 깔끔하고 위엄이 있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다.

어느덧 하녀들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자 루드비카는 빤히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역시나, 마음에 들턱이 없었다.

“이러고 내가 대접까지 해야 한다는 소린가.”

라인하르트 가문으로 초대된 그레이스 후작가의 공녀. 루드비카는 그녀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안면 인식이 있었다. 가끔씩 사교모임이 열릴 때마다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비추던 그레이스 공녀. 그녀는 여타, 다른 공녀들과는 달리 사교모임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렇다고 낮을 가리거나 소심한 성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녀의 천성이 북적이는 곳을 싫어하는지, 사교모임에 꼭 참석하는 다른 공녀들보다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레이스 가문은 대체로 라인하르트 가문처럼 왕당파가 아닌, 중립파에 속한 귀족가문이기도 했다. 중립파 중에 대부분 피를 부르지 않고 협상과 유순하게 타고난 언변으로 일을 해결하는 고위 가문들이 몇 있지만, 귀족들은 대체로 힘과 재력으로 맞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왕당파와 귀족파가 붙으면 일이 골치 아파질 정도로 그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귀족파도 아닌, 중립파인 그레이스 가문의 적녀를 그것도 왕당파 중 큰 가문에 속하는 라인하르트 가문에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거기다 그레이스 후작은 지극히 딸 사랑이 유별난 후작이라고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 후작이 그것도 방랑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신과의 식사를 순순히 허락하다니. 후작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도 아끼는 딸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있지만, 루드비카는 한시라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똑똑똑.

"루드비카, 나다. 잠시 들어가마."

노크 소리와 함께 클로드가 루드비카의 침실 안으로 들어섰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 클로드는 루드비카의 옷차림을 발견했는지 특유의 무표정인 채로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흡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 그 정도면 그레이스 공녀를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지.”

“꼭, 이렇게 입어야 되나요? 형님.”

“그걸 말이라고. 지금 이곳에 오는 손님은 그 유명한 그레이스 공녀이다. 그런데 대접하기도 과분할 정도인데 너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공녀를 맞이하겠다는 거냐?”

“꼴사나운 모습이라니… 오늘따라 말이 좀 심하시네요. 정작 공녀를 대접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루드비카의 목소리에는 어느덧 작은 가시들이 돋아있었다.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달갑지 않아하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당연하게도 가시가 돋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도 후작도 가문 내에 그 어느 누구도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야말로 루드비카는 가문에서 철저히 혼자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네가 아버지께 확실히 말씀드려라.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말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생각을 바꾸시겠지.”

“형님 말처럼 각하께선 생각을 바꾸시겠지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제게서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 정도로 네가 연모하는 그 여인의 가문은 많이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이야?”

루드비카는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일부로 자신의 신경을 돋게 하고 싶어 그런 말을 뱉어낸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평소에도 자신에게 관심 없던 형님이 저런 말을 할 일이 없었다. 비록 클로드가 말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루드비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클로드를 지나쳐 대답했다.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 형님께선 각하께 잘 말씀해주시죠. 각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입고, 공녀를 대접할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고.”

“…….”

클로드는 접객실로 향하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딘가 나사하나 빠진 것처럼 매번 방랑하게만 돌아다니던 루드비카. 그런 동생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을 줄이야. 과연 그 감정이 찰나일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루드비카의 행동을 보고 있자면 마음을 품은 여인과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클로드는 하루라도 빨리 루드비카가 제정신을 차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라인하르트 저택 바깥에는 고급스러운 마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저택 내의 모든 하녀들과 병사들 그리고 가문의 일원이 직접 나와 마차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그레이스 공녀를 환영했다.

“내 저택에 온 걸 환영하네, 그레이스 공녀.”

“안녕하십니까, 후작각하. 이렇게 저를 가문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게, 왼쪽은 장남인 클로드와 오른쪽은 차남인 루드비카라네.”

“처음 뵙겠습니다. 공자님들. 이렇게 저택에 저를 초대해주시어 정말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레이스 공녀가 불필요한 동작하나 없이,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자 그녀의 인사에 보답하고자 클로드도 루드비카도 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자 후작은 본격적으로 루드비카에게 맡길 심산인지 루드비카를 흘긋 보며 그레이스 공녀에게 전했다.

“지금부터, 루드비카가 공녀를 안내해 줄 거라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거든 언제든 말해주게.”

“예, 후작각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의 등이 떠밀리다시피 그레이스 공녀의 앞으로 서게 된 루드비카는 결국 접대를 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극진히 모시라는 후작의 눈빛이 보였지만, 루드비카는 그것을 무시하고서 예의 좋은 미소를 걸치고서 공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공녀.”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루드비카는 후작이 원하는 정도의 극진한 안내는 아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 비록 사교계에서 얼핏 몇 번 본 것과 소문으로 인해 그녀를 전부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통해 루드비카는 그녀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르리스 룬 아르네 그레이스. 올해로 18살이 된 그녀는 외모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와도 같은 여린 성품을 가진 공녀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역시 외모만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긴 힘들었다. 그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물어봐야하는 성격은 물론, 살짝 덜렁이는 점과 고위 귀족가문의 공녀답지 않은 호탕함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덧 안내를 끝내고 둘만이 접객실에 앉아 티타임을 갖게 된, 루드비카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물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자님께선 혹시, 마음을 품은 여인이 있으신지요?”

왜 그녀가 그런 말을 꺼냈는지 이유를 알 순 없었다. 하지만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자신이 대답하길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루드비카는 왠지 거짓말이 하기 싫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 있습니다. 공녀께는 실례가 되는 말인지 알면서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군요.”

“후후, 그런가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하시면?”

“마음은 저 멀리 있는데, 몸은 이쪽에 억지로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 책망하는 건 아니랍니다. 저 역시, 공자님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아버지로 인해 강제로 이곳에 왔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이번엔 그녀의 고백에 루드비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인지, 방금 전 까지만 해도 조금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공녀께서도 마음을 품은 이가 있으시군요.”

“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를 억지로 이곳에 떠미신 거겠지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녀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루드비카는 아직 김이 사라지지 않은 따뜻한 찻잔에 시선을 쭉 유지한 채로 입술을 열었다.

“공녀와 그분과는 서로 마음이 이어진 관계입니까?”

“이어진 관계라 하면 혹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냐는 말인가요?”

“예.”

어째서 루드비카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레이스 공녀는 한동안 루드비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의 특유의 감이라 해야 할까? 그녀는 찻잔에 담긴 새콤달콤한 찻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촉촉해진 미소를 그려 루드비카에게 물었다.

“혹시, 공자님께서는 짝사랑 중이신가요?”

꽤 날카로운 눈매가 아님에도 사람의 분위기를 잘 읽는 건지 그녀는 꽤 눈치가 좋은 것 같았다. 루드비카는 그녀의 물음에 어색히 웃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미 한번은 거절당했지만 말이죠.”

“어머나.”

그레이스 공녀는 꽤나 놀란 눈을 하고서 루드비카를 봐야만 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그가 어떤 인물이던가. 그녀 스스로조차 사교계에 얼굴을 비추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소문이라면 어떤 여인이든 모른 이가 없을 정도였다. 사교계의 붉은 장미, 또는 바람둥이, 또는 사교계의 방랑자라 불릴 정도로 그가 여인을 무척 가까이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여인들이 기죽을 만큼 빼어난 외모를 지닌 것은 물론, 그 어떤 공자들보다 부드럽고 신사적이라 한번 그를 보면 잊지 못하는 공녀들이 어디 한 두 명이던가? 그런 그가 안 그래도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물며 고백을 했음에도 거절까지 당할 줄이야.

이것은 그 어떤 스캔들보다 대단할 정도였다. 하지만 거절당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진행 중이란 것을 보니, 어쩐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루드비카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

“아, 혹시 제 반응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죠. 하지만, 너무 놀랍네요. 공자님께서 이미 한번은 거절당하시다니… 공자님께 이런 말을 드려 실례지만 그동안 제가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에 대한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워낙 오는 여인을 막지 않고 가는 여인조차 붙잡지를 않으시는 분이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못 느끼시는 냉혈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제 이미지가 그 정도였군요.”

“워낙 사교계에선 공자님은 유명하신 분 이시니까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분은 혹시 낮은 출신의 귀족가의 분이신가요? 아,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분께서 웬만한 평민이 아니고서야 공자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약 헤르세인, 그녀가 평민이었다면 어쩌면 후작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편했을까? 아니, 평민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을지도 몰랐다.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레이스 공녀에게 조차 사실을 말할 순 없었다. 그녀의 존재를 말하기엔 아직 그녀의 위치는 위험이 많았고, 오히려 그녀가 다칠지도 몰랐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에 관해선 제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군요.”

루드비카는 그레이스 공녀에게 헤르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 챘는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찻잔을 드는 것이 보였다.

“아, 괜찮습니다. 굳이 제게 얘기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도 말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이니까요. 저도 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자님께는 죄송하지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부탁드리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인하르트 공자님.”

그레이스 가문의 적녀로 태어나, 후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그레이스 공녀는 누군가를 단 한 번도 이성으로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가문에선 젊은 기사나 병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한 가족으로서 생각한 그녀였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듯 그녀는 한 남자에게 반하고 말았다. 평민이자, 그레이스 가문의 젊은 기사임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한 남자를.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정을 알고 있는 전속하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체 아가씨는 저 평범한 기사님의 어디가 좋으냐고. 어디에 반했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도 당연하게 전속하녀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평범한 외모가 어때서? 나는 눈에 띄게 잘난 사내보다 저렇게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가진 사내가 더 좋은걸? 그래야 아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니까. 나만 그 사람의 반짝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젊은 기사를 어느덧 저 홀로 짝사랑한지 몇 달이 지났을까. 결국,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고백을 전하고 말았다. 당신이 좋다고, 출신, 신분을 다 떠나 그 저 한사람으로서 당신을 좋아한다고. 물론, 돌아온 대답은 그녀가 원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

"아가씨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가씨께서는 그레이스 가문의 하나 뿐인 소중한 분이시고 후작각하께서 지극히 아끼시는 고귀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는 아가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가씨의 옆 자리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고귀한 가문의 공자님이 더 어울리십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고백을 거절당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 대한 마음을 깊게 빠지게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녀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좋아해."

"죄송합니다."

"나랑 결혼해."

"싫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저 말고 다른 공자님을 찾아주세요."

그러나 백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얼마나 한 나무만 바라보고 찍었던가. 결국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그의 대답을 들 수 있었다.

"정말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응, 난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거였으니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처음 아가씨가 제게 해준 고백, 저는 떨리고 기뻤습니다. 아가씨께선 그 긴 시간을 참고 제게 고백하신 거라 했지만, 이미 저는 이 저택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가씨를 본 순간 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외모도 평범하고 신분도 평민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가 매번 끊임없이 제게 고백을 할 때마다 좋았습니다. 이런 저를 그대로 봐주시는 건 아가씨 뿐 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묻겠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저라도 괜찮으신 겁니까?"

"물론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난 한눈 따위 팔지 않아. 오직 내 눈엔 당신 밖에 없으니까!"

공녀는 그 어떤 때보다 이토록 기쁠 수가 없었다. 제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보다 그녀는 그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이 더욱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비밀연애. 낮에는 아가씨와 기사로서 주종관계로 서로를 대할 뿐이었지만, 모두가 잠이든 밤이 되면 그 어떤 이들보다 애틋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렇게 비밀연애를 시작한지 어언 1년. 그레이스 후작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제 딸을 시집보내기 위한 혼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녀는 어떻게 그와의 관계를 밝혀야할지 타이밍을 제고 있었다.

결국은 그 타이밍이 어긋나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레이스 공녀는 어느덧 다 비워낸 찻잔을 내려놓고는 잔잔히 웃으며 마저 말을 이어갔다.

“저는 말이지요, 공자님. 고작 신분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나고 분하답니다. 신분이란 벽 때문에 가끔씩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정중히 대해, 나를 여인으로 봐주고 있는 건지 아님, 단순히 아가씨로 봐주고 있는 건지 때때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왜 하필 평민일까, 라고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지요. 그 사람은 평민인 걸 떠나 제 눈엔 그저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겠지만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랍니다. 아버지가 색안경을 끼고 그를 완전히 평민취급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말이죠.”

루드비카는 그녀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비록 그녀와의 상황은 달랐지만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 그녀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비슷한가 싶기도 했다. 신분의 차이 그리고 가문에 묶여있는 몸과 혈통이라는 것. 귀족들 특히나 혈통이 진한 고위 귀족일수록 신분을 따지는 것은 더욱더 심했다.

때문에 가문과 가문을 위한 그 혈통의 대를 잇고자 함을 위해 생긴 것이 정략결혼이었고, 아무리 같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백작 작위 밑으로는 더욱 그 차별이 심했다. 아직은 혼인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신분과 출신을 따지는 색안경을 버려야 했다. 그런데 과연 그레이스 후작이 그 색안경을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루드비카는 조금 힘든 숨을 내쉬어야 했다. 거기까지 생각하기엔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앞서 있을 뿐, 헤르세인의 마음을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미 한번 거절당한 몸이 아니었던가. 갈 길은 아직 한참 멀고도 먼데, 어쩐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였다.

‘아가씨는 날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고 있을까?’

어쩐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오든 말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괜스레 마음이 찡하게 아픈 기분이었다.

“하아.”

“후우.”

눈앞에 있는 그레이스 공녀는 물론, 루드비카까지 두 사람이 동시에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접객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감싸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똑똑똑.

"도련님, 주인어른께서 공녀님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오시라는 전언이 있으셨습니다."

벌써 식사시간이 됐는지 하녀의 전언에 루드비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정중히 내밀었다.

“사람은 배를 채워야 힘이 난다고들 하죠, 역시 배가고프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어쨌든 공자님,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속편하게 할 수 있어서인지 용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군요. 식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가면 저는 아버지께 말씀 드려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내를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루드비카가 내민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레이스 공녀는 어쩐지 속이 확 풀린 환한 미소를 보이며 이번엔 악수를 청하고자 그녀가 먼저 다른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사의 인사이자 오늘로서 마지막 만남의 작별 인사이기도 했다.

“이렇게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을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그 짝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신다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공자님을 돕도록 하지요. 공자님과 저, 서로 비슷한 상황이여서인지 왠지 공자님은 남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녀와의 첫 만남은 강제적인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루드비카는 그녀의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든 것은 물론, 이 인연을 계기로 왠지 좋은 친구나, 혹은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루드비카는 다시 노크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녀가 내민 손을 잡고 빠르게 악수를 끝내고서 후작과 클로드가 기다리고 있을 식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후작이 생각했던 밑그림과는 다르게 루드비카는 그녀와 예술 문학에 관한 것, 또는 사교계에서 떠는 재미난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처음으로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벌써 그가 레인 궁에 안 온지 5일째 되던 날. 헤르세인은 나름 루드비카에 관한 생각을 떠오르고 싶지 않아 가급적이면 책을 하루 종일 읽으려하거나, 주위가 산만해질 정도로 침실 내에서 돌아다닌다거나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가 없는 빈자리를 볼 때면 자꾸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최대한 다른 것에 집중하고자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다.

“정원에라도 나갈까.”

침대 주변을 한참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녀는 제자리에 멈춰 정원으로 갈까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정원에 바람을 쐬러 자주나간 탓에 헤르세인은 금방 그 마음을 접어야 했다.

“…책이라도 읽어야지.”

결국 선택의 폭이 너무도 좁았다. 헤르세인은 의자를 끌어 자리에 앉아 어느덧 테이블에 잔뜩 쌓인 두꺼운 탑들을 볼 수 있었다. 나름 자신의 취향을 골라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들이지만 이상하게도 헤르세인은 그 책들을 끝까지 완독할 수 없었다. 집중되지 않는 정신은 물론, 이제는 습관처럼 그가 앉아있던 자리만 보는 자신의 행동.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섞여 헤르세인은 눈앞에 있는 책들을 전부 완독하고 싶어도 오히려 탑을 쌓듯이 책들이 쌓이는 것만 봐야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5일째로 접어드니 헤르세인은 머리가 복잡하던 그 생각들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하나쯤 완독할 생각으로 책 한권을 든 헤르세인은 제일먼저 첫 장을 피며, 글씨에 집중하려던 찰나였다.

똑똑똑.

헤르세인은 당연히 그 노크소리의 주인이 하녀일거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책에 집중했다. 하지만 책에 집중하기도 전에 다시금 들리는 노크소리에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아야 했다.

똑똑똑.

“시녀 인가? 아님, 빈센트?”

대체 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르세인은 조금 귀찮은 얼굴을 하며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도대체 이 노크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보기 위해 헤르세인은 살짝 미간을 좁혀 정면을 보자, 제일 먼저 보인 건 나비 모양으로 묶인 새하얀 크라바트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있는 상대의 얼굴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헛숨을 들이키고 말았다.

“…당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가씨.”

5일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왜 반가움보다도 아쉬움과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느낌이 드는 걸까. 또, 고작 5일 만에 보는 얼굴인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헤르세인이 멍하니 그의 얼굴을 본 채, 아무 말이 없자 오히려 그 모습이 불안하던 루드비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금 헤르세인을 불렀다.

“아가씨.”

“…….”

“…헤세.”

몇 번이고 아가씨라 부르던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어느새 간절히 애칭을 부르며 온전히 그녀만의 모습을 눈동자에 담아내고 있었다. 몇 번을 들어도 그가 부르는 애칭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심장이 떨리는 느낌.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려 점점 그의 뺨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또각, 또각.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 이곳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의 소리가 헤르세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깊은 심연에 있던 기분에서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제정신이 바짝 든 헤르세인은 재빨리 누군가가 보기 전에 루드비카의 손목을 잡고 침실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았다.

“아, 아가씨?”

갑작스러운 그 행동에 루드비카는 당황했는지 헤르세인을 불렀지만, 헤르세인은 이미 바깥에서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혹시나 그가 이곳에 있는 사실이 들킬 것 같아 헤르세인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식간에 들리는 노크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똑똑똑.

"헤르세인 왕녀전하, 왕비전하의 궁전에서 전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왕비의 궁전에서 온 시녀인지 그 낮선 목소리에 침실에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부딪쳤다. 그리고 다시금 들리는 시녀의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재빨리 커다란 테라스 구석으로 가, 바닥까지 끌리는 붉은 색의 커튼 뒤로 루드비카와 함께 숨어들었다.

“아가─”

“쉿!”

그저 그를 숨길 생각밖에 들지 않아 헤르세인은 그와 몸이 밀착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거기다 혹시라도 그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그의 입까지 손으로 틀어막은 헤르세인은 최대한 커튼 바깥에의 소리에 집중했다. 한참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시녀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린 후에 헤르세인이 침실에 없음을 알았는지, 점점 발자국의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쯤, 헤르세인은 겨우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후우, 다행이다. 이제 간 거 같──.”

시녀가 완전히 돌아 간 것에 안도의 숨을 쉬며 이제 루드비카에게 괜찮음을 알리려 했지만, 그 말이 전부 끝나기도 전에 헤르세인은 순식간에 자신을 끌어안은 두 팔로 인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토록 귓가에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히 들렸다.

“보고 싶었어요, 헤세.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헤세. 너무나도….”

그의 목소리가 그저 귓가에 바짝 닿았을 뿐인데 어쩐지 심장을 울리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울림소리와도 같았다. 단지 몸이 평소보다 가까이 붙어있을 뿐인데 그의 심장소리도 그의 숨소리가 솜털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헤세.”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던 그녀의 손은 떨어진지 오래였다. 그러나 루드비카는 무슨 생각인지 떨어져 있던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점점 입술 가까이 오도록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 사이로 깃털처럼 간질이듯 느껴지는 그의 숨결. 그 간질거리는 숨결이 오소소 솜털을 세우게 만들어 헤르세인 그때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그만!”

“아, 아가씨?”

그에게 안겨 있던 품에서 떨어져 나와 헤르세인은 재빨리 커튼 바깥으로 나왔다. 하지만 바깥으로 나왔음에도 이곳은 자신의 침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방황하듯 가만히 서 있질 못했다.

“아가씨.”

그때, 다시 들리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제자리에 우뚝 멈추고 말았다. 고작 5일임에도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 또, 자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던 온기가 가득한 품. 어쩐지 얼굴에서 약간의 미열이 느껴질 정도로 헤르세인의 두 뺨에는 약간의 홍조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미열은 순식간에 사라지듯 헤르세인의 두 손에는 어느덧 힘이 들어갔다. 잇새 사이로 들이마시고 새어나가는 작은 호흡.

헤르세인은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모를, 루드비카를 향해 겨우 대답했다.

“우연히 얘기를 듣게 됐어. 당신이 어떤 후작가의 공녀와 약혼을 할지도 모른다고….”

“아, 아가씨! 그건─!”

루드비카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좁히고 말았다. 자신의 가문 내에서 일어난 일이 벌써 왕실에 퍼지고 있을 줄이야. 루드비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얘기하고 싶었다. 아니라고, 아가씨가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가씨는 매정하게도 아직까지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루드비카는 결국 성큼성큼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코발트빛의 눈동자를 완전히 자신만을 향하겠끔 루드비카의 손은 헤르세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아가씨, 설마 그 얘기 진짜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어딘지 모르게 그는 아이처럼 제게 매달리고 있었다. 그것도 간절함이 가득담긴 여린 얼굴로. 자칫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다간 그 호박 빛 눈동자에 투명한 눈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서둘러 작게 고개를 저었다.

“믿지 않아, 나도 왕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잖아. 약혼이란 건… 아니, 정략결혼이라고 해야 하나….”

귀족, 특히나 고위 귀족으로 태어난 그들에게선 정략결혼은 피할 수 없는 것이자, 이미 미래가 정해진 운명 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엔 정략결혼이란 것을 배울 땐, 왜 그들이 그저 부모가 정해진 상대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략결혼이란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는 발판이자 서로간의 가문의 힘이 되는 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명예와 힘을 중시하는 가문일수록 정략결혼은 비일비재하다고 배웠었다. 그리고 그 고위가문에 속해있으며 그 혈통의 피를 잇고 있는 루드비카.

제 아무리 가문을 잇지 못하는 차남이라 할지라도 그는 고위 귀족 가문에 태어난 이상, 정략결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아가씨는 제가 정략결혼을 하길 바라시나요?”

어떤 의미로 루드비카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헤르세인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유일한 자신의 애칭을 불러주는 사람. 또,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봐주는 단 한사람. 그리고 옆을 보면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있어 루드비카는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님, 보호자? 이상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은 어딘가에서 작게 외치는 소리가 그녀에게만 들렸다. 그가 만약 자신의 곁을 떠난다면 자신은 평생 홀로 있는 외톨이 일거라고. 왜, 그런 외침이 들렸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그가 계속 자신의 옆에 있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어쩌면 ‘욕심’이 아닐까?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그 외침이 루드비카에게도 들릴 것 같아, 재빨리 그의 시선을 피해 얼버무리는 것을 택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신은 라인하르트란 거대한 가문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략결혼을 하길 바라든 바라지 않던 결과적으로 당신은 결국, 가문의 힘에 의해 정략결혼을 하게 되겠지.”

“제 마음이 계속 아가씨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말인가요?”

자신이 어째서 왕녀가 됐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 다음으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재산도 권력도 그 어느 것 하나갖고 있지 못한 이름뿐인 왕녀에 불과한 자신을 그는 왜 좋아해주는 걸까. 혹시 결혼을 하기 전, 그저 그에게 있어 어느 정도 갖고 놀고 싶은 인형이라 여기며, 이토록 곁에 있는 건가 하는 이상한 생각도 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자면 그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이란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헤르세인은 어쩐지 그에게 묻고 싶어졌다. 자신이 계속 거절하면 그는 그럼에도 계속 곁에 있어줄지….

“그럼,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도 계속 거절해도… 그래도 당신은 계속 내 곁에 있을 수 있어? 내가 계속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지도 모를 텐데?”

그가 오지 않던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할지 어떻게 말해야할지, 또 약혼이 진짜라면 어떻게 축하의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 있었다.

후회가 들었다. 왜 자신은 이런 말을 꺼냈을까, 하는 후회와 그가 혹시라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그 진실이. 그런데 그 마음을 마치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루드비카는 ‘아니요’가 아닌 ‘네’라는 대답을 함으로서 헤르세인의 눈동자를 크게 흔들었다.

“네, 아가씨에게 있어, 제가 유일한 한 사람이듯, 저 역시 아가씨가 저의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저도 사람인 이상, 아가씨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상처를 받음에도 저는 아가씨의 곁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만큼 제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아가씨를 향한 마음이 어느새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루드비카는 마지막에 말을 흘리며 점점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갑작스럽게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살짝 뒷걸음질을 쳤지만, 어느새 도망칠 수도 없도록 그녀의 손은 루드비카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낮선 감각이 그녀의 피부를 덮쳤다. 아까와는 다른 소름이 피부를 통해 바짝 열려 있었고, 그녀가 눈치 챌 수도 없이 루드비카의 손은 조심스럽게 헤르세인의 얇은 허리에 닿아있었다.

이번엔 또 다른 루드비카의 손이 살짝 차게 식어있던 그녀의 뺨에 완전히 닿으면서 헤르세인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족쇄와도 같은 짙은 시선. 그 집요한 시선을 피하고 싶음에도 헤르세인은 점점 얼굴에 닿고 있는 루드비카의 숨결로 인해, 어떻게 숨을 내쉬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어느덧 얼굴과 얼굴사이의 공간이 좁아질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자칫 닿을지도 모를 루드비카의 입술이 따뜻한 열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가씨… 아니, 헤세….”

루드비카는 조금만 움직여도 입술이 닿을 거리를 일부로 유지하며, 살짝 거친 숨결을 내쉬고는 촉촉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헤르세인을 부르며 갈망에 젖은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저를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든 벌이에요. 지난 5일 내내, 나는 헤세 당신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정작 헤세는 다른 말만 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이토록 당신의 입술위로 내 입술을 묻고 그 열기를 빼앗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게 빼앗는 다면 누구보다 당신이 놀랄 테니까… 또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이정도로 내가 힘들게 참고 있다는 걸 알아줄 거죠? 응?”

처음이었다. 그가 이정도로 애원할 줄은. 워낙 당황할 사이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헤르세인은 그가 절제와 인내심 경계에 부딪쳐, 아가씨가 아닌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언급했다는 것조차 느낄 세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열기가 솟는 집요한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 눈동자에 집어 삼켜질 것 같아, 헤르세인은 곧바로 꼼짝없이 그의 말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으, 응.”

원하는 대답이면서도 어쩐지 만족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루드비카는 순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곧바로 그녀를 품에서 떼어내고 세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단지 품에서 떨어져 세발자국 뒤로 물러났을 뿐인데, 평상심을 금방 찾았는지, 어느새 루드비카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아가씨의 입술을 멋대로 빼앗지 않아요. 아, 물론 포옹은 예외지만요.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입맞춤이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칠 때의 입맞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달콤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말하는 루드비카의 시선이 자신의 입술에 향해 있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두 손을 들어 재빨리 자신의 입술을 틀어막았다. 분명, 입을 맞춘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미 그의 입술에 빼앗긴 기분이 드는 건 왜 일까. 거기다 몇 분전만 해도 울상어린 얼굴로 있던 루드비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을 잊기라도 한 것처럼 루드비카는 평소처럼 반달눈을 휘며, 짙게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아가씨.”

헤르세인은 또 무슨 일이냐는 얼굴로 여전히 손은 입술을 가린 채,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런 그녀의 귀여운 행동에 루드비카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지만, 어느새 양쪽 입꼬리에 힘을 빼어 자신은 다른 사람과의 약혼은 전혀 생각이 없음을 솔직히 털어놨다.

“저에 관한 약혼이야기가 왕실에 몇 번이고 퍼질지라도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아가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령, 가문에서 쫓겨날 지라도 제 마음은 오롯이 아가씨만의 것임을 부디 알아주시길.”

또각, 또각하고 그가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저 두 발자국 앞으로 걸어왔을 뿐인데 그녀의 앞에는 다시 루드비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방금 전처럼 품에 안거나 갑작스러운 행동은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위로 부드럽게 감싼 행동이 전부였다.

“헤세, 사랑해요. 아주 많이… 당신을….”

달칵, 소리를 내며 아라네아 왕비는 눈앞에 있는 가장 큰 보석함을 열었다. 그녀의 침실 내에 있는 보석함 중,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값비싼 보석함이었으며 가장 열고 싶지 않은 보석함이기도 했다.

“…….”

보석함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것은 백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 줄과 목걸이를 장식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푸른 사파이어가 장식된 목걸이. 이것은 소위 말하는 "푸른 여신의 눈물"이라는 목걸이 이기도 했다. 카타리아 왕후 뿐 만이 아닌, 제국의 황후조차 탐을 낸다는 푸른 여신의 눈물. 하지만 모두가 탐내는 그 눈물을 아라네아 왕비가 소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녀는 이 눈물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애초에 위스턴 국왕이 그녀의 마음을 사고자 내다 받친 푸른 여신의 눈물. 왕비는 결국 그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 보석함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때,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새로 만든 다과를 가져온 시녀가 들어오자 왕비는 바로,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시녀를 향해 눈앞의 보석함을 옮기라는 명을 내렸다.

“이 보석함을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 거라.”

“예, 전하.”

군말 없이 시녀가 다가와 보석함을 들고서 가장 눈에 띄는 선반 쪽에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 같아선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웠으면 했지만, 어찌됐든 그 보석함에는 국왕이 선물한 푸른 여신의 눈물이 들어있었다. 혹시라도 국왕이 이곳을 뒤져 괜한 트집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왕비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보석함을 놔둬야만 했다.

“저어, 왕비전하.”

“무슨 일이냐.”

“이 보석함은 어찌할까요? 상당히 낡아보여서 보석함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만…, 호, 혹시 제가 왕비전하께 주제가 넘는 말씀을 드렸다면 송구합니다!”

왕비는 시선을 돌려 가장 구석진 곳에 거의 처박혀 있듯이 자리에 있는 낡은 보석함을 볼 수 있었다. 언뜻 보면 보잘 것 없는 낡은 보석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보석함에 시선이 가던 왕비는 바로 눈앞에 있는 찻잔에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되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두어라.”

“예, 왕비전하.”

제 할 일을 다 끝낸 시녀가 허리를 조아리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다시금 노크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엔 왕비를 찾는 손님이 왔음을 알렸다.

"왕비전하, 왕후폐하께서 오셨습니다."

“왕후께서? 어서 안으로 모시어라!”

정작, 헤르세인에게 전언을 보낸 시녀는 돌아오지 않고, 갑작스러운 왕후의 등장에 왕비의 미간은 곱게 좁혀지고 말았다. 어떤 이유로 왕후가 이곳까지 행차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좋은 일은 아님임이 분명하기에 왕비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왕후를 대접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평소에 한쪽 문만 열리던 침실 문이 전부 활짝 열리면서 아라네아 왕비는 화려한 차림으로 행차한 왕후를 조용히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왕후폐하.”

조용히 찻물을 따르는 시녀는 혹시라도 찻물의 물방울이 왕후에게 튀지 않도록 주전자를 기울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러나 시녀를 더 굳게 만드는 실내의 싸늘한 침묵에 차를 따르던 시녀는 오늘따라 이 장소를 어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시녀의 심정을 모른 채, 아라네아 왕비와 카타리아 왕후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며 서로 탐색하기 바빴다. 아니, 그 탐색을 열렬히 하는 것 오히려 왕후 쪽이나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아라네아 왕비의 앞에선 기선 제압을 하고 싶은지 왕후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깨가 과감히 드러난 강렬한 보랏빛 드레스와 큼지막한 자수정 목걸이, 그리고 진한 화장을 하고서 레이스가 달린 부채를 활짝 피곤 왕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과는 대비되는 무거운 짙은 푸른 계열의 드레스. 그리고 머리에는 진주와 사파이어로 장식된 작은 머리 장신구 하나만 있을 뿐, 화려하게 머리 장신구를 이것저것 꽂은 왕후와는 다르게, 왕비는 단촐 하기 짝이 없었다. 거기다 화장기 하나 없는 그 수수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왕후는 내심 코웃음을 치면서도 어째서 국왕은 이런 왕비의 모습에 푹 빠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째서 이젠 가문조차 없는 왕비 따위에게 나는 여전히 아래인거지? 어째서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 어째서!’

겉은 짙은 빛의 붉은 입술로 웃고 있지만, 이미 왕후의 속은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가문조차 없는 왕비였다. 과거엔 존재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녀의 힘이 되어줄 가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왕의 총애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왕비를 보고 있자면 왕후는 미칠 듯이 질투가 나면서도 더욱 증오가 끓어올랐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단 하나. 국왕의 총애만큼은 왕후는 절대 가질 수 없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음에도 유일하게 국왕의 총애를 가진 왕비. 이보다 더, 대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왕후는 괜스레 부글부글 끓던 열이 머리에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 활짝 펼치고 있던 부채질을 얼굴에 해야만 했다.

“혹, 더우시면 창문을 열라 할까요? 왕후폐하께서 이토록 더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부채질을 지켜보고 있던 왕비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하자, 왕후는 살짝 코웃음을 치고는 반듯하게 부채를 접어버렸다. 왕후의 행동은 지고 싶지 않은 괜한 자존심이었다.

“되었네, 부채질을 했더니 조금 낫군 그래.”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게 무슨 볼일이 있어, 이 누추한 제 궁전까지 오셨습니까, 왕후폐하.”

서로에 대한 탐색이 끝났는지 왕비의 물음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왔음에도 표정하나 바뀌지 않는 왕비의 모습에 왕후는 속으로 한껏 비웃으며 예의 좋은 미소로 왕비에게 대답했다.

“꼭, 볼일이 있어야 오는가? 그리 말하니 섭섭하네. 그래도 이 왕성에 내가 기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사람은 자네 밖에 없지 않는가.”

“송구합니다. 왕후폐하, 제가 괜한 말로 왕후폐하께 섭섭함을 안겨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서운함을 푸셨으면 합니다.”

“되었네.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농담으로 말한 것뿐이니, 너무 마음에 담지 말게나. 그보다 내가 이렇게 직접 자네를 찾아온 건, 자네와 겸사겸사 이야기도 나눌 겸 온 것도 있지만, 문득 헤르세인 왕녀가 떠올라서 말이네.”

“헤르세인… 말입니까…?”

왕비는 왕후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평소라면 헤르세인을 신경 쓸 왕후가 아니었다. 오히려 윌리스 왕태자와 케시아 왕녀에게 신경을 썼으면 썼지, 제 자식이 아닌 타인은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왕후였다. 왕후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왕비는 차분히 기다렸다.

“생각해보니, 비록 헤르세인 왕녀는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그 아이는 국왕폐하께서 인정한 왕실의 일원이 아닌가? 그렇담 당연히 내 자식인 샘이기도 하지. 또, 헤르세인 왕녀의 올해 나이가 열여덟이 아니던가? 이미 혼기가 꽉 찬 나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헤르세인 왕녀에게 걸맞은 혼처를 슬슬 찾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이네. 아무리 자네에게 있어 미운 자식이라 해도 자네의 핏줄이 아닌가? 자네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해줘야지.”

여전히 왕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뱉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눈빛을 보아도 적의가 가득한 왕후인데, 그녀가 과연 단순한 선의로 헤르세인을 위해 나선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다. 왕비는 작게 흘러나오는 숨을 토해내며 시녀가 따라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직 따뜻한 찻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 달칵 내려놓았다.

“왕후폐하께서 그리 헤르세인을 생각해 주실 거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후폐하, 헤르세인이 혼인을 치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또한, 오히려 당장 급한 것은 케시아 왕녀전하가 아닌지요? 그리고 애초에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먼저 혼인을 하지 않는 이상, 헤르세인이 먼저 혼인을 치르는 건 왕실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왕후는 어느 정도 왕비가 이런 반격을 하리라 예상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케시아를 걸고넘어지는 왕비의 언급에 절로 미간이 구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왕비의 말에 틀린 것 하나 없었다. 윌리스 왕태자는 이미 왕태자비가 있으며, 그녀의 자식 중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건 케시아 왕녀가 유일했다. 왕후는 태연히 표정을 풀어 차를 한 모금 급히 마시곤 입을 움직였다.

“자네의 말처럼 케시아가 먼저 혼인을 하지 않는 이상, 헤르세인 왕녀는 그때까지 혼인을 할 수 없는 몸이지. 허나, 자네도 알다시피 케시아는 국왕폐하께서 너무도 아끼는 아이가 아닌가? 오죽하면 국왕폐하의 애정에 아직까지도 혼인을 하지 못했을까? 이러다 국왕폐하께서 케시아의 혼인을 더 늦추기라도 할까봐 겁이 난다네. 그래서 왕실 법도를 조금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헤르세인 왕녀에게 서둘러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왕비.”

왕비는 어느새 차게 식어버린 찻잔에만 덩그러니 시선을 주고 있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도, 더욱이 눈앞에 있는 왕후가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입에 들어갈 리가 없었다. 어느덧 다시 부채를 펼치고서 팔랑이며 부채질을 하고 있는 왕후의 모습이 보였다. 왕비는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왕후를 향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왕후폐하. 혹,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왕비. 설마 나를 그런 몰염치한 이로 보는 겐가?”

“…송구합니다, 그저 왕후폐하께서 헤르세인을 위해 굳이 혼처를 찾아주시겠다는 마음 씀씀이에 놀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정말 사과를 할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왕후는 됐다는 손짓을 부채질로 대신하며 얄팍한 미소를 그려냈다.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 왕성은 자네에게 있어 소리 없는 전쟁 같은 곳이 아닌가? 특히나 자네와 나 정도로 위치에 앉은 여인일수록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의심을 하기 마련이지. 특히나 자네는 자네를 보호해줄 가문도 없지 않는가, 내 생각이 짧았네.”

은근슬쩍 왕비를 깎아내리며 그 상황을 보란 듯이 얘기하는 왕후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비아냥이 가득담긴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왕비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상황이 익숙하면서도 마치 오랜 시절부터 그녀의 심장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왕비의 표정은 그저 얼음같이 냉랭하기만 할 뿐이었다.

“헤르세인의 혼처에 관한 건, 아직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왕실의 일원이 됐음에도 부족한 것이 많고, 이제 막 왕실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비록, 제 치부이기는 하나, 왕후폐하의 말씀처럼 헤르세인은 혼기가 꽉 찬 나이이니, 적어도 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 아이를 혹독히 가리켜 혼인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 왕후폐하, 제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달라? 설마, 나보고 그냥 왕후로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겐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게 시간을 주신만큼 왕후폐하에 대한 저의 마음과 그에 합당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왕후폐하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제 채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흐음,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가 한발 물러나도록 해야겠지. 알았네.”

왕후가 무슨 생각으로 헤르세인을 들먹이면서까지 혼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왕후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득을 본 셈이었다. 왕비는 정확히 왕후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어쩐지 뻔히 보이는 결말이기도 했다.

“그럼, 이만 나는 내 궁전으로 돌아가 보겠네. 오랜만에 자네와 이야기를 나눠 즐거웠네.”

“조심히 돌아가시길.”

끼이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실내에는 어느덧 왕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로는 찻물이 그대로 식은 찻잔과 진한 입술자국이 묻은 찻잔이 전부였다. 그 붉은 자국이 남은 찻잔을 보니, 왕비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바깥에 있는 시녀를 불러들여 눈앞에 있는 찻잔을 치울 것을 명했다.

“눈앞에 있는 다과와 찻잔을 치우거라.”

“예, 왕비전하.”

시녀가 서둘러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동안, 왕비는 아까 전 시녀가 옮겨두었던 큰 보석함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보석함을 다시금 열자 눈이 부시도록 푸른빛을 띠우는 푸른 여신의 눈물이 보이자, 왕비는 작게 미간을 좁힌 채, 보석함을 무심히 닫아버렸다.

“아무리 진귀한 것을 내게 받쳐도 내 마음은 이미 껍데기인 것을….”

“예? 왕비전하? 무슨 말을 하셨는지요?”

얼핏 그 작은 혼잣말이 시녀의 귀에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는지 왕비는 고개를 저으며 어느새 깨끗해진 빈 테이블을 향해 있던 시선을 끝내 거두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루드비카는 그날의 기점으로 오히려 더 하루도 빠짐없이, 헤르세인의 궁전을 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약간의 어색한 것을 빼면 헤르세인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그 변함없는 모습조차 루드비카는 좋았다. 그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해지는 따뜻한 기분. 그 느낌을 한시라도 잊고 싶지 않아, 루드비카는 오늘도 조금은 서둘러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향하는 곳은 그녀가 머물고 있는 레인 궁이 아닌, 책 냄새들이 짙은 왕실 도서관. 마음 같아선 왕실 도서관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다분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를 만난 뒤로 주변의 경계를 바짝 신경 쓰는지 헤르세인은 웬만하면 루드비카와 함께 왕실 도서관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녀의 책 심부름을 하게 된 루드비카는 어느덧 왕실 도서관에 도착해, 책 내음이 가득한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헤르세인이 부탁한 책을 찾기 위해, 빼곡하게 꽂혀 있던 긴 책장들을 대충 훑던 루드비카는 역사학 책들이 잔뜩 있는 고유번호를 찾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두터운 감색표지의 양장본을 손에 든 루드비카는 금방 묵직해진 무개에 흡족한 미소를 짓고서 다음 책을 고르기 위해 다른 책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의 열 걸음 쯤, 걸어가 다른 코너를 지나던 순간, 루드비카는 높은 위치에 꽂혀 있는 책을 잡고자 짧은 손을 뻗어 끙끙거리는 한 소년을 볼 수 있었다. 양쪽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손을 뻗어 책을 잡고자 했지만, 소년의 손은 계속 허공에만 손짓할 뿐, 도무지 잡히지 않은 높은 거리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도와줘야겠군.’

이대로 계속 있다간 소년은 평생 그 책을 손에 넣지 못할 것 같아, 루드비카는 소년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틀어 소년의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소년과는 다르게 높은 곳에도 손이 닿는 루드비카는 가볍게 책을 꺼내어 소년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소년에게로 내밀어진 책. 소년은 그토록 원하던 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손을 뻗었음에도 도무지 닿지 않는 손길에 반쯤 포기하려던 찰나, 이렇게 도움을 준 구세주 덕분에 소년은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당장에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소년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만 헉 소리를 내고 말았다. 천사가 강림이라도 했는지 눈앞에 있는 이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이였다.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이가 왜 왕성에 있는지 또 한 번 놀라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에 소년은 깨달을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천사는 여인이 아닌 사내란 것을.

“괜찮으십니까?”

“헉! 괘, 괜찮네! 그보다, 그대는 누구인가? 내가 왕성에 있으면서 그대의 얼굴을 본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소년의 물음에 루드비카는 자신의 소개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작게 허리를 숙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저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인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라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 공자님의 존함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소년은 처음엔 고개를 기울이더니, 점점 이해가 되는지 루드비카의 이름을 듣는 순간, 토끼보다 커진 눈을 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설마 그 라인하르트 가문의 자제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소년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다.

“내 이름은, 빈센트 드 레이람 미르세니안. 위스턴 국왕폐하와 아라네아 왕비전하 사이에서 태어난 제2왕자이자, 내겐 제2왕녀이신 헤르세인 누님이 계신다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네. 라인하르트 공자.”

위스턴 국왕과 아라네아 왕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2왕자 빈센트.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루드비카는 눈앞에 있는 어린왕자를 직접적으로 본 건 처음이었다. 왕비를 빼다 박았다고 할 만큼 모친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헤르세인과 달리, 눈앞의 어린왕자는 왕비와 닮은 푸른 눈동자를 빼면, 거의 국왕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왕자여서 일까. 국왕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았음에도 군데군데 앳된 모습사이로 왕비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아가씨와 똑같은 머리색이었다면, 아가씨와 똑 닮은 여동생이라 해도 믿어지겠어.’

지금도 충분히 빈센트 왕자의 얼굴에서 헤르세인의 모습이 얼핏 보이긴 했지만, 성인이 된다면 분명 미래가 기대될 만큼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지도 몰랐다. 루드비카는 맑게 눈을 깜박이는 빈센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가… 아니, 헤르세인 왕녀전하와 많이 닮으셨습니다. 빈센트 왕자전하.”

남들의 눈엔 어린왕자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루드비카의 눈엔 헤르세인과 빈센트의 모습은 역시 남매라 할 만큼 많이 닮아있었다. 눈동자 색이 미묘하게 다를지 몰라도 만약, 헤르세인이 남장을 한다면 빈센트 왕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누님을 본적이 있어? 아니… 그것보다 그게 정말인가? 내가 누님과 많이 닮았어?!”

화들짝 놀란 얼굴. 재차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는지 빈센트는 반짝이는 눈동자를 하며, 루드비카의 대답을 기다렸다.

“예? 아, 예. 제 눈으로 보기엔 많이 닮으셨습니다. 혹시, 기분이 나쁘시거나 한건….”

“아니! 아닐세! 오히려 기쁠 정도야! 내가 누님이랑 닮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그렇습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빈센트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루드비카가 알고 있는 남매에 관한 지식으론 보통 누이 쪽이나 동생이 되는 쪽은 서로를 닮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보통 남매가 있는 귀족 가문을 보면 남자 쪽이나 여자 쪽 할 것 없이 피가 이어진 남매사이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친 것만으로도 치를 떠는 그 광경을 루드비카는 몇 번 본적이 있었다.

물론, 모든 남매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로를 볼 때 마다 치를 떠는 남매가 있으면, 반대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하는 남매도 있었다. 다만, 그쪽 남매들은 보통 남매들보다 보기가 힘들 정도니… 아무래도 빈센트 왕자는 후자 쪽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게 웃고 있던 빈센트는 이내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서 얼굴에 한가득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건지 한껏 서글픈 얼굴에 루드비카는 문득 궁금했다.

“왕자전하?”

“나는 말이네, 내게 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네. 형님이신 왕태자전하와 누님이신 케시아 왕녀전하를 뵈면 늘 부러웠어. 나도 두 분처럼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형님이나 또는 누이가 있었으면 하고… 말이지.”

루드비카는 그저 해맑은 왕자일거라 생각했다. 이런 서글픈 얼굴이 아닌,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이 너무도 어울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 작은 어깨와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그저 해맑은 어린왕자 주눅 들게 만들고 있었다. 나이에 답지 않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에게도 나와 똑같은 어머니의 피가 이어진 누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누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했지. 늘 혼자 계시던 누님의 곁에 이렇게 듬직한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하지만… 나만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누님은… 나를 싫어하시니까.”

“왜 그리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빈센트 왕자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비록 부친의 피가 다를지라도 어찌됐든 한 모친의 배에서 태어난 남매가 아니던가. 그러나 어린왕자의 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단한 벽이 쌓여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특히나 헤르세인 쪽이.

빈센트는 루드비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결심이 섰는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말이네, 남들의 눈엔 내가 둔해 보이는 왕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름 눈치정도는 갖고 있네. 언제나 내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왕태자전하와 웃고 계시면서도 나를 어딘가 꺼려하시는 케시아 왕녀전하, 또, 나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왕후폐하… 덕분에 눈치를 기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눈치를 기르고야 말았지만… 그리고 처음 누님을 뵈었을 때, 나는 눈치 챘음에도 속으론 부정했던 걸지도 몰라, 그 차가운 시선이 제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기를… 하고….”

“…왕자전하.”

“결국 누님을 뵌 첫날부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 너무 바보 같게도 나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말았어.”

“선물이라 하시면?”

빈센트는 그날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렸는지 안 그래도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은 더욱 짙어지고 말았다.

“우연히 내 눈에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이 보였지. 워낙 포장지 자체에 구김도 없었고 단 한 번도 뜯은 것 같지 않아, 나는 그것이 당연하게도 내 선물이라 여긴 거야….”

“마카롱…? 설마….”

설마 하는 생각으로 루드비카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빈센트에게 조심히 물었다.

“혹시 그 마카롱이 담긴 포장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포장지? 내 기억이 맞는다면, 분명 분홍빛의 포장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틀림없었다. 그 마카롱은 분명 자신이 그녀에게 선물해준 마카롱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진즉에 다 먹었을 거라 생각한 루드비카는 마카롱과 빈센트 왕자와 무슨 연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행이도 빈센트는 그런 루드비카의 생각을 빨리 이해시키려는지 그때 저지른 일에 관해 살짝 촉촉이는 목소리로 털어 놓았다.

“누님께서는 그 마카롱을 굉장히 아끼고 계신 거였어. 포장지 하나 뜯지 않을 정도로 그토록 아끼신 거였다면 나는 바보같이 그것을 내꺼라 생각하지 않고 뜯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누님께서 아끼시는 그 마카롱의 포장지를 뜯어버렸고 누님은 그런 나의 행동에 크게 화를 내셨지. 나는 그때서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눈치 챘지만, 누님은 정말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는 원망어린 얼굴을 하셨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루드비카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준 마카롱의 선물은 그저 단순한 선물임과 동시에 호감을 사고 싶은 일종의 뇌물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지금도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바치겠지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마카롱에 불과할 텐데, 그녀에게 있어 그 마카롱은 크나큰 선물이자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처음으로 받는 뜻깊은 선물이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마카롱을 단순히 빈센트 왕자에게 빼앗긴 걸로 화를 낼 정도면,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선물인 걸까. 어쩐지, 마카롱을 준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그녀에게 많이 미안했다.

루드비카는 어느덧 눈시울이 붉어져 눈가가 촉촉해진 빈센트 왕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나이답지 않게 일찍 철든 왕자라 할지라도 빈센트 왕자는 어렸다. 한창이나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나이이면서도 누이에게 예쁨을 받고 자랄 나이. 그 모습이 어쩐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빈센트 왕자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많이 서운하십니까?”

그러자 빈센트는 크게 도리질을 하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서운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저 누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을 뿐이네. 그리고 내 용서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그럼 분명, 나를 많이 좋아해주시진 않으시더라도 누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또, 내가 힘을 내서 누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게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용기가 나질 않아.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누님께서는 여전히 날 차갑게 보시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막상 누님의 궁전 앞에 가면 있던 용기도 숨어버려.”

툭 건들기라도 하면 그대로 그 맑은 눈동자에서 눈물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속에서 끙끙 앓는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 이상, 속에서 곪기만 할 뿐, 더 나아가 관계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루드비카는 문득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책을 보았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의 때를 탔는지 책의 표면에는 살짝 누렇게 가죽이 변질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던 루드비카는 이내, 그것을 빈센트 왕자의 앞으로 내밀어 부드럽게 미소를 그렸다.

“이 책을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님께?”

“예, 하지만 혼자서 가는 것보단, 역시 누군가 곁에 있어야 더욱 용기가 나는 법이지요. 제가 왕자전하의 곁에 있을 테니 부딪쳐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말하세요. 그럼, 헤르세인 왕녀전하는 알아주실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누님께서 내 용서를 받아주실까?”

“예, 왕자전하.”

그것을 어찌 믿는지 보단,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눈으로 빈센트가 루드비카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라인하르트 공자는 어떻게 그리 확신할 수가 있어?”

“표현을 하는 것에 서투실 뿐이지, 누구보다 마음은 굉장히 여리신 분 이시니까요.”

“공자는 대체…….”

빈센트의 푸른 눈은 처음으로 파문이 일었다. 이 아름다운 공자는 대체 어떤 이이고, 누이의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 그리고 누이를 언급할 때마다 부드럽게 휘는 호박 빛의 눈동자는 마치, 차가운 달을 따뜻이 품는 태양처럼 그 따뜻한 온기가 넘실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당연히 루드비카가 자신이 부탁한 책을 가져왔으리라 생각하며 아무의심 없이 문을 열었지만, 그의 옆에 있는 작은 금발머리가 눈에 보이자 헤르세인의 얼굴은 단번에 일그러졌다.

“네가 여기엔 무슨 일이지.”

어째서 빈센트가 이곳이 있을까. 거기다 무슨 연유인지 빈센트는 서릿발 같은 헤르세인의 눈과 마주치자 어깨를 움찔거리곤 루드비카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기가 막혀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여전히 그녀의 싸늘함에 잔뜩 기가 죽었는지 빈센트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말았다.

“제가 왕자전하를 모셔왔습니다.”

“…뭐라고?”

헤르세인은 도무지 모르겠단 표정으로 루드비카를 노려보듯 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책을 부탁했더니, 부탁한 책은 어디로 갔는지 원하지도 않은 빈센트가 이곳에 있었다. 그것도 루드비카가 직접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헤르세인의 눈은 복잡하면서도 작은 원망이 뒤섞여야만 했다.

“빈센트 왕자전하께서는 아가씨를 무척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셨지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사이, 두 사람은 과연 무슨 말을 주고받은 걸까. 거기다, 루드비카는 이미 빈센트를 향한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뭘까, 이 기분은. 이상하게 속이 뱀처럼 뒤틀리고 꼬이면서도 벌써부터 저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옷자락을 생명줄 마냥 꽉 잡고 있는 빈센트의 모습을 볼 때면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헤르세인은 작게 아랫입술을 깨물다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이내 등을 돌렸다.

“난 저 아이와 할 말 따위 없어,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 돌아가라 해.”

하지만 그렇게 싸늘히 대답했음에도 루드비카는 무슨 생각인지, 오히려 물러나지 않게 다는 의지를 보였다.

“빈센트 왕자전하께서는 아가씨께 냉대를 당할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니, 빈센트 왕자전하의 용기를 생각하셔서라도 말씀만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가씨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피하지 말아주세요.”

“…….”

그가 저렇게까지 대답하리라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피하지 말아달라니. 루드비카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빈센트를 볼 때면 어떤 감정이 솟아나는지. 어떤 기분인지…. 머리와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정작, 간절히 자신에게 청하는 루드비카의 간절한 눈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결국 이겨낼 수 없었다.

적막이 감도는 실내의 내부.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테이블 위로 다과나 차를 마시기 위한 찻잔은 없었지만 현재의 상황으론 여유롭게 차를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다. 곧은 자세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빈센트의 말을 기다리는 헤르세인. 풀 죽은 강아지마냥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기 망설이는 빈센트. 루드비카는 두 사람을 위해 이 장소를 빠져 나간 지 오래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궁전에는 한창 시녀들이나 하녀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이라 안심이 되었지만,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기에 헤르세인은 조금 서둘러 재촉했다.

“어서 말해. 내게 무엇을 꼭 전하고 싶은지. 그걸 전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지 않았니?”

친부의 피는 다를 지언정,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이기도 했다. 그러나 빈센트를 왕비처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헤르세인은 더욱 딱딱한 어투로 타인처럼 빈센트를 대했다. 그 딱딱함에 빈센트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내 씩씩한 얼굴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실은 누님께 그때의 일을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눈치 없이 누님께서 소중히 아끼신 마카롱을 제멋대로 먹으려 했으니까요….”

“…….”

헤르세인은 빈센트를 처음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때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게 찾아와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던 왕비의 핏줄. 그리고 똑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부터가 다른 고귀하디 고귀한 왕자. 그때의 일이 워낙 인상이 깊어서일까. 눈치 없고 순진무구한 왕자라 생각하여 그때의 일 따윈 금세 잊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그 일은 덕분에 강하게 기억에 남았지만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기까지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빈센트 덕분에 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헤르세인은 잇새 사이로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난 그 마카롱을 그렇게 아끼지도 않았어. 어차피 먹으면 뱃속으로 들어갈 거,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아껴야 했는데? 아니, 설사 아낀다 해도 이제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용서를 받고 싶다 했던가? 그래, 용서해주지. 그러니 이만 돌아가 줬으면 하구나.”

더 이상, 빈센트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빈센트가 다급한 얼굴을 하며 크게 외쳤다.

“누님!”

그 다급함이 어린 모습에 빈센트의 시선을 외면하던 얼굴을 다시 돌려 헤르세인은 똑바로 그 얼굴을 마주했다. 처음에는 똑바로 마주한 헤르세인의 시선에 당황스러웠는지 빈센트는 잠깐 움찔했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이번엔 그 때의 일이 아닌, 자신이 느낀 감정 그대로 하나 뿐인 누이에게 물었다.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님께선 제가… 싫으… 십니까?”

헤르세인은 그 한 순간도 빈센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만해도 때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눈동자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동자 위로 비치는 빈센트의 눈동자는 그때와 막연히 달랐다. 파문처럼 흔들리는 푸른 눈동자는 어딘가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깊은 심연에는 또 다른 외로움이 잔잔히 퍼져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보다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난 왕자일터. 거기다 귀하게 자라 세상물정하나 모를, 외로움이나 상처 따위 모를 왕자일 텐데, 왜 그런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일까. 그 푸른 눈에 넘실거리는 파문에 헤르세인은 자신의 깊은 곳 속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챘다.

‘흔들리지 마, 아무리 불쌍해보여도 결국은 왕자. 왕비의 하나 뿐인 고귀한 핏줄이니까.’

자신을 빤히 본 채, 긴장을 했는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을 기다리는 빈센트의 모습이 비쳤다. 헤르세인은 차분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켰다. 그리고 상대방이 뻘줌 할 정도로 평이한 목소리로 그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래, 난 네가 싫어.”

“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유?”

분명 직설적으로 대놓고 싫다고 말했음에도 어째서인지 빈센트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물론, 싫다는 그 대답에 한순간 상처받은 눈이 되어 크게 흔들렸지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빈센트는 그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이유를 말한다 해도 오히려 너만 큰 손해일 텐데, 그럼에도 내 이유를 듣고 싶다?”

“네.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냥’이란 이유는 없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이유가 있으니 싫다라….”

왕비가 왜 그런 말을 빈센트에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틀린 말은 없었다. 이유가 있기에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왕비는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그녀의 치부이자 국왕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님, 그저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덜컥 가져버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토록 싫어하는 걸까? 그렇다면 말이 됐다. 자신은 원치 않은 존재였기에 왕비는 여태까지 자신을 슬럼가에 내버려둔 것이었다. 찾지도, 원하지도, 그저 치부이게 모른 척 하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자 헤르세인은 어쩐지 한결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왕비에게 있어 버려진 자식이기 때문일까, 자신조차 왕비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정당한 몸. 그저 왕비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져버리고 이 답답한 왕성에서 내쫓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이유가 있으니 싫은 감정이 생긴다고 했니? 그래, 난 네가 싫다, 빈센트. 태어나자마자 슬럼가에 버려져 부모가 누군지 조차 모른 채, 자라난 나와는 다르게 너는 태어난 순간, 어엿한 부모가 있는 것은 물론, 그 고귀한 핏줄 덕분에 왕성에서 유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으니까.”

“누님….”

“너는 늘 손끝으로만 명령하면 모든지 다 먹고 원하는 것을 입고 그리 자랐겠지. 특히나 왕자라 태어났으니 더욱 그랬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너와는 다르게 난 하루하루를 어떻게 굶주림 속에서 살아나야할지 매순간이 지옥이었고 옷조차 거리에 굴러다니는 넝마조각을 겹겹이 껴입어야 그나마 시체 같은 몰골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처음 네가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있니? 아니, 모르겠지. 너는 나와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

“이 아이는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이 아이는 왜 나와는 다르게 태어났을까, 이 아이는 왜 모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을까, 이 아이는 왜 나도 부르지 못한 어머니란 단어를 쉽게 부를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왜, 왜…! 왜 하필 나의 동생인 걸까. 미치도록 질투가 날 만큼…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를.”

테이블 밑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알아듣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이 어리석은 왕자는 그야말로 바보천치임이 틀림없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향한 감정이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예상을 깨고 빈센트는 너무도 바보처럼 해맑게 웃었다. 마치, 그를 떠올리게 하듯.

“아무리 누님께서 저를 그토록 싫어하셔도, 저는 말이지요, 누님. 그래도 누님이 좋습니다.”

바보인건가? 아님 멍청한 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빈센트는 여유롭게 웃기까지 하며 자신을 향한 감정이 바뀌지 않음을 전했다.

“어째서… 어째서 내가 좋다는 거야? 설마, 네가 날 동정하기라도 하는 거니?”

헤르세인의 날이 선 물음에 빈센트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절대로 아님을 부정했다.

“아니요. 제가 어찌 누님을 동정하겠어요? 저는 누님의 말처럼 왕성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국왕폐하의 예쁨을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 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게 됐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신 누님을 제가 어찌 감히, 동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저는 말이지요, 줄곧 제 형제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형님이신 왕태자전하와 누님이신 케시아 왕녀전하, 두 분을 볼 때면 늘 부러웠거든요. 비록 어머니를 다를지라도 저 역시 두 분의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그 차이는 많이 틀리니까요. 두 분은 왕후폐하의 핏줄이시고, 저는 왕비전하이신 어머니의 핏줄. 누님이 듣기엔 복에 겨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국왕폐하께서는 언제나 어머니만 바라보시고 어머니만 총애하시기에 왕후폐하의 세력인 귀족들은 늘 저를 못 마땅히 여겼거든요.”

“……”

“그리고 왕후폐하에게 갈 총애를 어머니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왕태자전하께서도 저를 그리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케시아 왕녀전하도 마찬가지로…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누님이 생겼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피는 서로 다를지라도 누님과 저는 어머니의 피가 이어져있으니까요. 또, 누님을 처음 뵈었을 때, 더욱 기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님은 어여쁘셨고 저희가 남매인 걸 증명하듯 누님께선 어머니를 많이 닮으시고 저와 같은 푸른 눈동자를 지니고 계셨으니까요.”

헤르세인에게 있어 빈센트의 존재는 질투이자 동시에 부러움이었다. 자신이 같지 못한 것을 빈센트가 가지고 있기에 질투했고, 자신이 없는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에 부러웠다. 그래서 더욱, 빈센트를 볼 때면 그 응어리가 커져, 그것은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이 어린왕자는 처음부터 줄곧 자신을 누이로 봐준 것이었다. 질투도 부러움조차 없는 줄곧 동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제 자신이 이 순수한 아이를 독하고 모질게 밀어내며 질투하는 악독한 악녀처럼 보였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 자신은 이토록 어린아이마냥 감정이 뒤죽박죽인데 빈센트는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어른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창피했다. 이 아이는 그저 순수하게 자신을 봐주고 있을 뿐인데 정작 스스로는 그때의 일을 잊은 것 마냥 아무렇지 않은 척, 어른 흉내를 냈을 뿐 이라니.

어쩐지 입 안이 쓰디썼다.

“누님께서 아무리 저를 싫어하셔도 그래도 언젠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님, 저는 누님이 너무 좋습니다.”

헤르세인은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조용히 입을 꾹 다문 자신의 모습에 빈센트는 그 어떤 말도 없이 돌아가겠다는 그 다정한 한마디만을 남기고서 자리를 떠났다.

“…….”

오한도 싸늘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홀로 침실에 남은 헤르세인은 빈센트가 나갔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발걸음에 그도, 돌아갔으리라 생각했다.

째깍― 째깍―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의 풍경만을 바라보길 얼마나 지났을까. 똑똑, 하고 다시금 울리는 노크소리에 헤르세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고 있었다. 시선은 창밖에 머물고 있음에도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알아채고 있었다. 단지, 시녀인지 하녀인지 모를 그녀들을 볼 여유가 없을 뿐. 또각, 또각 구두 굽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어느덧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시녀나 하녀 둘 중 하나일거라 생각한 헤르세인은 익숙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시선을 맞췄다.

“아가씨, 뭘 그리 생각하고 계세요?”

“…당신,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아가씨께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갈 리가 있을까요?”

그럼 여태까지 바깥에서 무얼 하고 왔냐는 얼굴을 하며,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눈을 깜박였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나긋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앞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건…….”

처음에는 그 무언가 너무 눈앞에 있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눈동자를 움직여 전체를 살피니 헤르세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못할 파스텔 톤의 분홍빛의 포장지. 그리고 이번엔 예쁜 땡땡이 무늬로 장식된 빨간 리본을 본 순간, 헤르세인은 눈알을 빨리 굴려 루드비카를 쳐다보았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그녀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빈손을 이끌어 그 위로 잘 포장된 마카롱을 내려놓고서 깜짝 선물임을 알렸다.

“아가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선물…?”

“네, 빈센트 왕자전하께 들었어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로 잘 보관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그건─!”

설마, 자신도 모를 사이 빈센트와 루드비카는 그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었나? 그러나 한편으론 얼굴에 확 열기가 오를 만큼 부끄러우면서도 헤르세인은 선뜻 그 마카롱을 볼 수가 없었다. 처음 그에게 받았던 선물이자, 결국 제 손으로 짓뭉개어 버려버린 처참하던 기억. 이 선물을 또 받으면 마치, 그때의 일을 다시 반복할 것 같아 헤르세인은 다시 그의 손에 마카롱을 넘겨버렸다.

“필요 없어. 가져가.”

분명, 그의 손에 다시 넘겨줬음에도 오히려 루드비카는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다시 그녀의 손에 마카롱을 건네주었다.

“혹시, 아가씨의 손에 망가질까봐 겁이 나는 건가요?”

그가 조금이라도 눈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토록 빨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그가 조금은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더욱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내 손에 있으면 또, 망가지거나 버려질지도 몰라. 아니, 이번엔 내 발에 짓뭉개질지도 몰라. 그러니 가져가. 그리고 내 입은 싸구려라서 이렇게 비싼 과자는 못 먹어.”

“흐음, 그런가요? 그때는 잘만 드셨으면서.”

능청스럽게 약 올리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홱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제야 눈이 마주친 것에 기뻤는지 루드비카는 오히려 빙그레 웃고는 그녀의 손에 두 번 다시 마카롱이 떠나질 않도록 품에 안겨주었다.

“이거는 저의 단순한 선물에 불과해요. 아가씨가 언제든 원하면 선물이 아니더라도 늘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이 마카롱을 그렇게 아낄 만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요? 그때는 일부로 모른척했지만, 아가씨가 그 마카롱을 먹고 얼마나 또 먹고 싶어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루드비카는 살짝 허리를 숙여 헤르세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감사해요, 고작 마카롱일 뿐임에도 제가 준 선물을 소중히 갖고 계셔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마카롱임에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주시는 분은 아가씨… 아니 헤세 밖에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헤세.”

나지막이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어쩐지 악마가 속삭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울림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정신을 아득하게 자극하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점점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고동소리가 어서 빨리 진정되길 바라고 또, 바라야 했다.

땀이 날 정도의 무더운 계절은 없지만, 사브레 왕국. 특히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귀족들이 대거 있는 대도시인 수도 르네는 어느덧 붉은 가을이란 계절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슬럼가보단 춥지도, 한파를 느낄 사이도 없는 이곳 왕성에서 헤르세인은 조금은 스산해진 계절의 날씨를 그 누구보다 일찍 느끼고 있었다.

팔랑이며 붉은 물에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실려 왔는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그녀의 앞에 붉은 단풍잎이 가지런히 내려앉았다. 희한하게도 책 사이의 틈에 내려앉은 단풍잎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단풍잎을 들어, 살짝 손장난을 치듯 좌우로 움직였다.

마치 어린사내아이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팽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저 손가락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팽그르르 도는 나뭇잎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신기하면서도 푸르던 잎사귀가 이토록 붉게 변하니 이곳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제멋대로 자신의 눈앞에 착지한 붉은 단풍잎. 어쩐지 창밖으로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아, 헤르세인은 책갈피처럼 다시 책 사이에 끼어 책을 읽는 것에 집중했다. 현재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왕국에 관련된 역사학도, 사회학도 아닌, 다양한 꽃의 종자가 적힌 백과사전. 의외로 그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꽃보다 그 종자는 다양한지, 아무리 종이를 넘겨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꽃에 관해 깊이 파기보단 그저 어떤 꽃이 있는지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생김새를 지녔는지 헤르세인은 그 호기심으로 책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책장을 넘기다 익숙한 꽃의 이름이 몇 개쯤 지났을 때, 다음 책장을 넘기던 헤르세인의 눈에 특이한 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망각의 꽃….”

장미나 튤립처럼 어여쁜 이름을 가진 꽃이 아닌, 명사가 붙은 꽃의 이름이었다. 또, 이름의 옆에는 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부르는 명칭이 있는지 ‘레테의 꽃’이라고 적혀있는 글을 볼 수 있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헤르세인은 이 꽃의 이름이 은근 마음에 들어 다른 꽃들을 대충 봤던 시선을 버리고, 조금 집중을 하여 망각의 꽃의 대한 글을 읽기 시작했다.

『망각의 꽃 – 학명 레테의 꽃

식물과

원산지 - ???

특징

원산은 알 수 없으며,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꽃이 피는지에 대해 확인 된 바가 없음.

정보에 따르면, 꽃의 길이는 대략 5~7cm 사이이며, 빛이 투영한 바다처럼 투명한 푸른빛을 뽐내는 꽃잎 색을 가졌다. (이것도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 있음) 성분에 관한 것에 확인 된 것이 없으며, 발견자체가 어려운 꽃이라 자세한 연구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전설

고대신화의 기록에 따르면 망각의 꽃은 생명과 땅의 신인 아르테가르 가, 한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신비의 꽃. 열렬히 아르테가르를 섬기던 평범한 인간이자, 신을 사랑한 인간 레테. 그러나 신은 함부로 인간의 앞에 나설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을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은 어미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과 같기에 아르테가르는 자신을 사랑한 레테의 앞에 다른 인간들처럼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고 좌절한 레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으며,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던 아르테가르는 눈물을 흘린 채, 그의 시체를 하나의 꽃으로 탄생시켰다. 그 꽃이 바로, 레테의 꽃.

학자들의 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꽃을 레테의 꽃이라 부르지만, 망각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꽃에 관한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실제 사람들의 제보로 정보로 얻어 토대로 만들어진 이유 때문이다. 이 꽃을 발견한 사람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원인 불명의 기억을 잃었으며, 대다수가 꽃을 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정도의 정보를 알기까지 원인 불명의 기억을 잃은 그들의 보호자들이 얘기해준 기록들이며, 그들에게서 한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자신에게 겪어지는 불운과, 좌절 그리고 절망과, 원망, 그리움, 이별. 기억을 잃은 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감정들이자, 꽃은 왜 그런 감정을 가진 자들 앞에 특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워낙 미스터리한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선 어느새 부턴가 정말로 실존하는 꽃인지에 대해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하다.』

“뭔가 어려운 꽃이네.”

다른 꽃들처럼 정보가 워낙 없는 탓인지 일반적인 꽃들의 자료에 비해, 그녀가 읽은 망각의 꽃의 자료는 한 페이지가 전부였다. 덤으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림조차 그려져 있지 않아 헤르세인은 망각의 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다. 결국, 너무 얘기가 어려운 것 같아 헤르세인은 다음 장을 넘기려던 찰나였다.

똑똑똑.

노크를 두드리는 소리에 책에 시선이 가있던 헤르세인의 눈동자는 금방 문 쪽으로 향했다. 벌써 노을이 지는 시간. 루드비카는 이미 돌아간 지 오래였다. 아침부터 무슨 일인지, 일찍 찾아와 집안 문제로 이곳에 오래있을 수 없다는 이유와 미안함을 가득담은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는 훨씬 이른 시간에 돌아가고 없었다. 덕분에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된 헤르세인은 조용히 독서를 지금까지 즐기고 있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왕비전하께서 납시셨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여기까지. 왕비의 등장에 헤르세인은 두꺼운 백과사전을 고이 덮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으로 모셔라.”

요즘은 무슨 이유인지, 왕비는 전처럼 무턱대고 헤르세인의 침실에 덜컥 들어오지 않았다. 차츰, 왕성에 머물며 왕비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줘서인지 아님, 왕실 예법이 몸에 익어, 왕비의 마음에 그나마 들었는지, 왕비는 헤르세인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헤르세인은 나름 그 점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래도 왕비와 마주하는 건 썩 좋지는 않았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헤르세인이 테이블가까이 서있자, 곧이어 문이 열리면서 왕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가벼운 드레스차림과 어깨에 숄을 덮고 있는 왕비의 모습에 헤르세인의 눈썹은 잠시 꿈틀거렸지만, 이내 말짱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여유롭게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즐길 수 있는 거라곤 책을 읽는 게 고작이니까요.”

왕비의 시선이 잠시 동안, 헤르세인이 두 손에 들고 있는 두꺼운 책에 향했다.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깊게 파고들 생각이 없던 왕비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곤 시녀가 끌어주는 의자에 앉아 자리에 착석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헤르세인까지 자리에 앉자, 차를 올릴까하는 시녀의 목소리에 왕비는 손으로 물러가란 표시를 건넸다.

“차는 되었으니, 너는 물러가 있거라.”

“예, 왕비전하.”

시녀가 발소리 없이 조용히 바깥으로 물러나자, 실내는 순식간의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서늘함이 이제는 면역이 되었는지 익숙해진 헤르세인은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왕비가 이곳에 온 목적을 물었다.

“제게 중요한 말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이제는 제법 눈치가 있는 것 같구나. 좋다, 빨리 말하는 편이 너에게도 좋겠지. 조만간 수확제가 열린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수확제. 사브레 왕국에서 1년에 한번, 농작물의 풍작을 위한 의식을 치루는 기간이자 일반 평민들에겐 축제나 다름없는 기념의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과는 관련도 없는 수확제를 왜 왕비가 언급하는지 조용히 생각하던 헤르세인은 왕비의 다음 말에 살짝 미간이 움찔거렸다.

“수확제는 평민들에게 있어, 큰 축제이기도 하지만, 왕가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의식을 치루는 기간이기도 하지. 그래서 조만간 폐하께선 신성한 의식을 치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수확제가 시작되는 삼 일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다. 또한, 왕후폐하는 물론, 왕태자 전하와 왕태자비 전하 1왕녀인 케시아 왕녀전하, 또 빈센트와 나 역시, 폐하의 뒤를 따라 교황께서 계신 하늘의 신전에 가게 될 것이다.”

헤르세인은 왕비가 쏟아낸 말 중,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왕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채자 오히려 헤르세인의 마음은 한결 편해진 후였다.

“한 마디로, 저는 얌전히 이곳에 있으란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라나서 신전에 처박힌 채, 기도를 하는 것보단 얌전히 궁 안에 있는 편히 헤르세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다. 왕비는 그런 헤르세인의 모습에 조용히 응시하다가, 의외의 대답을 꺼냈다.

“혹, 따라갈 생각이 있느냐?”

“예?”

처음에는 왕비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헤르세인은 작게 미간을 좁혔지만, 이내 표정을 풀어 작은 숨을 토해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 자리에 끼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왕녀가 그들 사이에 낀다? 만약, 그 자리에 낀 순간 모두의 이목을 주목받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할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말도 안 된다는 눈을 하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어째서 그런 말을 제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 그렇게 눈치가 없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이름뿐인 왕녀이자, 사생아, 그리고 왕비전하의 치부인 왕녀입니다. 그런 제가 그곳에 따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생각해주시어 일부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말만으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마. 애초에 예의상 물어본 것이긴 하나, 네가 그런 식으로 대답할지는 몰랐구나.”

왕비는 약간 의외인 눈을 했을 뿐, 어느새 왕비의 표정은 차분하게 돌아와 있었다. 왕비는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 다시 몸을 곧게 피고는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이번 수확제는 왕실 일원뿐만이 아닌, 폐하께서 선정한 고위 귀족들과 그들의 자제까지 신전에 머물게 될 거다.”

“고위 귀족들이라면….”

“라인하르트 가문과 버키니엄 가문, 그리고 그레이스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선정 되었다.”

“라인하르트….”

그래서 그가 아침 일찍 실례를 무릎 쓰고 찾아와 잔뜩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간 걸까. 그가 당분간은 이곳에 못 온다는 것을 생각하니, 조금은 섭섭하면서도 그가 없는 조용한 이곳을 생각하니 기분이 뒤숭숭했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왕비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전, 헤르세인에게 당부했다.

“네가 무슨 일을 벌 일거라 생각되지는 않으나, 혹시라도 모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럴 생각입니다.”

왕비는 모든 할 말을 마쳤는지 자리를 뜨고자 조용히 구두를 밟으며 움직였다. 왕비의 구두 소리를 들었는지 굳게 닫혀있던 문이 하녀들의 손에 저절로 열리며 왕비가 나오길 기다리자, 왕비는 완전히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곤 살짝 고개를 틀어 헤르세인을 불렀다.

“그러고 보니 그날, 어딜 갔던 것이었느냐. 전언을 보낸 내 시녀의 말로는 그날, 네가 궁에 없었다 하던데….”

설마, 그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헤르세인은 왕비가 그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깜박 잊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왕비가 무슨 이유로 그때의 일을 언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사실. 헤르세인은 재빨리 그럴듯한 거짓말로 태연히 왕비의 물음에 대답했다.

“잠시, 바람을 쐬러 근처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래?”

왕비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히려 헤르세인이 약간 궁금할 정도였다. 시녀에게 전언을 보냈으면 보통 전언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나중을 생각해 다시 오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왕비는 그날 이후로 다시 시녀를 통해 전언을 보내지 않았다.

“혹시, 중요한 말이었습니까?”

헤르세인은 평범히, 평이한 목소리로 왕비에게 물었다. 그 전언은 과연 중요한 것인지. 그러나 왕비는 몇 초 정도 침묵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네가 그때 자리에 없어 궁금했던 것뿐이니. 그리고 부디, 내가 말한 그 당부를 잊지 않길 바라며 이만 난 가보도록 하마.”

왕비는 미련 없이 자리를 벗어나 어느새 헤르세인의 시야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완벽히 바깥의 풍경이 차단된 굳게 닫힌 실내의 문. 헤르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조용히 의자를 끌어 제자리에 앉은 헤르세인은 다시금 꽃들이 가득한 백과사전을 펼쳤지만, 왕비가 다녀간 후라서 그런지 글씨는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아, 붉게 노을 진 하늘로 시선을 고요히 묻은 뒤였다.

수확제는 눈 깜짝할 사이 다가왔다. 수확제를 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왕실의 일원 모두가 왕성을 비웠으며, 교대로 왕성의 경호를 근무하는 기사들과 병사들 그리고 하녀들을 빼곤, 남아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

헤르세인은 가만히 창가에 앉아 바깥의 풍경을 응시했다. 나무들이 우거진 숲 너머, 저 멀리 있는 알록달록한 도시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잘 보였다. 신성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신전으로 떠난 왕실 일가와는 달리, 바깥의 평민들에게 있어 수확제는 큰 축제인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큰 나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한창 즐기며 축제를 만끽하는 기간. 그러나 헤르세인만은 그들처럼 즐길 수도, 볼 수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신의 궁전에 틀어박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것 뿐. 그것이 전부였다. 더불어 국왕의 선정으로 고위 귀족인 라인하르트 가문까지 따라가게 되면서 헤르세인은 당분간 루드비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지금쯤이면 신전에 도착 했을까.”

신전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오전과 오후 경계 사이의 시간. 헤르세인은 어제 잠깐 얼굴을 비추던 루드비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가씨,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가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네요."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라기 보단, 가문의 일로 올 수가 없어서요. 제가 며칠 오지 못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는 자신의 부재를 기어코 알리고자 일찍 찾아왔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하나 싶었지만 그의 미안함이 담긴 얼굴이 확 드러나자 헤르세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응."

"미안해요, 아가씨. 정말로. 하지만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안한 얼굴을 할 정도로 가문의 중요한 일이 있나 생각했지만, 헤르세인은 그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왕비가 수확제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 나서야 루드비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냥 솔직히 말했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헤르세인은 문득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이상해졌는지 거세게 도리질을 쳤다. 요즘 들어 자꾸 의식이 되는지 루드비카를 떠올릴 때면 이상하게 심장이 요동을 쳤다. 마치, 심장에 이상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아닌, 루드비카를 떠올릴 때면 심장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또 시작이야….”

고요하면서도 귀를 기울여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작게 요동치는 소리가 헤르세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심장을 통해 열이 끓기라도 하는지 손끝에서부터 얼굴로 조금씩 퍼지는 작은 열기에 헤르세인은 끝내 단정 지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몸에서 생긴 이상신호임을. 그렇지 않고서야 루드비카만 떠올렸다하면 왜 심장이 이렇게까지 두근거리고 열이 솟는단 말인가.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증상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루드비카에게는. 어쩌면 일시적인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얘기해봤자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헤르세인은 당분간 자신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고자 했다.

어느덧 열기가 가시고 심장의 두근거림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헤르세인은 평범히 숨을 뱉으며 무릎위에 펼쳐진 작은 글씨에 눈동자를 움직였다.

“하아, 집중이 하나도 안 돼.”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책이 질리기 까지 했다. 도대체 왕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만 해도 몇 권이던가. 처음에는 그저 글을 빨리 익히기 위해 어린아이가 읽을 법한 동화책에 첫 도전을 했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아닌, 왕실의 역사와 대륙의 신화 또는 사회학 같은 어려운 글들의 책이었다. 이런 것들을 읽는다하여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헤르세인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책이 고작이었다.

이러다가 왕실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전부 정독하는 게 아닐까 싶어 헤르세인은 책을 덮고서 옆으로 치워 턱을 괸 채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 가을의 옷을 입은 숲과 공중으로 흩어지는 살짝 차가운 바람. 더할 나위 없는 가을 날씨이자 슬럼가에선 상상도 못할 정반대의 날씨이기도 했다.

“지금 날씨라면 슬럼가는 벌써 한겨울 날씨이겠지.”

슬럼가의 날씨는 수도의 날씨와는 너무도 달랐다. 아직은 이곳에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변화의 기후는 그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다. 태양이 잘 스며들고 언제나 빛이 가득한 수도의 날씨는 뚜렷한 무더위는 없지만, 적당한 따뜻함과 적당한 추위를 가진 지역이었다. 하지만 슬럼가의 날씨는 이뤄말 할 수 없을 만큼 날씨가 변덕스러우며 언제나 빛이 없는 곳이기에 따뜻함 따윈 느낄 수조차 없는 스산한 곳이었다. 특히나 겨울이 오면, 매서운 한파는 물론 허벅지까지 쌓이는 시려 운 눈 더미에 슬럼가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혹독한 곳에 그녀는 18년이란 시간 속에 자라났고, 독하게 견디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의 상황. 몸이 이곳의 따뜻한 기후에 벌써 적응이라도 한 것처럼 살짝 추운 날씨임에도 어쩐지 헤르세인의 피부는 잘게 떨고 있었다.

“만약, 슬럼가에 있었더라면 이런 추위는 별것도 아니었을 텐데.”

슬럼가의 치열하던 생활을 했음에도 어쩐지 그때의 생활이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것이 모순이라 했던가. 그 지옥 같던 생활을 겪었음에도 그립다는 생각이 들다니. 어쩌면 너무도 평화로운 이곳의 생활이 머리와 몸과 자극을 바라는 건지도 몰랐다.

루드비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후로, 헤르세인은 왕비에 대한 복수를 접어버렸다. 복수를 한다 해도 오히려 인형마냥 반응조차 없을 왕비의 모습에 떠올라, 차라리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면 했지 이제는 왕비를 향해 이를 갈며 무언가를 하고 싶단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쩌면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친 감정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루드비카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예전보다 누그러트리게 바꾸어줬을 뿐. 왕비가 여전히 자신을 치부로 생각하듯, 자신 역시 왕비를 생모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허물어질 수 없는 단단한 벽이나 마찬가지였다.

멍하니 생각에 잠겨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던 헤르세인은 어느덧 자신의 머리칼을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으로 인해, 머리가 약간 헝클어지고 말았다. 그 장난기 어린 바람이 이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순식간에 잠잠해지자, 헤르세인은 대충 손을 움직여 헝클어진 남색 머리칼을 정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쩐지 멍하니 창밖만 보다간 바보라도 되어버릴 것 같아, 헤르세인은 몸을 움직일 겸, 아무도 없는 자신의 궁전을 돌아보고자 했다.

국왕의 선정으로, 고위 귀족인 세 가문이 이번 수확제를 위한 기도에 참여를 하게 됐다. 특히나 국왕이 노골적으로 왕당파인 라인하르트 가문을 지목했을 때, 귀족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작은 불만이 전부였다. 그만큼 라인하르트 가문의 힘 아니, 라인하르트 후작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라인하르트 가문을 빼면 그나마 정당성 있게 선정된 두 가문이 뽑히게 되면서, 신전으로 향하는 마차의 행렬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마찻길을 지날 때마다 그 자태는 어마어마했다.

작게 흔들리는 마차의 안에서 루드비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채, 바깥의 풍경만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마차 안에는 후작이 아닌, 클로드가 함께 앉아있기에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에 잔소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일이구나, 네가 그런 표정을 다 짓고.”

“그야, 제가 따라갈 필요가 없음에도 억지로 동행한 자리가 아닙니까.”

루드비카는 턱을 괴고 있던 손을 내려 이번엔 좀 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자 팔짱을 꼈다. 언뜻 보면 고고한 귀족가의 공자가 거만해 보이는 자세를 취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클로드의 눈에는 그저 불만이 가득한 루드비카의 모습임을 알기에 작게 한숨을 쉬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 해도, 국왕폐하께서 명하신 일이다. 우리 뿐 만이 아닌, 선정된 다른 가문의 식솔들도 이 행렬에 속해 있는 이상, 그런 불만어린 표정은 그만두는 편이 좋겠구나.”

“좋습니다. 형님께서 그리 말하시니 원하시는 대로 가면을 써서라도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 형님뿐만이 아닌 후작각하께서도 불만이 없으실 테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표정변화가 없던 루드비카가 정말로 가면을 쓴 것처럼 생긋 웃자, 클로드는 어쩐지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가면을 써서라도 웃는 편이 낫겠다, 생각한 클로드는 작게 혀를 차며 화제를 돌렸다.

“아직도 그 여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것이냐?”

클로드가 무슨 생각으로 그녀를 언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의 눈썹은 이미 꿈틀거린 후였다. 원하는 대로 웃고 있어줌에도 입꼬리가 오늘따라 경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포커페이스로 돌아온 루드비카는 진하게 입 꼬리를 말아 올렸다.

“관계를 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곁에 있고 싶어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결국, 너의 자만심으로 그 여인이 다치겠지.”

결국 다치는 것은 이름 모를 여인 그녀 뿐 일 텐데, 루드비카의 고집은 꺾일 생각이 없어보였다. 무엇이 그토록 루드비카를 빠지게 만들었는지 클로드는 알지 못했다. 또한 알고 싶지 않았다. 귀족에게 있어 사랑 따윈 사치일 뿐. 클로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자신과 반대될 만 큼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한지, 클로드는 오히려 웃고 있음에도 싸늘하게 눈을 빛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본 순간,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의 손끝하나 건들지 못할게 만들 것이고 설령 그것이 후작각하라 해도 제가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 가문을 등질 정도로, 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단단히 콩깍지가 쓰인 루드비카가 이젠 걱정되기까지 했다. 클로드는 저도 모르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비난어린 어투로 루드비카를 향해 대답하고 말았다.

“가문에서 내 쫓기고 싶은 생각이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형님처럼 ‘적자’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클로드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고작 이름 모를 여인 하나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도 상관없다는 투의 어리석은 동생의 모습. 그리고 ‘적자’란 말까지 언급하며 여유롭게 받아치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클로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에겐 여전히 하나 뿐인 동생이지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동생. 아무래도 화제를 잘못 돌린 것도 크지만, 이 이야기를 제 아버지가 들었다간 큰일 날 소리였다.

그때, 잘 가고 있던 마차가 멈췄는지, 덜커덩 소리를 내며 호위를 하던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클로드님, 루드비카님, 하늘의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을 끝으로 곧이어 마차의 문이 열렸다. 도시와는 다른 신전의 풍경이 눈에 보이면서 특유의 조용함이 클로드와 루드비카의 기분을 한층 차분하게 만들었다. 흘긋, 루드비카를 보던 클로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마차 바깥으로 나갔으며, 뒤를 이어 루드비카가 클로드의 뒤를 따랐다.

마차 바깥으로 완전히 내려오자 루드비카의 눈에 신전의 풍경들이 펼쳐졌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의 풍경은 마치, 이름 그대로 하늘을 상징하듯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건축물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자연을 벗 삼아, 신전 주변에는 작은 숲과 호수가 있는 것은 물론 신관들의 손을 탄 작은 초식 동물들이 간간히 눈에 보이고 있었다.

당분간 이곳, 신전에서 수확제의 풍작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 무려 3일간 있어야 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그러나 그 3일 동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곳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루드비카는 어쩐지 힘도 의욕도 나지 않았다.

‘…아가씨.’

벌써부터 그녀가 그리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늘의 신전에 도착한 왕실 일가와 귀족들은 신관과 사제들의 안내를 받아 배정된 독방에 머물게 됐으며, 신전의 특성상 그 누가 좋은 독방을 배정받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신전의 규칙은 모두가 평등해야하며 타인을 헤치거나 금전의 거래 같은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왕실 일가와 선정된 귀족들 모두가 금품을 챙겨올 수 없었다.

수녀의 안내를 받고서 독방을 배정받은 케시아는 전속시녀인 루네즈만을 유일하게 데리고 대동해 현재 조용한 복도를 걷고 있는 중이었다. 얼마나 쯤 걸었을까. 드디어 수녀가 자리에서 멈춰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독방으로 보이는 문을 열고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가, 3일간 케시아 왕녀전하께서 묵으실 독방이십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책상위에 종이가 있으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필품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해 뒀으니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종이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내 전속시녀가 묵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근처의 작은 독방에서 묵으실 것입니다. 또, 물어보실 것이 있으신지요?”

수녀가 차분한 음성으로 케시아의 목소리를 기다리자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케시아는 이내 눈을 살짝 빛내며 귀족들이 묻는 처소의 위치를 물었다.

“혹시, 귀족들이 묵는 곳은 어디인가요?”

왕녀가 왜 그것을 묻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수녀가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기에, 수녀는 곧바로 대답했다.

“왕실 일가 분들이 현재 묵고계시는 곳은 제1신전 이며 귀족 분들이 묵으실 곳은 제2신전 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생각하여 종이에 적어 둘 테니, 이만 물러가셔도 좋습니다. 안내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수녀님.”

“안식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수녀는 안식의 기도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수녀가 자리를 완전히 떠나자 이곳 본관 4층은 그나마 특별한 구역인지 새소리 하나 없이 고요할 만큼 적막이 가득한 장소였다. 하지만, 거의 1년 마다 한 번씩 오는 곳이면서도 신전이란 엄숙한 위치 때문에 케시아는 벌써부터 머리가 피곤해졌다.

슬쩍 자신이 쓸 독방의 내부를 쳐다보니, 역시나 자신의 궁전과는 천차만별인 내부나 다름없었다. 평민에겐 적당히 커보일지 모르는 독방일지라도 매번 궁에서만 사는 그녀에겐 좁디좁은 독방이나 다름없었다. 이런저런 불만은 가득했지만 케시아는 그 불만을 토해낼 수 없었다. 이곳은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는 신전이었으며, 아무리 어린 사제들이나 수녀, 그리고 신관들이 미천한 신분일지라도 신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존중을 표하며 말을 높여야 했다. 딱히, 그런 것에 관해 불편은 없었다. 다만, 3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올리고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좁은 독방에서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막막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일단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어찌됐든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루드비카였다. 제 아버지의 노골적인 선택으로 라인하르트 가문이 이번 기도에 참여한 다는 것을 알게 되자 케시아는 이토록 기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자신이 수녀에게 귀족들이 묵는 장소를 어찌하여 묻던가. 정확히는 제2신전의 독방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3일간 얼굴을 마주하고 그와 같이 기도를 올릴 생각을 하니 불편한 마음 따윈 벌써부터 사라지고 없었다. 케시아는 루네즈를 향해 서두를 것을 명령했다.

“루네즈, 서둘러야겠다. 어서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제2신전으로 가야되겠어.”

“예, 왕녀전하.”

루네즈는 케시아의 말하는 의미를 눈치 챘는지 서둘러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고자 몸을 서둘러 움직였다. 루네즈가 입혀준 신전의 의복 드레스는 수녀들이 입는 칙칙한 쥐색의 수녀복 만큼이나 수수할 정도의 밀 빛의 드레스였다. 그나마 어깨부터 시작해, 종아리까지 오는 기다란 노란빛의 장식천이 있어 그 수수함을 덜어냈지만, 분홍색이나 강렬한 빨강색 또는 파스텔 톤의 색을 좋아하는 케시아로서 신전에서 제공하는 드레스가 마음에 들턱이 없었다. 귀와 팔에 차고 있던 장신구를 모조리 빼고서 머리 위로 반투명한 미사보를 씌운 케시아는 마지막 옷매무새를 다듬고서 루드비카가 있는 제2신전으로 향했다.

루드비카 역시, 사제의 안내를 받아 독방을 배정받고서 신전에서 준비한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밀 빛의 튜닉과 그 위로 몸에 걸치는 신전의 전용 로브. 새하얀 로브 밑단에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인 교차된 무늬가 새겨져 있어, 여성용 의복 드레스보다 오히려 남성용 의복이 진중함과 신성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제의 당부에 따라 귀에 걸쳐져 있던 귀걸이를 빼내어 대충 바지 주머니에 넣은 루드비카는 마지막으로 머리모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현재 루드비카의 머리 모양은 위로 묶은 심플한 포니테일. 차분하게 아래로 묶어 내릴까, 아님 그대로 내버려둘지 고민하던 루드비카는 나름 신전의 분위기를 생각하여 묶은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자 결정을 했다. 대충 머리를 내리고 끈으로 묶자, 어느덧 준비를 모두 마친 루드비카는 아직 기도시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괜스레 바깥바람이 쐬고 싶어 독방에서 나와 버렸다. 그리고 독방에 나오자 우연히 복도를 지나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뜻밖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어머, 라인하르트 공자님?”

“그레이스 공녀?”

그레이스 가문도 이번 기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을 들어, 그녀 역시 참가하게 되리란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만나리라 생각지 못한 루드비카는 금방 반가움을 표하며 그녀의 앞에 섰다.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를 올리기 전에 잠깐 신전을 구경할까 해서요. 그보다 그날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군요.”

“예, 저 역시 오랜만에 영애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서로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입안이 침이 마르도록 두 사람은 복도를 거닐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나 그날 이후로, 그레이스 공녀는 정말로 후작에게 사실을 고백했는지, 그 고백을 들은 후작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은 즉, 그녀가 사랑한 기사의 신분과 제 딸의 신분으로 인한 갈등. 그러나 후작은 놀랍게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주게 되면서 조만간 약혼식을 치룰 거라는 그녀의 기쁜 목소리가 루드비카의 귀에 울렸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공녀. 오히려 제가 더 기쁘군요. 공녀의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져서 일까요?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꼭 뵙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머, 그런가요? 후후. 어찌되었든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인하르트 공자님. 공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아버지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공녀의 말을 경청했을 뿐이지요.”

그 말대로 루드비카 제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말을 가만히 경청했을 뿐, 조언을 하거나 무엇을 한 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그녀는 무언가의 용기를 얻은 것이고, 그 용기가 있었기에 사랑하는 이와의 약혼이란 성과를 얻게 된 것이었다. 어쩐지 그녀가 부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그 용기를 얻어 사랑하는 이를 놓치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다.

애초에 그레이스 후작과 라인하르트 후작의 성격자체도 달랐다.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 큰 결심을 한 그레이스 후작과는 달리, 자신의 아비인 라인하르트 후작은 절대로 무언가를 버릴 위인이 못되었다. 그리고 제 자신 또한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지 않던가. 헤르세인의 신분, 위치, 그것을 다 떠나, 자신으로 인해 그녀가 혹시라도 후작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요즘 들어 루드비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 자신의 피의 반은 라인하르트의 피가 흐르는지….

“아, 그러고 보니 공자님 쪽은 어떠신가요? 공자님께서 연모하시는 그분과는 진전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건….”

어찌 대답해야할까. 루드비카는 어색히 웃어야 했다. 그 어색한 미소를 눈치 챘는지 그레이스 공녀는 루드비카를 따라 어색히 웃다가 이내, 그의 기운을 복 돋아 주고자 생긋 웃기를 택했다.

“공자님,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분명, 공자님의 마음을 알아주시어 잘 되실 겁니다. 공자님은 제가 봐도 상당히 매력 있으신 분 이시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공자님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한, 진정한 마음이시라면 그분께 분명 닿을 겁니다.”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이성으로가 아닌 비록 서로의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가 똑같기에 이해를 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다. 루드비카는 그레이스 공녀의 말처럼,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헤르세인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그때가 멀지 않았으면 싶었다.

‘아가씨, 지금쯤 뭐하고 계시려나….’

문득 헤르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늘 그녀가 있는 장소에 갈 때면 마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멍하니 보거나, 또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녀의 행동반경은 침실과 왕실 도서관이 전부였다. 가끔씩 창밖을 멍하니 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육체만 이곳에 있을 뿐, 마음은 어딘가에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마음을 되돌려 그 자리, 그곳에 있었다.

‘아가씨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날이 과연 올까?’

그녀가 처음으로 거절한 뒤, 알 수 없는 불안이 루드비카의 깊숙한 곳에 조금씩 커져갔다. 자신의 마음을 수 십 번이고 거절할 그녀를 생각할 때면 이보다 더 마음이 우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곁에 있고 싶고, 뻔히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이 모순은 무엇이란 말인가.

루드비카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곁에 있어주길 원했고, 그런 그녀의 곁에 있어줄 사람은 오직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이 유일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그녀의 곁에 있을 사람은 없었다. 설령 존재한다 해도 그 모습을 어찌 두고 볼 수 있을까.

루드비카조차 눈치 채지 못할, 헤르세인을 향한 욕구가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 챌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은밀하면서도 그림자처럼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 어두운 집착이 그의 눈동자를 짙게 흐렸다.

“여기 계셨군요. 라인하르트 공자.”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뒤를 돌았다.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모를 케시아 왕녀가 만연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케시아 왕녀전하.”

루드비카는 작게 고개를 숙여 왕녀에게 예를 갖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고개를 드니, 역시나 부담스러울 정도의 끈질긴 시선이 루드비카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국왕의 억지스러운 명으로 후작에게 강제로 이끌려 이곳에 온 것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턱이 없었지만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케시아 왕녀의 존재. 왕녀의 시선은 먹이를 노리는 집요한 뱀과도 같았으며 누구보다 자신을 향한 마음을 잘 알기에 더더욱 루드비카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왕녀의 끈질김이 피곤했다. 하지만 상대는 제1왕녀. 루드비카는 최대한 웃고 있는 가면을 써, 왕녀를 상대했다.

“이곳에는 무슨 일이신지요, 왕녀전하.”

움찔. 그 물음이 매정한 것처럼 들렸는지 케시아 왕녀의 어깨가 살짝 움찔거림을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는 그것을 못 본 척,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 왕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 그게 그러니까… 라인하르트 공자. 실례가 되지 않는 다면 잠시 시간을….”

댕댕댕―

하지만 타이밍이 좋게도 마침, 기도를 올릴 시간이 되었는지 바깥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종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루드비카는 잘 됐다는 표정을 나름 숨기며 케시아 왕녀와 그레이스 영애에게 미사실로 이동할 것을 권유했다.

“아무래도 기도를 올릴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럼, 미사실로 이동하시지요.”

아무래도 타이밍은 자신의 편이었는지 루드비카는 여유롭게 두 사람을 지나쳐 미사실로 가기 위해 앞장섰다. 그 뒤를 따라 그레이스 영애도 케시아 왕녀에게 작은 인사를 올리곤 조용히 움직였지만, 정작 케시아 왕녀만은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등지고 앞서 갈 동안, 케시아는 아랫입술을 나직이 깨물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땅에 숨을 불어놓은 생명과 땅의 신, 아르테가르. 사브레 왕국은 매년 가을 때가 되면 풍작을 기원하고자 아르테가르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의식이 있었다. 특히나 그 기도를 올리는 것은 가장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는 왕실 일가들이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이 맘 때쯤의 신전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요하며 정숙했다.

“제5장 28절, 생명과 땅의 신이신 아르테가르께서는…….”

교황이 읊는 기도문을 시작으로 맨 앞자리에 앉은 왕실 일가와 세 가문의 귀족들, 그리고 그 뒤로 쭉 나열하여 앉은 신을 섬기는 신도들은 두 손을 모아 교황의 진중한 목소리를 세기며 그에 따라 기도를 읊었다. 조용한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던 날. 루드비카는 처음엔 이 신전에 3일 동안 갇혀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레이스 공녀가 말상대를 자처 해준 덕분에 지루한 것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이 은근 삐지는 모습이… 어머, 저 분은….”

점심 기도가 끝나고 저녁 기도를 기다리기 전, 그레이스 공녀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루드비카는 그녀의 탄성어린 목소리를 따라 저절로 시선을 옮겼다. 바로 맞은편에서 루드비카는 어린 빈센트 왕자를 볼 수 있었다. 거기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순간, 루드비카는 잠깐 헤르세인으로 착각하고 말았다.

‘아가씨?’

그 착각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여인의 서늘한 눈과 마주친 순간, 루드비카는 제정신을 차린 듯, 어느덧 맞은편에 서있는 왕비를 향해 예를 갖춰야 했다.

“아라네아 왕비전하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알고 있네. 공자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둘째 공자이지. 또한 공자는 나와 처음 마주한 얼굴이겠지만, 나는 공자가 어린 시절 사교계에 많이 드나든 모습을 보아 이미 알고 있다네.”

의외의 대답에 루드비카는 어쩐지 등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그녀의 상처이기도 한 존재. 하지만 지금의 헤르세인을 있기까지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루드비카는 왕비가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서늘한 눈빛에 자신의 표정이 어떨지 짐작되지 않았다.

“라인하르트 공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네!”

그 얼음 같은 눈빛에 한껏 경직되어 있던 루드비카는 다행이도 온화한 빈센트 왕자의 목소리에 그 차가움을 풀어낼 수 있었다.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왕자전하.”

“응! 자네의 가문이 왔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네. 기도 때문에 말을 걸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니, 무척 기쁘네.”

빈센트 왕자가 해맑은 눈으로 루드비카를 향해 생글생글 웃자, 그 모습에 루드비카도 절로 미소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왕비는 두 사람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로 아는 사이었는가? 빈센트, 라인하르트 공자와 안면이 있었던 것이냐?”

왕비의 서늘한 눈이 왕자를 향하자, 빈센트 왕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루드비카와 만나게 된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 왕실도서관에 갔는데 제 키가 높은 곳에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공자가 절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도움을 계기로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나 덕분에 라인하르트 공자를 알게 되어 저에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어쩐지 들뜬 목소리로 빈센트 왕자가 유독 호감을 보이며 대답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왕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루드비카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맙네, 빈센트 왕자가 이정도로 좋아할 정도면 공자의 도움이 컸던 거겠지. 그리고….”

왕비는 루드비카의 바로 옆에 있던 그레이스 공녀에게 시선을 주자, 그 차가운 시선을 받은 공녀는 재빨리 예를 갖춰 허리를 숙였다.

“그레이스 가문의 아이르리스 룬 아르네 그레이스 라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왕비전하.”

“그레이스 가문… 공녀 바로, 그레이스 후작이 그리 아낀다던 소문의 공녀이군. 만나서 반갑네.”

루드비카는 조심스러운 눈을 하며 어느덧 왕비와 그레이스 공녀가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살폈다. 처음엔 착각이라 할 만큼 루드비카는 눈앞에 있는 왕비가 헤르세인이란 착각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착각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왕비의 서늘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왕비를 빼닮았다 하더라도, 헤르세인은 왕비와 달랐다. 똑같은 짙은 남색의 머리, 그리고 비슷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눈동자의 색. 왕비의 눈동자가 하늘의 푸름과 같다면 헤르세인의 눈동자 색은 아름다운 코발트빛의 바다의 색과도 같았다.

‘또,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도 다르고.’

오랜 소문처럼 왕비의 눈빛은 그야말로 시리 운 북풍의 눈보라와 같다면, 헤르세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이지만, 태양의 빛이 있다면 서서히 녹일 수 있는 겨울과 봄 사이의 계절의 눈빛과도 같았다.

‘내 착각일까, 왜 왕비전하의 눈동자에선 그토록 시린 북풍 같으면서도 그 속의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 걸까.’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한없이 당차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어머니.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얼마나 큰 무거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었던가. 왜 인지 모르겠지만, 루드비카는 자신의 어머니와 왕비의 모습이 얼핏 겹쳐 보였다. 덕분에 그 시선을 느꼈는지 그레이스 공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왕비는 여전히 서늘한 눈을 하며 루드비카에게 물었다.

“혹, 내게 할 말이 있는 겐가?”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잠시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왕비전하.”

루드비카의 대답이 살짝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왕비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자리를 뜨고 싶은지 빈센트 왕자의 손을 이끌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빈센트 왕자는 대뜸 두 사람을 향해 무슨 관계인지 물었다.

“라인하르트 공자랑 그레이스 공녀는 서로 연인 사이인가?”

“예?”

제일먼저 그 대답이 나온 건 루드비카 쪽이었다. 설마, 어린 왕자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줄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빈센트 왕자가 그녀의 동생임을 생각하면 입안이 쓰 게 느껴졌다. 어쩐지, 부정당한 느낌이라 해야 할까. 그러다, 루드비카가 먼저 아니라고 대답하기 전에 풉 하고 웃던 그레이스 공녀가 친절하게 그 관계가 아님임을 설명했다.

“왕자전하, 저와 라인하라트 공자님은 연인 사이가 아닌, 서로를 돕는 이해관계이자, 동료 비슷한 관계입니다.”

“으음. 동료 비슷한 관계라니… 동료면 동료지, 비슷한 관계는 무슨 말인지 어렵군.”

빈센트 왕자가 고개를 기울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을 하자, 그 모습이 꽤나 귀여웠는지 그레이스 공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정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군요. 예, 왕자전하의 말씀대로 저희는 동료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라인하르트 공자님.”

그레이스 공녀의 눈과 마주치자, 루드비카는 픽 웃으며 빈센트 왕자를 향해 그것이 맞음을 대답했다.

“예, 저와 그레이스 공녀는 동료입니다. 왕자전하.”

“흠, 그렇군. 그럼! 라인하르트 공자, 누─! 아….”

빈센트 왕자가 말하려다 중간에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말끝이 흐려지자, 루드비카는 하마터면 심장이 터질 거라 생각했다. 다행이도 그때의 분위기를 무언가 눈치 챘는지 빈센트 왕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며 생긋 웃고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째서인지 빈센트 왕자의 옆에 있던 왕비의 눈이 집요하게 루드비카와 빈센트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결국, 빈센트 왕자는 이 자리를 벗어나 왕비에게 다른 화제를 돌릴 생각인지 왕비의 손을 잡아 이끌며 서있는 두 사람을 향해 잠깐의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럼, 이만 가보겠네! 어머니, 저 배고픕니다. 빨리 가서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지. 빈센트. 천천히 가려무나.”

어린왕자의 손에 이끌려 왕비가 어느덧 저 멀리 가버리자, 작으면서도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쉰 루드비카는 혹시라도 자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지 않았나,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다행히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없었다.

‘다행이다, 만약 왕자전하께서 아가씨를 언급했다면 큰일 났을 수도 있었어.’

만에 하나, 왕비가 자신과 그녀의 사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왕비는 그녀를 여전히 사생아이자 치부로 여기고 있음을 모든 왕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것은 귀족들에게조차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반대로 어쩌면 왕비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자신과의 관계를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고작해야 작은 수치.

자신과 그녀가 엮이게 된 순간, 제일 먼저 가만있지 않을 이는 바로 후작이었다. 특히나, 그녀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후작은 제멋대로 판단을 하며, 저급한 가문의 여인이라 생각하던 후작이아니던가. 거기다 그 일이 밝혀진다면 누구보다 상처를 받고 원치 않은 시선을 받을 그녀였다. 루드비카는 아직, 상처가 덜 여민 그녀를 잃고 싶지도 더욱이 상처를 곪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라인하르트 공자님?”

아무래도 너무 깊게 생각했는지, 걱정 어린 그레이스 공녀의 부름에 루드비카는 아무것도 아닌 태연한 미소를 보이며 입 꼬리를 올렸다.

“아닙니다. 그럼 저희도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나눴더니 배가 고프군요.”

“그래요, 배를 채워야 힘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럼, 가시지요.”

3일이란 시간은 금방 흘러갔다. 3일째 되던 아침, 아침기도와 점심기도만이 남은 시간을 두고서, 케시아는 불안하듯 엄지손톱을 계속 물어뜯어야만 했다. 그가 이곳에 있기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여겼다. 그러나 풀리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케시아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레이스 그 계집.”

웬만하면 그녀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번만큼 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케시아가 그녀를 향한 분노는 무척이나 컸다. 첫째 날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려니 했지만, 거머리마냥 그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케시아는 두 눈을 부릅떴음에도 그저 지켜봐야만 했다.

‘그레이스 가문과 라인하르트 가문 사이의 혼담은 깨진 게 아니었나?’

루드비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케시아는 이미 두 가문의 접대의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거기다 일방적으로 라인하르트 후작이 주도한 접대나 마찬가지였지만, 두 사람이 어쩌면 약혼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시녀들 통해 듣게 된 순간, 안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감히 그레이스 따위가! 그 사람과의 약혼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행이도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갈 만큼, 약혼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어 안심할 수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레이스인지 뭔지 하는 계집은 루드비카의 곁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내가 그레이스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해야 하다니!’

어찌 욕지거리가 안 나온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그와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지도 몰랐다. 아니, 그레이스 계집뿐만이 아닌, 모든 귀족가의 공녀들이 앞으로도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이내, 케시아는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음을.

오늘이 마지막 기도 날이자, 수확제의 마지막 축제이기도 한 날. 어느덧 점심기도만을 두고서 조용히 신전주변을 산책하던 루드비카는 멀리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명은 윌리스 왕태자와 나머지 두 사람은 라인하르트 후작과 클로드.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이 없던 루드비카는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몸을 틀었다.

그렇게 얼마쯤 소리 없이 걸었을까. 눈을 내리깐 채로 고요히 걷고 있던 그의 시야에 밀 빛의 드레스 자락이 언뜻 보였다. 내리깔고 있던 눈동자를 움직여 정면을 보니, 그곳에는 짙은 미소를 감추지 않은 여인이 있었다.

“왕녀전하를 뵙습니다. 산책 중이셨습니까?”

산책이란 그럴싸한 말로 에둘렀지만 루드비카는 왕녀가 산책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적인 볼일이 있어 이곳에 왔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자 왕녀는 살쩍 어색한 미소를 그리다가 마치 지금 상황이 우연임을 가장하며 동그랗게 뜬 눈을 하고선 손으로 짙은 입술을 가렸다.

“어머, 공자께서 이곳에 있는 줄은 몰랐네요. 공자께서도 산책중이셨나요?”

“예, 이제 막 별관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히 왕족에게 인사만 남기고 지나갈 귀족은 없었다. 만약, 왕녀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편히 이야기를 건넸을지도 모르지만 루드비카는 왕녀의 존재가 불편했고 길게 얽히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루드비카가 조심스럽게 케시아 왕녀를 지나치려하자, 아무래도 상대방 쪽은 눈치가 없던 건지 일부로 거절비슷한 말을 했음에도 왕녀는 기어이 루드비카를 붙잡았다.

“라인하르트 공자!”

“…예, 왕녀전하.”

결국, 왕녀의 부름에 붙잡히고 만 루드비카는 살짝 몸을 틀어 왕녀의 시선과 마주했다.

“호,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

아무래도 평범히 별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거기다, 직접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왕녀의 말에 루드비카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며 루드비카는 몸을 완전히 돌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큰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걷는 속도는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리면서도 어색한 공기가 겹쳐 있었다. 또,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거리를 두고 걷는 루드비카와 달리, 케시아 왕녀는 그레이스 공녀처럼 그의 곁에 바짝 붙어 걷고 싶음에도 왕녀란 채면으로 인해 그럴 수는 없었다.

정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왕녀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자, 오히려 루드비카는 왕녀가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어색함을 너머 불편한 공기가 루드비카의 호흡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입을 계속 다물고 있음에도 시선만큼은 끈질기게 사냥을 노리는 뱀 마냥 집요한 시선에 루드비카는 슬슬 이곳을 벗어나, 당장에라도 헤르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루드비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케시아 왕녀는 드디어 입을 열 생각인지, 몇 번이고 입술을 우물거리다가 나름 용기를 냈는지, 왕녀의 입에선 엉뚱한 말이 세어 나왔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군요.”

“그야, 가을의 계절이니 쌀쌀할 수밖에요.”

그저 왕녀의 목소리에 따라, 비슷한 대답을 했을 뿐인데 왕녀의 어깨는 작게 움찔거렸다. 그 대답이 꽤나 매정하게 들렸을까. 루드비카는 왕녀가 착각할 수 있도록 일부로 잔잔하게 웃었다. 다행이도 왕녀는 착각이란 기분을 느꼈는지 이번엔 다른 질문을 건넸다.

“공자께서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저는 봄의 계절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물을 머금은 새파란 잎 싹들이 세상 밖으로 돋아나 추위를 녹이는 계절로 뒤바뀌어 주니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딱히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 건 없지만 좋아한다면 아마 여름일겁니다.”

“여름 말인가요?”

“예,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여름의 계절을 말이지요.”

수도의 계절은 여름이라 해도 봄의 날씨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굳이 여름을 뽑은 건 여름이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계절이자,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보이는 계절 때문이기도 했다. 말은 그럴싸 해보여도 이것은 어디까지 왕녀에게 한해 있는 거짓. 루드비카는 여름이 아닌,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의 계절을 가장 좋아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왕녀에게 밝힐 필요는 없었다. 루드비카는 일부로 그 거짓을 왕녀에게 대답했다. 자신은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 거짓을 그대로 믿는지 왕녀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하며, 싱긋 웃고는 경박스럽지 않은 웃음소리를 내었다.

“왠지 공자라면 봄이나 여름을 말 할 거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자는 여름 같은 계절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화려한 계절이면서도 가장 긴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칭찬 감사합니다. 왕녀전하.”

“칭찬이라니요, 그저 당연한 말을 한 것 뿐 인데.”

무엇이 당연하다는 것일까. 겉으로만 보이는 외모? 아님, 자신의 가문과 배경을 말하는 것일까? 설령 무엇이 되었든, 왕녀도 그 어떤 공녀도 자신을 제대로 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자신을 오롯이 그대로 봐주는 이는 단 한 사람. 그녀, 헤르세인 뿐.

“…….”

“…….”

그리고 다시 이어진 침묵. 걷는 속도는 아까보다 더 느려졌지만, 루드비카는 더 이상 왕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짧게 시간을 생각해, 루드비카는 이만 별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무슨 일인지 왕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저어, 라인하르트 공자….”

“예, 말씀하십시오, 왕녀전하.”

이때만 해도 루드비카는 왕녀의 입에서 별거 아닌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과는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끌고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심심한 이야기를 꺼낼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왕녀의 단 한 마디에 루드비카는 거세게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그대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를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

“단 한 번도 한눈 판적 없이, 라인하르트 공자를 이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케시아 왕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한 것이 틀림없었다. 매번 왕녀의 눈이 집요하게 자신을 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왕녀는 왕실 일가의 적녀이자 국왕이 그토록 총애하고 아끼는 제1왕녀. 그 때문에 왕태자와 달리, 왕녀의 혼인이 얼마나 늦춰졌던가. 하물며, 왕녀를 혼인을 위해 왕후는 왕녀와 가장 어울리는 고위 귀족가의 후계권에 들고 있는 공자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니, 이것까진 상관이 없었다. 그저 왕녀는 제1왕녀이기 때문에 국왕과 왕후의 보살핌을 극진히 받는 왕녀이기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자신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 거라 여겼다. 매번 자신을 집요하게 눈으로 쫓고 있음에도 앞서 나서지 않던 케시아 왕녀. 그런데 왕녀는 그런 루드비카의 생각을 무심히 깨어버리고 고백을 해버렸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생각이라도 하듯.

“라인하르트 공자… 나는….”

수줍게 두 뺨을 붉히며 왕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왕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그 고백에 흔들림조차 없었다. 제 마음은 이미 한 사람을 향해 있으니까. 오롯이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루드비카의 눈엔 케시아 왕녀의 존재는 그저 화려하기만 한, 한 송이의 꽃에 불과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녀전하께서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저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공자….”

“고백 같은 거. 제게 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케시아 왕녀전하께선 국왕폐하와 왕후폐하의 아낌없는 총애를 받으시는 분이니,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자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에 불과한 저에게 고백은 평생 안하실 거라 여겼습니다. 아니, 계속 그리하셔야 했습니다.”

“공자, 어째서….”

왕녀의 에메랄드 빛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단호한 목소리로 웃음기를 싹 뺀, 진중한 표정으로 왕녀를 보며 자신의 감정은 왕녀에게 향하지 않음을 보여야 했다.

“계속 그 마음을 숨기셨다면 저 역시,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른 척 했겠지요. 또한 저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피를 잇고 있는 사람이긴 하나, 왕녀전하와 어울릴 수 없는 몸입니다.”

“어울릴 수 없다니? 설마, 공자께선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과연 왕녀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 것인가. 그러나 루드비카는 굳이 자신의 마음을 왕녀에게 밝힐 생각이 없었다.

“아닙니다. 제가 왕녀전하와 어울릴 수 없는 몸인 이유는, 제 피는 분명 라인하르트 가문의 피가 이어져있긴 하나, 저는 후작각하와 정실인 후작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언젠가는 왕녀전하께서도 알게 될 사실이기도 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가문의 뒤를 잇는 후계자도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왕녀전하께서는 왕후폐하의 적녀이시자, 저보다 더 좋은 가문의 부인으로 자리에 앉으실 귀하신 몸.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왕녀전하께 보탬이 될 힘조차 없는 차남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그건 내가 공자의 힘을 보태면─!”

루드비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왕녀가 제아무리 힘을 보태준다 한들, 과연 그것을 국왕과 왕후가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왕녀의 존재는 그만큼 그들에겐 컸으며 자신의 존재는 미약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차남의 자리, 그리고 반 밖에 흐르고 있지 않은 가문의 피. 국왕과 왕후에게 있어 자신은 왕녀와 어울리지도 않는 논외의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클로드 형님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자신과는 달리, 가문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야말로 후계자로서 자란 라인하르트 가문의 장남이자 적자 클로드. 루드비카는 클로드를 향한 부러움 따윈 없었다. 클로드의 뒤를 따를 후계자 자리도, 가문의 재력도 루드비카에겐 큰 욕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가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란 욕심만이 루드비카에겐 전부였다.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루드비카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 정중히 왕녀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왕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열이 올라 떨고 있었으며,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핏발이 선 두 눈을 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절. 왕녀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많은 것이 앞질러 왔고 루드비카는 이 기회를 빌려 왕녀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저는 왕녀전하의 옆에 있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고백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녀전하께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 테지요.”

“라인하르트 공자!!”

“원망하셔도 미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왕녀전하를 왕녀로서 존중해 드릴 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

댕― 댕― 하고 신전의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거대한 종소리에 수풀 속에 숨어있던 작은 새들이 놀랐는지 푸드덕 힘찬 날개 짓을 하며,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그 새들처럼 루드비카는 왕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메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부디 저 같은 별 볼일 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저보다 뛰어난 사내를 맞이하시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왕녀전하.”

고개를 들어 올려 루드비카는 천천히 왕녀를 지나쳤다. 두 발자국 쯤 걸어 나아가자, 털썩 하고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루드비카는 절대로 뒤 돌지 않았다. 그것은 왕녀를 향한 최대한의 예우이자 왕녀가 자신을 향한 마음을 미련 없이 끊어내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다느피안 남작. 헤르세인이 그의 작위나 성을 알게 된 건 불과 얼마 전이었다. 왕비를 통해 매일 같이 드나들어 칼같이 역사학을 가르치던 늙은 교사는 어느덧 일주일에 한번 꼴로 헤르세인에게 찾아와 여전히 왕실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교사들과는 다른 깐깐함으로 헤르세인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는지 다느피안 남작은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오늘 헤르세인이 공부한 글씨들을 쭈욱 훑었다. 분위기는 누그러졌을지 몰라도, 그녀가 적어내린 글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확실히, 예번보다 글씨가 많이 수려해지셨군요. 좋은 발전입니다. 그럼, 수업을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라. 헤르세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떠올랐다. 다느피안 남작은 다른 교사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특별히 경계를 한다거나 불편함 또는 혐오어린 기색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에는 늙은 교사의 그 깐깐함에 헤르세인은 무척 배우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의 깐깐함이 적응 되서 인지 처음보다는 그 깐깐함이 덜해보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헤르세인은 물어보고 싶었다. 다른 이들처럼 남작 역시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예, 상관없으니 물어보시지요.”

“다느피안 남작께서는 제가 불편하지 않은가요?”

“흐음, 불편이라…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느피안 남작은 오히려 여유롭게 수염을 쓸어내리며 헤르세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헤르세인 역시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작은 호기심이 궁금증을 키웠다. 매번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온 교사들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질색어린 눈과 사생아란 이유로 가르치길 꺼려하는 눈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 중에 불편한 기색만 보일 뿐, 감정을 숨기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다느피안 남작만은 그런 기색을 보이지도, 감추지도 않았다. 그저 교육을 가르칠 왕녀로만 봤을 뿐, 다느피안 남작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가르쳤다.

“다른 교사들은 사생아인 저를 가르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느피안 남작께서는 어째서인지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추지 않으신 것 같아 궁금하여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헤르세인이 정중히 사과하려 하자, 다느피안 남작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뿐 이지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솔직하게나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왕녀전하의 교육을 맡아야 된다는 소식에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문은 대대로 왕가의 교육을 맡는 몸. 그리고 저는 몇 십 년 동안 왕자전하와 왕녀전하의 역사학을 가르치며 왕실 전통의 뿌리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도 왕실의 혈통조차 잇지 못하는 사생아인 왕녀전하를 제가 가르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생아란 존재 자체가 왕실에 있어서 고귀한 혈통을 흐리는 존재이니까요.”

“…….”

“물론, 모두가 사생아란 존재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그랬지요. 하지만, 직접 눈을 맞대고 얼굴을 보며 사람 대 사람으로 왕녀전하를 가르치고 지켜보니, 어느덧 저는 왕녀전하를 그저 평범한 제자처럼 보고 있더군요.”

“제자… 말인가요?”

제자란 그 낮선 단어가 헤르세인은 묘하게 실감나지 않았다. 한 번도 교사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이들은 없었다. 오히려 제자라고 봐주기 보단, 닿고 싶지 않고 빨리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고 싶은 경멸어린 눈이 대부분 이었으니까. 그러나 헤르세인의 무반응에도 다르피안 남작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왕태자 전하도, 케시아 왕녀전하도 어찌 보면 저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으면 스승도 있는 법. 스승이 있기에 세상의 이치를 배우게 되고, 지식이 없는 제자는 스승을 통해 배움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배움. 헤르세인에게 배움은 처음부터 달갑지 않았다. 그저 왕비로 인해 강제로 배워져야 하는 공부들이었으며 그것들을 억지로 머리에 욱여넣을 때마다 헤르세인에겐 어려운 곤욕이었다. 하지만 배움이 있기에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현실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서,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다시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토록 어렵던 단어들을 익히며 무슨 뜻인지 몰라 헤맸을 때, 이제는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알리고 싶은지 헤르세인은 배움을 통해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다느피안 남작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서, 수업을 완전히 끝낸 헤르세인 이제는 습관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풍경을 구경했다. 거의 습관처럼 보는 풍경이기에 질릴 법도 하지만, 멍하니 생각에 잠기기에는 그야말로 이 자리가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아무도 왕성에는 돌아온 이는 없었다. 그리고 고요하기까지 해, 이 왕성은 마치 버려진 왕성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금방 돌아온다 해놓고선….”

속에서 조용히 웅얼거리던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와 헤르세인은 제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뱉어냈는지 알지 못했다. 분명, 그가 없는 빈 공간에 빈 허공에 외친 혼잣말임에도 멍하니 바깥을 응시하던 헤르세인은 근처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두 눈동자는 작게 흔들렸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그 익숙한 목소리가 마치, 환상 같은 환청이 아닐까 싶었다. 헤르세인은 뒤를 돌아 그 목소리가 들린 위치를 단번에 찾아낼 수 있었다. 환상도 환청도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이곳에,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비쳤다. 서둘러 왔는지 그의 숨은 조금 가쁘게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옅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붉은 장미와도 같은 새빨간 그의 긴 머리. 그리고 태양처럼 또는 노을빛처럼 물든 그의 눈동자. 나긋이 웃고 있는 그의 입술은 여전히 내려올 줄 몰랐으며, 수려하면서도 그 어떤 여인들보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내는 지금 자신의 두 눈앞에 있었다.

“…헤세?”

다정하리만큼 저를 부르는 애칭. 틀림없이 그였다. 고작 3일 만에 보는 얼굴임에도 이토록 반가운 기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익숙한 얼굴을 매번 봤음에도 오늘따라 유독 심장이 떨리는 이 기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헤르세인이 멍한 표정으로 미동조차 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루드비카는 성큼성큼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차가운 손끝으로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자, 루드비카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더욱 이상함을 느꼈다.

“미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가씨,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아픈 곳? 열은커녕, 몸이 쑤시거나 아픈 곳조차 없었다. 그저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얼떨떨함이 있을 뿐. 그의 차가운 손끝 덕분에 정신을 차린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어 그의 손을 가지런히 내려주었다.

“없어, 아픈 곳은.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어.”

“아아.”

그제야 그녀의 반응을 이해한 것처럼, 루드비카의 입술은 흐드러지게 잔잔히 피어올랐다. 하지만, 잔잔히 웃던 그의 입술은 어느덧 진하게 말아 올라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가씨, 우리 마지막 축제를 보러 가지 않을래요?”

아직은 노을이지지 않은 마지막 축제의 날. 광장은 물론 도시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삼각모양의 축제 깃발들이 줄지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도 더욱 시끌벅적한 광장에는 줄줄이 나열된 노점들이 즐비했고, 노점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을 하거나, 또는 예쁜 장신구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거나, 혹은 군것질을 하고자 군침을 삼키는 이들도 있었다.

“아가씨, 어디 불편한 곳은 없나요?”

“응. 근데, 오히려 나보다 당신이 불편한 것 같은데….”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모습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현재 루드비카는 로브를 푹 쓴, 헤르세인과 달리 변장을 한 상태. 변장이라 할 것도 없이 평범한 갈색 가발과 얼굴을 반쯤 가린, 도수가 있어 보이는 안경을 쓴 게 다였지만 고작 얼굴을 가렸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시선을 끄는 이목은 없었다.

“어때요? 이정도면 저도 평범히 거리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가 고작 가발과 안경을 쓴 이유는 특별한 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향한 이목을 차단시키기 위한 변장에 불과했다. 처음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루드비카는 이미 본인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지 그 당당한 대답에 헤르세인은 딱히 반문할 수 없었다.

"제 얼굴이 시선을 끄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날은 특히 누구에게도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아서요. 또, 괜히 저 하나 때문에 아가씨를 곤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대답일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는 귀족가의 자제였고 특히나 사람이 잔뜩 모인 축제날, 대놓고 얼굴을 드러내고 다닌다면 그 역시 곤란한건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자신을 데리고 돌아다닌다면. 고작 가발과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전부지만,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는 굉장했다. 가발과 안경을 쓰지 않고 거리를 걸었을 땐, 모든 여인들이 그의 외모에 시선을 떼지 못했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봤던가.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의 외모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그냥 그를 지나치는 여인들이 대다수였다.

그것이 너무도 신기해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다시 한 번 그에게 불편한 점을 물었다.

“불편하지 않아?”

그 물음에 루드비카는 안경 사이로 가려지지 않은 미소를 보이며 싱그럽게 대답했다.

“불편할리가요. 다른 사람이 주는 시선보다 아가씨가 제게 주는 시선이 더 좋은 걸요?”

그렇게 말한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지금 이 순간조차 자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보였다.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눈앞에 나타났던 아까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는 하늘의 신전에서 마지막 점심 기도를 끝마치고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다 했다. 마부에게 최대한 빨리 달려달라고 애원까지 했다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궁전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을 보면 진실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손을 잡아 이끌더니, 그는 함께 마지막 축제를 보러가자며 권유를 했다. 하지만 그 권유는 거의 루드비카의 반 강제나 다름없었지만, 헤르세인은 싫지 않았다.

“아가씨! 우리 저거 해봐요!”

루드비카는 그새 재미난 걸 찾았는지 그는 도수가 있는 안경을 썼음에도 그 안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그때부터 루드비카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졸졸 따라가 구경을 하거나, 그와 같이 재미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동그란 숫자판에 작은 숫자가 적힌 공간에 날카로운 바늘을 꽂아 상품을 탄다거나, 어디서도 보기 드문 광대의 묘기를 본다거나, 또는 음유시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감상에 젖거나, 달콤한 군것질거리를 사, 먹어본다거나.

처음에는 그 낮선 경험이 어색해 몸이 굳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직접 루드비카를 이끌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조를 정도로 헤르세인은 이 순간이 즐거웠다.

“자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축제날 마지막 상품이자 수확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수제 장신구들 입니다! 가격도 싸니 어서 와서 보세요!!”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호객 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시선이 가고 말았다. 그 노섬상이 팔고 있는 것은 아담하면서도 수수한 머리핀이나 팔찌, 혹은 브로치 종류를 팔고 있었고 상당히 많이 팔았는지 장신구는 많이 없었다. 그저 별 감흥 없이 구경을 하다가 언제 루드비카가 다가왔는지 찬찬히 장신구를 훑던 루드비카는 미소를 그리며 그녀에게 물었다.

“하나 사드릴까요?”

“…응?”

그러자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노점상이 눈을 빛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호쾌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거기 젊은 청년! 거 애인에게 한번 어떤 장신구가 어울리는지 이것저것 대봐요! 그리고 특별히 싸게 해드리다!”

얼떨결에 연인사이로 오해받게 된, 헤르세인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흘긋 루드비카를 쳐다봤다, 그러나 정작, 루드비카는 무슨 생각인지 나열된 장신구를 보며 잔잔히 웃고 있었다.

“그럴까요?”

왕성에서 지낸 기간이 길어서인지 헤르세인은 왕성에서 왕비나 혹은 왕후가 차고 다니는 장신구와 일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장신구의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왕비나 왕후가 차고 다니는 장신구들은 대부분 한눈에 봐도 고가품이라 할 정도로 거대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나 아름답게 가공되어 장식된 장신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노점에 보이는 장신구들은 수수하면서 심플했다. 작은 큐빅이 박혀있는 머리핀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자개를 조합해 만든 팔찌들도 눈에 보였다. 헤르세인은 살짝 눈을 흘깃하며 루드비카의 모습을 살폈다. 그도 장신구들을 구경중인지 의외로 신중히 살피는 모습에 헤르세인은 다시 시선을 돌려 찬찬히 보았다.

장신구는 상당히 잘 팔리는지 헤르세인의 눈에는 많은 장신구들이 없었지만 유독 눈에 가는 팔찌가 보여, 그것을 들어 조심스럽게 팔찌의 실물을 확인했다. 투박하면서도 둥글게 땋아져 있는 검은색 가죽 끈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보였고, 가운데는 별과 달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아기자기하게 매달려 있었다.

“아가씨, 그게 마음에 드나요?”

그저 감상만하고자 팔찌를 들었을 뿐인데 루드비카는 마음에 든 걸로 착각했는지 곧장 노점상에게 계산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럼 이걸로 계산을….”

“아, 아니. 그냥 구경만 한 거야.”

왠지 절대로 만져선 안 될 물건을 만진 것 같아, 헤르세인은 곧바로 팔찌를 원래 있던 곳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 팔찌를 루드비카가 도로 손에 들더니, 헤르세인을 향해 생긋 웃고는 노점상에게 넘겨버렸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 녹색 리본 끈도 같이 부탁드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포장 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쇼!”

팔찌는 물론, 덤으로 녹색 리본 끈까지 은화로 계산을 전부해버리자, 헤르세인은 조금 멍한 얼굴로 루드비카의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포장은 금방 끝났는지 팔찌와 리본 끈을 합쳐 평범한 종이봉투에 넣어준 노점상은 루드비카에게 건네고는 환희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주쇼!! 그때는 이것보다 더 예쁜 장신구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

얼떨결에 노점상에게 어색히 인사를 하고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뒤를 빠르게 쫓아갔다. 어느덧 맑고 푸르던 하늘은 붉게 노을이 지는지 밤하늘 색의 옷을 갈아입으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과 도로 곳곳에 밝은 등 들이 불을 피우며 거리를 밝히자 그 광경이 묘하게 아름다워 헤르세인은 거리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가씨, 그러다 길 잃으시면 어쩌시려고요? 어서 이쪽으로.”

“아… 응.”

헤르세인은 마치 어미 새를 쫓듯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중히 내밀어진 그의 손.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로 그녀가 손을 올리자 그것은 마치 손이라는 족쇄처럼 루드비카는 작게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온전히 감쌌다. 이제는 그와 손을 잡는 것이 헤르세인에겐 익숙했다. 하지만 분명 익숙해졌음에도 이다지도 손바닥 밑으로 뜨거운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자신의 온기인지 아님, 그의 온기일지 모를 그 열기에 정신이 빼앗길 쯤, 루드비카의 나긋한 목소리가 헤르세인을 깨웠다.

“아가씨, 받으세요.”

“이건….”

“매번 마카롱만 사다드리다가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아가씨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그가 노점에서 산, 장신구들. 손바닥만 한 작은 종이봉투에 고이 든 팔찌와 녹색 리본 끈. 마카롱만큼이나 헤르세인의 마음은 충만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기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막상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가 선물이라며 매번 사다주는 마카롱도 기쁠 만큼 고마웠다. 하지만, 마카롱은 결국 입속으로 들어가 금세 눈앞에서 사르르 사라지는 달콤한 꿈과도 같은 선물. 오랫동안 눈으로 보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지만 마카롱은 먹는 것이기에 마치 한순간에 사라지는 환상처럼, 헤르세인은 그가 준 마카롱을 먹어서 없애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안에 든 것은 오랫동안 눈으로 보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장신구. 그가 선물이라며 사준 것은 고마우면서도 기뻤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받기만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다. 그는 이토록 아낌없이 주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니. 그 미안한 감정이 너무나도 커져, 헤르세인의 얼굴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가씨, 혹시 제가 준 선물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럴 리가 있을까. 단 한 번도 그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든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평생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을 정도인데. 헤르세인은 말없이 크게 도리질을 했다.

“그럼, 어디 아픈 건가요?”

아니. 아프지 않았다. 슬럼가에서 살면서 딱 한번 크게 감기를 걸린 때를 빼면 튼튼한 몸이었다.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눈과 마주쳤다. 혹시라도 자신의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보이면 금세 달려와 한 없이 걱정하는 남자. 헤르세인은 천천히 입술을 열어 그에게 대답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아니, 어떻게 말해야할지 입이 안 떨어져서. 고마우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해서….”

“미안하다고요?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날 위해 뭔가를 해주는데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까.”

“제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가씨.”

해주고 싶었다. 무엇이든. 그래야 공평하니까. 헤르세인이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루드비카는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금방 떠올리곤 잔잔히 입 꼬리를 올렸다.

“그럼, 그날 미루던 부탁. 들어주실 수 있나요?”

“부탁이라면… 어떤?”

“저와 아가씨가 함께 파랑새의 정원이란 레스토랑을 갔던 그날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루드비카의 다음 말이 끝나서야 헤르세인은 이해가 됐다. 그날도 지금처럼 그에게 생각지 못한 레스토랑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물론, 꽃 선물까지 받고 말았다. 골드 개념인 거대한 거금을 쓰게 만들어, 얼마나 염치가 보였던가. 결국엔 그 부탁을 깜박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이라도 쓰게 되는 것이 어디이던가. 헤르세인은 당장에라도 그의 말 하나하나 경청할 자세로 곧게 서있자, 루드비카는 그 모습을 귀엽게 봤는지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곤 가장 쉬우면서도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 일을 정중히 부탁했다.

“아가씨께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워 이제 것 말하지 않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제 생일이 곧 다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 생일 당일 날, 저는 아가씨가 계신 궁전에 갈 수가 없어요. 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고 많은 귀족들이 올 예정이죠. 하지만 아가씨가 제게 오실 수 있도록 따로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가씨. 저의 생일날, 제가 있는 라인하르트 가문에 와주셨으면 해요.”

“생일… 이라고? 자, 잠깐만.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데?”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온다니. 전혀 예상지 못한 대답에 헤르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급히 그 날짜를 물었다. 그러자 루드비카는 말갛게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 5일 뒤, 왕국력 땅의 날, 아르테가르의 10월의 일곱 번째 날입니다.”

앞으로 5일 뒤. 그는 정말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헤르세인은 당장에라도 그렇게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라인하르트 가문에 직접 와달라는 또 다른 언급에 막상 망설여지고 말았다. 그는 고위 귀족가의 자제이자 그 유명한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 또한 그의 가문에선 성대한 파티를 열고 초대를 받은 귀족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한 큰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초대 받지 않은 자신의 존재가 끼게 된다면?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 그가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몰라,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 루드비카는 작게 고개를 저어 파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요점을 이어 설명했다.

“저의 가문으로 와달라고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파티에 모습을 드러내 주시진 않아도 됩니다. 아가씨께선 그날, 오늘의 저처럼 아무도 모를 변장을 하시고 제게 와주시면 되니까요. 변장에 대한 것도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아니요, 들킬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아가씨가 저택에 도착하기만 하면 저와 아가씨는 다른 장소로 곧장 이동할거니까요.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불안하지 않는다면 거짓이었다. 제 아무리 변장을 하고 그가 있는 저택에 간다한들 어찌 안 떨릴 수가 있을까. 그 불안한 떨림을 느꼈는지 그녀의 손위로 루드비카의 손이 다정하게 감쌌다. 여전히 차디찬 자신의 손과는 다르게 그의 손은 장작불처럼 언제나 따뜻했다. 그래서 이토록 자꾸만 그가 떠오르고 그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걸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눈을 마주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조금 불안하긴 해. 하지만, 당신의 부탁이니까.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대답할게. 갈게, 당신이 있는 저택으로.”

“정말, 정말로…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응. 정말로.”

어려운 부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안한 얼굴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표정이 단호히 그려져 있어, 루드비카는 당장에라도 이 거리에서 그녀를 껴안고 싶었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거리. 자신이 그녀를 껴안기라도 하면 불같이 깜짝 놀라 그녀를 생각해 루드비카는 끝까지 참기로 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손을 깍지로 바꿔, 더욱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끔 그 손에 작은 힘을 주었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을 거예요. 분명.”

붉게 노을 지던 하늘은 어두운 밤빛으로 갈아입어 붉은 태양대신 은은한 달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수확제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어둡던 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는 폭죽들이 마구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환호가 더욱 커졌다.

“세상에! 아름다워라!!”

“드디어 수확제도 끝이구먼.”

“와아! 어머니! 아버지! 하늘 좀 봐요!! 불꽃들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비록 폭죽이 터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밤빛 하늘에 빛이 솟아 별처럼 퍼지는 폭죽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덕지덕지 모여 그 아름다운 장관을 모두 구경하자, 헤르세인 역시 루드비카와 함께 폭죽이 터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 어떤 풍경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만큼 비견되는 것이 없으리라. 그것은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이자 차오르는 두근거림이었다.

한창 무르익던 폭죽이 끝나고,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헤르세인도 루드비카도 슬슬 돌아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던 순간, 헤르세인은 뒤로 지나가던 다른 사람에게 밀려 그와 이어져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맞은편을 향해 다가오던 소년과 어깨를 부딪치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깊게 빵모자를 눌러쓴 소년이 먼저 사과를 하며 가던 길을 걸어가자, 헤르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벌써 세발자국 앞장 서있는 루드비카의 뒤를 쫓아갔다. 아니, 몇 초 전만 해도 그 뒤를 바짝 쫓으려 했다.

“…어? 종이봉투가 없어….”

분명 소중하게 종이봉투를 제 품에 안고 있었는데, 품에 있어야할 봉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마치, 동화속의 마법사가 마법을 부려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어째서 사라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던 헤르세인은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강하게 지나갔다. 뒷사람의 부딪침에 밀려 맞은편에 오던 소년의 어깨와 부딪친 기억. 그리고 평범히 걷는 사람들의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어 빠르게 등을 지고 가던 소년의 모습. 분명, 품속에 있던 종이봉투는 소년이 훔쳐간 것이었다.

헤르세인은 어느새 다섯 걸음 보다 더 멀어진 루드비카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계속 걷고 있음에도 뒤쫓아 오지 않는 헤르세인의 모습이 이상했는지 루드비카가 뒤를 돌아 시선이 부딪치자, 헤르세인의 두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찾아야 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루드비카가 완전히 몸을 돌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이곳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헤르세인은 지금 당장 그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선물한 소중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잊어버렸다고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헤르세인은 아랫입술을 강하게 깨물며 자신을 욕하고 탓했다.

“아가씨?! 도대체 무슨 일이….”

“미안.”

“미안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가씨?”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온 루드비카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물었지만, 헤르세인은 그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꼭 찾아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안해. 금방 찾아서 돌아올게.”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헤르세인은 소년이 가던 방향으로 몸을 틀어 재빨리 뛰기 시작했다. 곧이어 뒤에서 ‘헤세!’라고 외치는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헤르세인은 그의 외침에도 뒤를 돌지 않았다. 아니, 뒤를 돌 수 없었다. 그가 준 선물을 허망하게 잃어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당당히 잃어버렸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헤르세인은 저를 붙잡는 목소리가 계속 들림에도 뛰고 있는 다리를 멈출 수 없었다.

밝은 등불이 가득한 광장과는 달리, 어둡고 으슥하기 짝이 없는 뒷골목에 깊게 빵모자를 눌러쓴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혹시라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지 소년은 주변을 살피고는 경계를 풀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입으로 신호를 알렸다.

휘이익―!

휘파람 신호를 들었는지 어둠속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사람이 뭉쳐있는 고개를 양쪽으로 풀며, 소년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때? 잘 훔치기는 했겠지?”

“잘 훔쳤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겠지.”

빵모자를 눌러쓴 소년은 이 광장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소매치기였다. 그리고 소년의 앞에 있는 4살 많은 청년은 소년과 한패이기도 했다. 어느덧 빵모자 소년은 오늘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낡은 코트 주머니를 탈탈 털어 길바닥 아래로 무수히 훔친 물건들을 전부 털어놓았다.

짤랑이며 떨어지는 동전은 물론, 자잘한 보석이 들어있는 주머니, 또 교묘하게 훔친 보석반지나 값비싼 장신구들. 오늘은 수확제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광장에 사람들이 득실거린 덕분에 빵모자 소년은 평소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탐욕에 젖은 혀를 날름이며 소년과 한패인 청년이 바닥에 떨어진 값비싼 반지를 주워 올리며 이번엔 느긋하게 휘파람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 상황을 만족하고 있었다.

“이정도면 몇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말이지.”

“몇 달은 무슨, 적어도 1년 정도는 충분해보이지 않아?”

빵모자 소년이 어림없다는 투로 반문하자 청년은 검지손가락으로 좌우를 흔들며 여전히 시선은 반지에 머물고 있었다.

“1년은 어림도 없어. 생각을 해봐,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사고 싶은 거 생각 없이 사면 오늘 훔친 이것들 금방 사라지고 말아. 그리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생각을 해라 생각을.”

“생각은 무슨, 내가 무슨 도시 물가를 일일이 기억하고 훔쳐야 해? 우리 같은 소매치기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몰래 훔치는지에 대한 계산만 생각한다고.”

빵모자 소년은 투덜거리곤 제자리에 쭈그려 앉아 오늘 훔친 물건들을 차례대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워낙 훔친 것이 많아 누구에서 무얼 훔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소매치기에 있어 상대방의 얼굴 따위 기억해서 좋을 건 없었다. 양심의 가책이든 아니든, 먹고 살려면 돈이 되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빵모자 소년은 찬찬히 훔친 물건을 훑다가 손바닥만 한 종이봉투가 떨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종이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괜히 궁금해진 소년은 망설일 것 없이 종이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단숨에 확인했다.

“뭐야 이건?”

종이봉투 속에서 나온 내용물은 다름 아닌, 돈도 되지 않은 가죽팔찌와 녹색 리본 끈이었다. 대체 이걸 왜 훔쳤는지 빵모자 소년은 곱게 미간을 찌푸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물건을 훔친 사람의 모습을 흐릿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 물건의 주인은 얼굴을 반쯤 로브로 가린 사람의 물건이었다. 원채 얼굴을 가리고 있어, 빵모자 소년의 눈엔 그 사람이 눈에 띄었고 왠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 주변에 있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어 부딪치는 것을 가장하여 훔친 물건이었다. 그런데 정작 고가의 물건은커녕 이런 쓸모없는 물건이었다니. 어쩐지 뒤가 구린 찝찝함에 빵모자 소년은 입맛을 다셨다.

“이건 버리던가 해야지.”

돈이 되지 않는 건, 소년에게도 청년에게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빵모자 소년은 대충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따로 구분하여 쭈그리고 자세를 일으켰다. 그리고 여유롭게 아지트로 돌아가려던 그때, 소년과 청년의 앞에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로브를 뒤집어 쓴 사람이 두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뭐, 뭐야?”

처음에는 이 뒷골목을 지나가는 뒷 세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로브 속에 감춰진 시선이 어쩐지 자신들에게 향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도 비켜서지 않는 그 모습에 소년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위협하듯 품에서 작은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비켜!”

그러나 상대방은 소년의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겁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로브를 뒤로 넘기곤 서릿발 같은 얼음 같은 눈이 소년을 향해 분노를 담아내고 있었다.

“내게서 훔쳐간 그 종이봉투 당장 내놔.”

슬럼가에서 도둑질을 주업으로 삼을 땐, 달리기 따윈 그녀에겐 별거 아닌 일이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치고 얻어맞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달릴 때마다 체력이 늘어나면서 배고픔은 더했지만 그 순간만큼 이토록 격하게 숨을 토해내며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슬럼가 때의 일을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지 3분 채 안되어 뛰었음에도 헤르세인은 크게 숨을 헐떡이며 금방 지칠 수밖에 없었다. 숨이 헐떡이는 동시에 몸이 무거움을 느낀 순간, 헤르세인은 저가 얼마나 궁에서 얌전히 살았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왕성은 슬럼가처럼 함부로 뛸 수 없는 곳이며, 뛰어 다니기에는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궁에 틀어박혀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했던가. 어쩌면 그만큼 슬럼가에서 살던 때보다 절박함이 없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도둑질을 하던 그 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는지 헤르세인은 빵모자를 눌러쓴 소년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행동반경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인 광장일수록 물건을 훔친 자는 사람들 틈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욱 모습을 감추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은 실로 오랜만에 미친 듯이 뛰고 또 뛰며, 소년의 행적을 찾아야 했다. 골목길이란 골목길은 죄다 뒤져, 그들이 숨기 쉬운 지름길 비슷한 루트를 찾아 쉼 없이 뛰었고, 자신의 물건을 훔친 소년이 광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반드시 숨어 있을 거라 확인했다.

흔히 도둑질을 일삼거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소매치기 범은 특히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 사냥터였다. 최대한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은 루트의 길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며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그 사냥터를 멀리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헤르세인 역시, 그렇게 살았었다. 골목길이란 골목길은 죄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혹시라도 잡히면 도망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루트를 기억해야만 했다.

아직까지 광장의 지리나 도시 곳곳에 퍼진 길을 전부 외운 건 아니지만, 헤르세인은 그 감을 살려 예전의 도둑질을 일삼던 감을 이용해 눈에 보이는 골목길은 죄다 누비고 다녔다. 그렇게 얼마나 발이 아프도록 뛰었던가. 조금 더 골목길 비슷한 깊은 길에 들어가자, 헤르세인은 온 몸의 털이 쭈뼛하고 섰음을 느꼈다. 틀림없이 이 깊숙한 뒷골목을 들어가 찾는다면 그 소년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헤르세인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어둠속으로 발을 디뎠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빵모자를 쓴 소년과, 자신의 뒤를 밀치던 젊은 남자. 나름 제 앞길을 막은 자신을 위협하고 싶었는지 소년은 작은 나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소년의 그런 위협에도 헤르세인은 무섭기 보단 소년이 훔쳐간 종이봉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다만, 막상 자신의 물건을 훔친 소년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화가나 헤르세인은 평소보다 살벌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어야 했다.

“내놔. 그깟 나이프로 날 위협해 봤자 하나도 겁 따위 안 나니까 당장 내놔.”

“하! 이 여자 보게? 혹시 미쳐서 겁 대가리 상실했어?”

“그래, 여기서 더 미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내게서 훔쳐간 종이봉투 내놔. 내놓으라고!”

말로 달라 해서 얌전히 줄 그들이 아니었다. 헤르세인은 설령 제 몸이 다칠 지언정 어떡해서라도 루드비카가 제게 선물을 준 그 봉투를 찾고 싶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들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대담함에 당황했는지 소년은 나이프 끝을 휘두르다가 이내 혀를 차며,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그토록 헤르세인이 찾던 종이봉투 대신 팔찌와 리본 끈을 집어 그녀의 내밀어진 손이 아닌 더러운 길바닥 위로 던져버렸다.

“어차피 돈도 안 되고 쓰레기나 다름없는 거 우리가 가져가봤자 뭐하겠어! 자! 돌려줬으니까 됐지?! 어이 형! 빨리 돌아가자! 혹시라도 이 계집애가 우릴 신고라도 하면 어떡해!!”

소년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훔친 물건들을 챙겨 더욱 으슥한 어둠속으로 가버리자, 그 뒤를 따라 젊은 남자도 혀를 차고는 소년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음에도 헤르세인의 시선은 줄곧 땅에 박혀 있었다. 근처에서 보이는 무참히 찢긴 종이봉투와 어느새 더러워진 녹색 리본 끈. 그리고 제 마음처럼 바닥에 던져진 가죽 끈 팔찌.

헤르세인은 허리와 무릎을 굽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리본 끈과 팔찌를 주워들었다.

“드디어… 찾았다.”

분명, 루드비카가 제게 사준 선물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기쁘기 보단 가슴이 아픈 걸까. 빈센트가 제멋대로 그가 선물해준 마카롱을 먹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 몰아쳤다. 분명 원하는 대로 선물을 찾았음에도 헤르세인은 반듯하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한순간, 한 순간의 장면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에겐 아무짝에 쓸모없는 볼품없는 물건일지라도 그녀에게 있어, 팔찌와 리본 끈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보석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것일지라도. 당장 그녀에겐 그것들이 소중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참히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을 보자 헤르세인의 심장은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저들이 뭔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토록 함부로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뭔데 그것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뭔데…, 그것을 감히 쓰레기로 치부할 수 있단 말인가….

헤르세인은 두 손에 쥐어진 팔찌와 리본 끈을 제 품에 감싸 안듯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다. 비록, 그들의 손에 훔쳐져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어도 그녀에게 있어서 덧없이 소중한 단 하나의 선물이었다.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멀쩡히 뛰었던 다리는 어느덧 그녀에게 작은 고통을 주었다. 이토록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일까, 굽이 없는 단화를 신었음에도 어느새 헤르세인의 뒤꿈치에는 붉게 상처가 덧나있었다. 거기다 정신없이 뛰어다닌 탓에 그녀의 로브 밑단은 충분히 더러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쓸 틈 없이 헤르세인은 그 소중한 것을 제 품에서 절대 놓지 않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가까스로 광장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보이자, 헤르세인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미, 미안.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당신이 준 선물을 도둑맞아 그걸 찾느라 시간이 많이─!”

“아가씨!!”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가 왜 이제 왔냐는 얼굴을 하며 자신을 기다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바보 같게도 착각에 불과했다. 헤르세인은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루드비카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고작 미안하단 한마디로 제 곁을 떠났냔 말이에요!!”

“떠난 게 아니야, 난 단지…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을 도둑맞아 그걸 되찾으려고….”

“그딴 거! 얼마든지 다시 사줄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이토록 걱정하게 만들죠? 왜 말도 없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겠끔 만들었냐고요!!”

그가 이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자신은 단지, 그가 준 선물을 되찾고자 했을 뿐인데, 그게 그토록 잘못 된 일일까?

“왜… 왜,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당신이 준 선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도둑맞았으면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잊어버려서…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 된 거야?”

“지금, 아가씨의 꼴이 어떤지 알긴 하나요? 머리는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에다가! 로브는 어디서 부딪치고 구르기라도 했는지 먼지에다가 찢어져있다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그렇게 미안하단 한마디만 전하고 내 앞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나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난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가씨를 기다려 봐도 아가씨는 오지 않고! 난 바보처럼 당신이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만 믿고! 당신을 걱정하며 얼마나 여기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아냐고요!!”

“나는 단지─!”

그가 그런 마음으로 그토록 불안에 잠겨 자신을 기다릴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다. 헤르세인은 나름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루드비카의 서늘한 뒷모습이었다.

“여태까지 아가씨가 저를 밀어냈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아가씨를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내가 아가씨를 향한 마음이 클지라도 정작 아가씨는 그저 곁에 내가 있어주길 바랄 뿐, 곁에 남아있는 나를 제대로 생각해주지 않다는 것을요. 이만 돌아가죠.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궁전 앞까지만 제가 데려다 드리지요.”

먼저 앞서 걷는 루드비카의 손을 붙잡고자 헤르세인은 손끝을 뻗었다. 언제나 그가 먼저 뻗어 제 손을 잡은 손이었건만, 헤르세인은 손을 뻗었음에도 그의 손끝조차 닿을 수 없었다. 그 닿을 수 없는 거리에 헤르세인은 그것이 낯설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분명 가까이 있음에도 이토록 그와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기분은 무엇이란 말인가. 헤르세인은 제 손을 들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손바닥을 보았다.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차디찬 자신의 손. 그가 늘 따뜻이 잡아주던 손의 온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날의 수확제 이후, 헤르세인은 그 뒤로 루트비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잊을 수 없던 그의 격정적인 모습, 그리고 처음으로 보던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한껏 담아내고 있던 눈동자. 그토록 쌔게 잡던 양쪽의 어깨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어쩐지 헤르세인은 아프게만 느껴졌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리깐 눈동자를 움직여 헤르세인은 제 팔목에 걸려있는 가죽 끈 팔찌를 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궁전으로 데려다 주던 그날. 루드비카는 직접 그녀의 팔목에 팔찌를 끼어주고는 그대로 무심히 가버렸다. 팔찌의 정 가운데에 매달려있던 작은 펜던트가 피부에 맞닿았다. 별거 아닌 금속의 차가움임에도 어쩐지 헤르세인은 맞닿은 피부가 매섭게 시린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사과… 해야겠지?”

아직 그의 생일까지 날짜는 남았지만,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헤르세인은 두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분명 루드비카의 화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자, 헤르세인은 고요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혀있는 문을 그대로 응시했다.

“어쩌면 내가 생일선물을 준다면 기분이 더 풀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자 헤르세인은 발걸음을 제자리에서 떼었지만 막상 한걸음 나아가던 순간,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무슨 수로 그의 생일선물을 준단 말인가? 하물며 자신에겐 돈조차 없었고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조차 몰랐다.

“나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늘 받기만 하던 자신. 반대로 정작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 그는 저의 사소한 행동하나하나에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에 대해 무관심하기까지 했다. 그저 처음에는 제멋대로 다가오는 낮선 모습에 경계를 하고, 아무도 모를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알아 이젠 스스로 곁에 있어주던 그였다. 그런데 자신은 오히려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화… 풀어 주겠지? 그가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지?”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늘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먼저 다가가면 그가 언제 그랬냐는 얼굴로 다정히 돌아올 것이라고. 비록 그 행동이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 먼저 그에게 다가가 보자고.

그래서였을까?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자의로 왕비의 궁전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부탁’이란 것을 정중히 고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돈이라고?”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은화라도 상관없으니 돈을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뻔뻔한 건 알고 있었다. 이름뿐인 왕녀인 주제에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꺼려하는 왕비에게 제 발로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니. 하지만 헤르세인이 부탁할 사람은 왕비밖에 없었고 루드비카를 위해서라도 헤르세인은 적은 돈도 절실했다. 반대로 수확제를 마치고 간만의 휴식을 오랫동안 취하고 있던 아라네아 왕비는 돈이 필요하다며 제 앞에 나타난 헤르세인의 모습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돈이 필요한 것이냐.”

“예? 아… 그건….”

그저 평범히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으나 어쩐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에 왕비는 생각을 접고 질문을 물려버렸다.

“아니, 되었다. 제 아무리 이름뿐인 왕녀라 한들, 아예 재산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 시녀를 통해서 60골드 정도는 보낼 테니 알아서 쓰도록 해라.”

“60골드나 말입니까?”

“왜? 적으냐?”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놀랐지만 주시는 거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헤르세인은 적어도 왕비가 많으면 10은화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60은화도 아닌 60골드란 어마어마한 숫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왕비가 주는 골드를 받아들였다. 왕비는 전속시녀를 시켜 헤르세인은 궁전으로 돌아가자마자 60골드를 보내주었고, 금화가 묵직하게 들어있는 여러 개의 주머니에 그녀는 다시 한 번 실감했다. 60골드란 현실처럼 와 닿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직접 보니 어마어마한 돈이란 것을. 오히려 금화 하나만 들어도 괜히 잃어버릴까 겁이 났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헤르세인은 금화 두 개를 챙겨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 고이 넣어두곤 하녀와 시녀가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을 노려 비밀통로를 통해 왕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왕성 바깥으로 나올 땐 거의 루드비카와 함께 있었지만, 실로 오랜만에 혼자 나와 보는 경치에 헤르세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여전히 로브는 필수적으로 챙겨 입은 채, 이제는 익숙한 걸음으로 광장까지 걸어 나온 그녀는 어떤 것이 가장 루드비카와 어울릴만한 선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색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그와 어울리는 물건들은 잔뜩 이었다. 각 가게마다 유리창에 전시된 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코트나 크라바트, 또는 비싼 재질의 수제 부츠나 커프스링크 등등 루드비카를 생각하면 그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와 전부 어울릴 정도의 비싼 물건들이 잔뜩 이라 그 옆에 있던 가격표를 보고나면 막상,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건 20골드씩이나 하네.”

현재 그녀가 챙긴 돈은 고작해야 2골드. 그와 어울린다 생각한 물건을 찾았다하면 죄다 10골드 이상의 가격들이라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광장 주변의 가게란 가게는 모두 돌아본지 오래. 오랫동안 걸은 탓에 발바닥이 아파온 헤르세인은 조금 정도 발의 휴식을 위해 근처의 벤치를 찾던 도중, 우연하게도 바로 지나치려던 액세서리 가게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유리창에 전시된 액세서리들 중, 유난히 붉은 보석이 박힌 귀걸이가 그녀의 시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알 수 없으나 물방울 모양의 붉은 보석은 적당한 크기로 세공되어 있었으며 백금으로 장식되어 멀리서 본다면 무난하면서도 많이 튀지 않는 단조로운 귀걸이임이 틀림없었다.

왜 하필 귀걸이가 확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귀걸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헤르세인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액세서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손님?”

이 액세서리 가게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가게인지 꽤 단정한 차림의 드레스를 입은 중년의 여인이 영업용 미소로 헤르세인을 맞이했다.

“저기 유리창 쪽에 전시되어 있는 귀걸이를 보고 싶은데….”

“아! 카벙클로 만들어진 귀걸이를 말씀하시는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확히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가게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세공된 보석의 이름은 카벙클이란 보석 같았다. 여인은 혹시라도 헤르세인이 빨리 돌아갈까 염려되어 제법 빠른 속도로 유리창에 전시되어 있던 귀걸이 함을 들어 그녀에게 자세히 보여주었다.

“카벙클은 루비나 가넷, 또는 스피넬 같은 붉은 보석들 명칭으로 쓰이지만 카벙클은 대체로 둥글고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어 구하기가 쉽지 않은 보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에서 특별 제작된 귀걸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심플함을 추구했고, 카벙클을 감싸고 있는 장식은 백금으로 사용해 더욱 디자인을 모던하게 만들었지요. 어떠신가요? 손님에게도 무척 잘 어울리는 귀걸이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착용해보심이?”

“서, 선물을 할 생각이라….”

“어머, 선물 말씀이신가요? 이 귀걸이를 선물로 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특별 할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귀걸이의 원가에 절반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답니다. 손님.”

“절반 가격이라면 얼마나…?”

“60골드입니다. 손님.”

60골드라니. 왕비에게서 받은 전 재산의 돈이었다.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카벙클 귀걸이를 포기하며 가게에서 나온 헤르세인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광장 주변의 벤치에 앉아 작게 숨을 토해냈다. 선물이란 것도 고르는 것조차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이야. 거기다 옷은 더하면 더했지 액세서리 들은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러다 선물은커녕, 아무것도 사지 못할 것 같아 헤르세인은 다른 의미로 큰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다시금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숙이고 있던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리게 했다.

“음? 혹시나 했더니, 저번에 그 손님이잖아?! 이보슈 아가씨! 나 기억하슈?! 그 왜, 저번에 우리 노점에서 팔찌랑 녹색 리본을 끈을 사던 거기!”

“아….”

분명 로브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음에도 시력이 좋은지 얼마 전의 일을 바로 기억해내며 어느덧 노점상은 반가운 얼굴로 헤르세인의 앞에 섰다. 처음엔 반갑게 다가오는 타인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조금 경계를 했지만, 노점상은 장사치로 다져진 사교성으로 씨익 웃고는 왜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가씨의 애인은 어디가고? 여기 혼자 있는 거슈? 아니, 이건 뭐 남녀 간의 문제이니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을 정도면 뭔 일 있는 거요?”

그러자 헤르세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사려니까 전부 비싸기도 하고… 그 사람이랑 어울릴만한 선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선물?”

“곧 그 사람의 생일이라….”

그래서 로브를 푹 쓰고 있음에도 어깨가 저리 내려온 거란 말인가. 어쩐지 노점상은 그녀가 안타까우면서도 애인을 향해 심사숙고하며 선물을 하려는 그녀의 마음이 감탄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태생이 장사치여서 인지, 노점상은 미안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작은 기대감을 품으며 슬쩍 자신이 팔고 있는 장신구들을 어필했다.

“그 혹시, 아가씨만 괜찮다면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도 나름 수제들이라 선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아, 물론! 그냥 구경만 해도 상관은 없소!”

“그래도 되나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노점상의 그 말이 마치, 구세주처럼 들려 헤르세인의 귀는 어느덧 번쩍 열려있었다. 그러자 노점상은 본인이 말하고도 나름 쑥스러운지 코를 쓱 훔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물론이지! 다만 아가씨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달렸지만. 아무튼 관심 있다면 우리 가게로 따라오슈. 마침 오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온 참이거든.”

“갈게요!”

헤르세인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점상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도착한 노점상의 가게. 수확제 날과는 다르게, 노점상의 가게는 바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이 아닌, 흔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다. 그리고 그는 "니콜리안 쥬얼 공방"이라는 이름답지 않은 작은 쥬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자 점주이기도 했다.

“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런 커프스링크랑 크라바트 핀이랑 브로치나 넥타이 핀인데. 아가씨가 보기엔 어떠슈?”

니콜리안은 젊은 나이답지 않게, 청과점에서나 쓸법한 편한 말투를 쓰며 헤르세인에게 여러 액세서리를 보여주자, 그것들을 고심이 보던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다. 분명, 디자인도 예쁘고 루드비카에게 어울릴법한 액세서리들이었지만 한 눈에 꽂히는 것들은 아니었다. 그녀의 작은 도리질에 니콜리안은 제법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잠시 어디론가 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더니, 품에 한 무더기의 상자를 들고 나와 하나 둘씩, 헤르세인의 앞에 쭉 나열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 실험 작들이자 아직 팔지 않은 것들인데 아가씨니까 보여주는 거요. 어디, 한 번 쭉 둘러보슈.”

니콜리안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를 알 순 없으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선물을 위해 고심이 그의 작품들을 살펴봐야 했다. 그렇게 얼마나 살펴봤던가. 드디어 헤르세인은 제법 마음에 든 액세서리를 고를 수 있었다.

“이 귀걸이 마음에 들어요.”

“엑? 이 귀걸이 말이요? 거 희한한 아가씨일세. 보통 사내들 위한 선물을 할 때는 커프스링크나 약혼반지, 아님 크라바트 핀 같은 거를 고를 텐데. 아가씨는 귀걸이를 고르다니. 그래도 제법 보는 눈은 있구먼.”

그러면서 니콜리안은 씨익 웃으며 헤르세인이 고른 귀걸이를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었다. 헤르세인이 고른 귀걸이는 니콜리안이 거의 4달 동안 심열을 기울이고 기울여 만든 미판매 작품 중 하나였다. 워낙 고생해서 만든 디자인이다 보니, 어쩐지 팔기도 아까워 구석에 짱 박아놓고 있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줄은 그 조차 꿈에도 몰랐었다.

헤르세인이 선택한 니콜리안이 만든 귀걸이는 특별 할인을 했음에도 60골드를 하던 귀걸이와는 많이 달랐다. 붉은빛이 감도는 큐빅 아래로 가운데의 작은 링 사이에 더 세밀하게 가공된 자수정이 육각기둥 모양으로 매달려있었다. 그리고 가는 금으로 뼈대를 만들었는지 귀걸이의 장식을 완벽히 마무리 지은 것이 보였다. 헤르세인의 눈은 더 이상 어떤 귀걸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귀걸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헤르세인은 재빨리 이 귀걸이의 가격을 물었다.

“이 귀걸이 얼마 인가요?”

적어도 몇 십 골드라 예상한 그녀와 달리, 니콜리안의 대답은 심플했다.

“60은화.”

“네?”

혹시, 은화를 골드로 잘못 대답한 게 아닐까 싶어 헤르세인은 다시 물었지만 니콜리안은 철자하나 틀린 대답 없이 60은화라고 못을 박았다. 그녀에게 있어, 60은화도 상당히 거금이었지만 다른 액세서리 가게에서 봤던 카벙클 귀걸이랑 가격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헤르세인은 니콜리안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 귀걸이 60은화 밖에 하지 않는지.

“자수정이 약간 값이 나가는 걸 빼면 이것들은 다 진짜도 아니지. 진짜 원석으로 귀걸이 한번 만들면 그 가격이 얼마나 상당한지 알아? 귀족들을 상대로 완전한 원석을 세공하여 만드는 비싼 귀걸이는 귀족들밖에 취급하지 않듯이 우리 같이 일반 평민들은 원석 비슷한 가공된 가짜로 돈 벌어 먹고 사는 법이여, 아가씨. 그리고 60은화라 해도 절반은 내 노동 값인데 평민으로 치면 이것도 비싼 축이지.”

귀족들, 특히나 작위가 높은 그들일수록 비싼 원석인 보석을 더욱 높은 값으로 사고자 했다. 그들에겐 높은 값으로 불리는 보석일수록 더욱 값어치가 나간다 생각하며, 순도가 높은 보석일수록 자신의 재력과 모습을 더욱 과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귀족들이었다. 헤르세인은 60은화라는 가격을 듣는 것을 떠나, 과연 이것을 루드비카에게 선물함으로서 그가 좋아해줄지에 대한 불안함이었다. 그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자제. 그리고 언제나 비싼 것과 보석조차 가짜가 아닌 진짜 원석으로 세공된 액세서리들을 가볍게 차고 다니는 그였다. 가끔씩 그의 귓불에 빛나는 귀걸이를 볼 때면 그것들은 가짜가 아닌 상당한 값의 보석 귀걸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진짜만을 몸에 두르고 다닌 그가 이런 가공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를 준다면 기쁘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60골드를 전부 다 써버리기엔 카벙클 귀걸이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고작 귀걸이를 사고자 전 재산을 쏟기엔 왕비의 눈치가 보였다. 어쨌건 왕비에게 부탁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던가. 헤르세인은 주머니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두 개의 금화를 꺼내 니콜리안에게 건네주었다.

“잔돈은 필요 없어요. 나머지 돈은 그저 제가 감사히 생각해서 드리는 돈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포장도 부탁드릴게요.”

“2, 2골드? 이, 이보슈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골드 씩이나… 아니 뭐 나야 고맙긴 한데 마음이 좀 찔리긴 하지만…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고맙게 받겠수. 그래도 그냥은 안 받고, 덤으로 커프스링크도 서비스로 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내 가게에 또 찾아오는 거외다?”

헤르세인은 꼭 그러겠다는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니콜리안이 예쁘게 포장해주는 두 개의 선물상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제 품에 소중하듯이 품에 넣은 헤르세인은 니콜리안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하고서 다시 왕성으로 제법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잔잔한 피아노의 선율이 라인하르트 저택을 맴돌았다. 사용인들은 저마다 루드비카의 일취월장한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돈 주고도 공연장에서 듣지 못할 피아노 음색에 모두가 기분 좋게 감상하듯 저마다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잔잔하던 피아노의 선율이 점점 어둡게 가라앉을수록 선율의 속도가 빨라지던 순간, 쾅 소리를 내며 기분 좋던 피아노의 연주는 어쩐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다.

“…젠장.”

평소에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던 루드비카지만 오늘따라 무슨 이유인지 거친 표현을 뱉어내며 피아노 건반위로 두 손을 내리쳤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주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작은 분풀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루드비카는 다시 피아노 연주를 했지만 그 연주는 오래가지 못한 채 다시 건반위로 손을 내리칠 수밖에 없었다.

“도련님.”

노크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집사인 헨드릭이 루드비카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를 부르는 헨드릭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살짝 고개를 틀자, 헨드릭은 살짝 허리를 숙여 손님이 왔음을 전했다.

“도련님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찌할까요?”

“응접실로 안내해줘.”

“알겠습니다.”

헨드릭은 루드비카를 최대한 배려하며 서둘러 연주실의 자리를 떴다. 헨드릭이 손님을 안내하러간 사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루드비카는 나지막이 한숨을 뱉어내며 끝내 피아노 덮개를 내리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같은 날, 최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음에도 어쩐지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다. 마지막 수확제 날 이후, 루드비카는 자의로 그녀가 있는 궁전으로 찾아가지 않았다. 처음엔 그녀에 대한 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그 화는 빨리 가라앉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화가 빨리 갈아 앉음에도 그녀를 찾아가지 않은 건 미안함 때문이었다.

설마 제 자신조차 그녀에게 화를 낼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에게 화를 낸 제 자신조차 놀랄 따름인데 그 화를 고스란히 받은 그녀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게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워 루드비카는 3일 째가 되도록 찾아갈 수 없었다. 거기에다 이제 곧 이틀 뒤 면, 자신의 생일. 그것에 대한 준비로 루드비카는 반쯤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연주실에서 벗어나 어느덧 응접실 문 앞에 도착한 루드비카는 거리낌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손님을 일단 맞이했다.

“네가 그런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다니 별일이네. 웬일로 날 부르나 했더니 참 재미있는 얼굴을 하고 말이지.”

“…로렌드.”

“그래서 바쁜 이 몸을 무슨 이유로 부른 건데?”

오랜만에 루드비카의 손님으로 나타난 로렌드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바쁘다는 사람치고는 그 모습이 퍽이나 느긋하다 못해 어쩐지 아니꼽게 보여 루드비카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곤 성큼성큼 걸어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루드비카가 자리에 착석하자 로렌드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헨드릭이 루드비카의 찻잔을 준비하려 했지만 차를 마실 생각이 없던 루드비카는 필요 없다는 손짓을 했다.

“차는 필요 없고 헨드릭 나가 있어줘. 로렌드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깥에 하녀가 대기하고 있으니 불러주시면 됩니다.”

“응.”

헨드릭이 조용히 빠져나가자, 어느새 넓은 응접실에는 루드비카와 로렌드 만이 남게 되었다. 다리를 꼬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루드비카의 말을 기다리던 로렌드는 이제 반으로 줄어든 찻잔을 내려 본격적으로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불렀는데?”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로렌드에게 있어 루드비카는 미운오리 같은 얄미운 소꿉친구이자 하나 뿐인 유일무이한 죽마고우이기도 했다. 루드비카의 표정을 보나,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부탁하는 제 친우를 본적이 거의 드물기에 로렌드는 성심성의껏 루드비카를 도울 생각이었다.

“너도 알다시피 이틀 뒤에 내 생일이란 건 알거야.”

“그렇지, 후작각하께선 참으로 행동이 빠르신 분이야. 벌써 내게 초대장을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 생일날 바로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부탁한 사람을 한명, 같이 데리고 와줬으면 해.”

“사람이라고? 그게 누군데?”

로렌드는 눈썹을 치켜뜨며 안경을 바로 고쳐 썼다. 하지만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눈치가 상당히 빠르던 로렌드는 더욱 미간을 좁히며 날카로이 물었다.

“설마, 네가 짝사랑인가 뭔가 하다던 그 여자?”

“……그래. 그 사람.”

“너 지금 그딴 부탁하려고 바쁜 나를 부른 거야?”

순식간에 로렌드의 표정이 일그러지자,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으며 곧바로 말을 이었다.

“나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데리러갔겠지만, 너도 알고 있다시피 그 날은 내 생일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초대장을 받은 귀족들이 끝도 없이 올 텐데, 내가 자리를 비웠다간 후작각하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이제 와서 너에게만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 평범한 사람이 아니면 뭔데? 그러고 보니 너, 그 여자가 어느 가문의 여식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언제 적의 얘기이던가. 루드비카는 살짝 뚱한 표정으로 로렌드를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제 친우에게 그녀가 현재 어떤 위치의 여자인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걸 알게 된지는 한참 됐어. 그리고 어느 가문의 여식도 아니야. 그녀는… 아니 그분은 아라네아 왕비전하의 딸이자 2왕녀이신 헤르세인 왕녀전하이셔.”

“…뭐? 잠깐, 왕녀전하라고?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생아 왕녀인, 제2왕녀?”

루드비카는 짐짓 날카로운 눈으로 로렌드를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로렌드 딴엔 전혀 몰랐다는 마음으로 되물었겠지만, 그 어감이 루드비카에게 있어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로렌드에게 그 말을 살짝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진 말아줘, 로렌드.”

“너… 하아.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 이상한 꽃뱀에게 물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꽃뱀은커녕, 귀족들 사이에서도 세간에서도 그 유명한 헤르세인 왕녀라니. 로렌드는 정확히 헤르세인 왕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자신의 주요고객인 귀족들 사이에선 거의 귀 딱지처럼 들어 그려지지 않는 이미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름뿐인 왕녀, 사생아 왕녀, 슬럼가 출신의 왕녀. 그리고 왕실의 치부이자 모친인 왕비조차 외면한다는 비운의 왕녀. 로렌드는 어쩐지 헤르세인 왕녀에게서 루드비카의 모습이 겹쳐보였다. 상황은 다름에도 루드비카 역시 비슷한 운명으로 태어난 제 친우가 아니던가. 그리고 그 사연을 아는 자는 극히 극소수였다.

‘저렇게 편들 정도면 정말로 푹 빠지긴 했구나.’

웬만하면 누구의 편을 잘 들지 않는 그였다. 그런데 흔히 나오는 말임에도 그녀의 상처가 될 것을 염려했는지 살짝 노려보는 루드비카의 표정에 로렌드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로렌드는 잠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처음, 제멋대로 한 여자를 제 집으로 끌고 와 함께 식사를 하던 루드비카의 모습과 어디하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던 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모를 사이 한 여자에게 깊이 빠져버린 친우의 모습. 참 인연이란 것은 신기하면서도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엮이게 될지,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했다.

‘그 여자… 아니, 그분이 그 유명한 헤르세인 왕녀전하면… 루드비카 녀석, 앞으로 고생길 훤하겠구나.’

단순히 눈을 감았을 뿐인데, 루드비카의 앞날이 훤히 그려지는 것 같았다. 제 아무리 후작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인 라인하르트 가의 둘째 공자일지라도 후작의 친아들이자 라인하르트의 핏줄이었다. 그리고 후작이 어떤 사람이던가. 로렌드는 몇 번 후작과 마주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매섭고 살 떨리게 하는 사람은 아마 라인하르트 후작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만큼 라인하르트 후작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런 후작이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선 하나뿐인 죽마고우이기에 단 하나뿐인 친우이기에 당장에라도 그 사랑을 그만두라고 로렌드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 하나뿐인 친우이기에 로렌드는 그 말을 쉽게 뱉을 수 없었다. 이토록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는 루드비카였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적으로 돌아설 지언정 자신만큼은 친우의 편이 되어줘야지 않겠는가. 로렌드는 조금 안타까운 눈으로 루드비카를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었다.

“그래, 내가 해줘야할 일이 뭔지 말해.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 멍청아.”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생일인 전날. 루드비카에게서 고용된 다른 하녀인지 제법 조심스럽게 궁전으로 들어와 그의 필체가 적힌 편지를 건네곤 재빨리 사라졌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내일 오후 몇 시쯤 왕성 밖의 비밀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녀를 데리러 온다는 글도 적혀 있었다.

『아가씨께.

내일 오후 6시쯤 비밀의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 대신 제 친우가 아가씨를 데리러 올 겁니다.

아가씨께서도 한번은 봤던 얼굴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친우에게 잘 이야기를 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친우에게 부탁해 아가씨께서 변장하실 수 있는 옷을 보내니 그것을 입고 같이 와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루드비카 올림.』

오랜만에 루드비카에게서 받은 편지였다. 처음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반가워 마음이 한껏 들떴지만, 그 들뜬 마음도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저 착각일수도 있겠지만, 그가 보낸 편지에는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기다리라는 말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딱딱해 보이는 문체까지. 괜스레 그가 이제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선물… 마음에 들어 해줄까?”

그를 위해서 광장을 수십 번 돌며, 겨우겨우 발견한 그를 위한 선물이었다. 저 나름대로 그와 어울린다 생각하여 2골드씩이나 주고 산 귀걸이이지만 어쩐지 자신이 없었다. 맺고 짧음이 명확한 편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토록 저에게 화를 내던 그 모습이 또 보일까 하는 불안함 때문일까.

“내일만 생각하자. 그리고 분명히 사과를 전하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손은 잘게 불안에 떨었지만 헤르세인은 거세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불안에 떨고 있어도 당장 그의 생일이 내일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불안한 얼굴로 그의 앞에서 생일 축하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최대한 그를 향해 웃어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 여겼다.

이상하게도 하루의 시간은 금방 흘러, 어느덧 루드비카의 생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어차피 제대로 잠을 못잔 것도 있지만, 이번엔 거의 밤을 새다시피 잠을 자지 못 한 헤르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한껏 단장을 한 채,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루드비카가 말한 6시가 되었을 쯤, 헤르세인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자신의 궁전을 빠져나가 비밀통로를 이용해 왕성 밖의 비밀의 집으로 향했다.

그래도 만일의 대비를 위해 침구로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형태를 본뜬 베개를 만들어두거나 또는 테이블 위에는 잠시 밤공기를 쐬러 정원이나 도서관에 있겠다는 외출 편지를 남기고 헤르세인은 서둘러 선물을 가지고 움직였다. 비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상대방도 도착을 했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대를 확인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루드비카의 친우이자 아클레아 상단의 이끄는 로렌드 그레이엄이라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 이 옷으로 갈아입어주시면 될 겁니다.”

헤르세인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 어렴풋이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는 그의 저택에서 밥을 얻어먹긴 했어도 인사를 빼면 말을 주고받은 사이조차 아닌지라, 루드비카가 과연 저의 대한 얘기를 어디까지 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그의 행동이 차라리 더 대하기 편한 것 같아 헤르세인은 로렌드에게서 받은 옷가지를 들고 잠시 그가 기다리는 사이 옷을 서둘러 갈아입었다.

로렌드가 건넨 옷은 흔히 하녀들이 입는 검은 원피스와 하얀 앞치마가 달려있는, 그리고 검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는 하녀복장이었다. 거기에 흔한 갈색머리인 가발과 얼굴을 반쯤가린 도수 있는 안경까지 쓰고서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늘 보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여자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도수가 있는 안경에 약간 머리가 어질했던 것을 빼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가린 것이 마음에 들어, 헤르세인은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밀의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럼 가시죠, 이제부터 아가씨… 아니, 왕녀전하께서는 제 전속하녀로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 제 곁을 떨어지시면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마차 안에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로렌드는 헤르세인과 함께 마차에 올라타 라인하르트 저택에 도착하기 전 이것저것 그녀가 주의해야할 일을 설명했다. 귀족들은 대부분 한명씩 정도 전속하녀를 대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의 곁에 있어야 했다. 주인이 전속하녀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지 않는 한, 전속하녀는 주인을 계속 쫓아다녀야 했고 주인이 시키는 일은 모든지 따라야 했다. 이것은 왕성에서도 헤르세인이 흔히 보던 시녀나 하녀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헤르세인은 라인하르트 저택에 도착하기 전, 마차에서 내려 마부가 앉아있는 옆 좌석에 앉고 다시 출발을 해야 했다. 아무리 전속하녀라 해도, 하녀는 절대로 주인과 한 자리에 탈 수 없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에 불만은 없었다. 어차피 라인하르트 저택에 무사히 도착만하면 그녀에겐 큰 다행이었으니까.

어느덧 라인하르트 저택에 도착하고, 헤르세인은 로렌드가 말 한대로 그의 전속하녀처럼 뒤를 바짝 쫓아다녔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성의 연회장에서만 보던 고위 귀족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역시 명문가의 귀족답게 라인하르트 저택으로 들어오는 마차의 행렬은 끝이 없었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때마다 헤르세인은 실감이 되었다. 그는 진짜 귀족이고 그저 자신은 이름뿐인 왕녀라는 현실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이상하게도 바로 눈앞에서 실감 됐을 뿐인데 씁쓸한 한편으로는 그가 저에겐 너무도 부족하지 않은 큰 사람 같아 멀쩡하던 두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알고 있었잖아. 그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고귀한 사람이란 걸. 아무리 차남이라 할지라도 라인하르트 가문의 핏줄이니까.’

부러움 같은 건 없었다. 그저 막상 라인하르트 저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가문인지를 실제로 보니 어쩐지 다른 세상의 사람 같으면서도 조금 멀게 느껴져 제 자신이 이상하게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를 만나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초라함….

하지만 헤르세인은 그 생각을 접었다. 어찌됐든 그의 단 한번 뿐인 생일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것을 떠나 그날의 일을 사과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자신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로렌드를 따라, 순식간에 연회장의 안까지 도착한 헤르세인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십 여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루드비카의 생일을 위한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연회를 위한 악단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며 회장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라인하르트 후작각하와! 첫째 공자이신 클로드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둘째 공자이신 루드비카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회장의 문이 열리면서 라인하르트 가문의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자, 로렌드의 뒤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들어 고요히 한사람의 모습을 쫓았다.

‘저 사람이… 루드… 비카?’

오늘의 루드비카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다. 마치 밤의 장미가 밤에만 울어대는 풀벌레를 유혹하듯 고혹적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이질감어린 모습에 헤르세인은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평소에는 늘 잘 웃고 미소가 끊이지 않던 루드비카의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의 표정에서는 미소가 그려져 있으나 어딘지 모르게 달빛처럼 스산하게 차가웠고, 저 보다 잘 묶고 다니던 포니테일대신 완전히 풀어헤쳐 말끔하게 빗어 내린 아름다운 머릿결을 뽐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얼른 정신을 차리곤 문득 근처에 있던 공녀들의 모습들을 살폈다.

마치 자신과 똑같은 생각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들은 넋을 잃은 표정과 양 뺨에 볼을 붉히며 오로지 루드비카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매번 왕성 연회장에서 그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건만 루드비카를 향해 있는 그녀들의 시선이 헤르세인에겐 불편한 감정처럼 찾아왔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가 이미 평범한 외모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외모는 물론이고 여인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가슴을 쥐어짜듯 옷깃을 꾹 잡아 나직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답답해. 그리고 불쾌해….’

그리고 그저 잠깐의 가슴통증이라 여겼다. 마치 곧 없어질 기분 나쁜 통증이라 치부하며 헤르세인은 어느새 다시 잠잠해진 통증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고, 바로 눈앞에서 루드비카가 다른 여인과 왈츠를 추기 전까진.

늘 언제나 제게 웃는 그의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워낙 잘 웃는 그이기에 처음엔 광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앞에선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였다. 그토록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춤을 추는 여인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던 루드비카의 모습. 그 모습이 이토록 가슴이 멜 줄은 처음이었다.

“약혼이 깨졌다고 하던데, 깨진 것치곤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과 그레이스 공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조만간 그레이스 후작님께서 약혼발표를 준비하신다나 뭐라나…. 혹시,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과 다시 약혼하는 게 아닐까요?”

“어머머,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케시아 왕녀전하랑도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에이, 아무리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이 대단해도 결국엔 후계자 자리에 오르지 못한 ‘차남’이시잖아요. 케시아 왕녀전하와도 어울리지만 오히려 혼인을 하신다면 라인하르트 첫째 공자님과 하시지 않을까요?”

“하긴, 첫째 공자님은 유력한 후계자에다 벌써부터 기사단에서도 세력을 넓히시고 있단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어머, 왈츠가 끝났네요!”

그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헤르세인은 끝가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레이스 공녀란 여인과 루드비카가 다시 약혼을 할 거라는 그 이야기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향해 열렬히 보내는 박수의 갈채 소리.

짝짝짝짝―

딱 한 번, 루드비카가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그날, 딱 한 번 그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있었다. 시녀들이 한동안 떠들던 루드비카와 약혼할거란 그 여인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한 여인인지를. 루드비카 만큼이나 상당히 아름답고 그의 옆에 당당히 서있는 모습을 그린 순간, 헤르세인은 그 생각을 단숨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저 상상만 했을 뿐인데 너무나 그 모습이 잘 어울려서, 역시 그와 함께 있는 여인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이라 여겨서. 그런데 그 상상이 지금은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모두의 박수갈채를 들으며 여인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는 루드비카의 모습. 그리고 점점 제게서 멀어지는 그의 모습. 주르륵하고 뺨을 타고내린 뜨거운 무언가의 줄기에 헤르세인은 손등으로 자신의 뺨을 훔쳤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아 뺨을 훔친 손등을 보니, 손등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물기가 자신의 눈을 통해 내린 눈물이란 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오히려 그 사람에겐 잘된 일인데, 왜 난 이렇게 가슴이 메이고 멋대로 눈물이 나오는 거지?’

도수가 있는 안경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을 가리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걸까. 루드비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왈츠가 끝이 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주기 위함인지 모두 루드비카의 곁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헤르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그들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멀리서 보고 있음에도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 그들은 하나같이 억 소리가 나올 정도의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건넸고, 루드비카는 미소를 보이며 그들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슬슬 이동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저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지금 이동하기가 적합하니까요.”

로렌드의 작은 목소리가 헤르세인의 귀에 닿았다. 그의 말처럼 모든 이목이 라인하르트 가문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서둘러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벗어나면 이 답답하고 목이 메이는 기분이 가라앉아질 것 같아 헤르세인은 재빨리 물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연회장을 나가면 바로 맞은편에 큰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쭉 지나가면 오른편에 작은 분수대가 있는데 그쪽에는 작은 유리온실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루드비카가 기다린다 했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은 꼭 조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보는 눈이 많은 곳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데려와 주셔서.”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친우의 부탁대로 그리고 제가하고 싶어 움직였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루드비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왜 그가 그것도 다름 아닌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헤르세인은 그를 빤히 쳐다봤지만, 로렌드는 이미 뒷모습을 보인 채로 귀족들이 몰려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로렌드가 이미 자리를 뜬 이상, 헤르세인은 움직여야 했다.

로렌드의 말처럼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연회장에서 나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라인하르트 저택의 정원은 왕성만큼이나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고, 드문드문 정원 안을 구경하듯 빠르게 지나가는 하녀들이 있었다. 혹시라도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헤르세인은 최대한 하녀들이 걷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피며 다른 귀족의 하녀이듯 당당하게 걸어가 어느덧 로렌드가 말한 오른편쪽의 작은 분수대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부터는 거의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일단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길이 난 방향으로 움직이려던 찰나 가까운 곳에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수, 숨어야 할 곳이….’

당당하게 다른 귀족의 하녀처럼 행동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상대가 귀족이라면 얘기는 달라졌다. 로렌드의 말처럼 다른 이들의 눈에 띌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간신히 몸을 숨길만한 수풀을 찾아 최대한 몸을 숙여 그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길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얘기 해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은 한 거야?”

아무래도 발걸음 소리의 주인은 하녀들인지 조용한 곳을 찾던 그녀들의 발걸음은 분수대 쪽에서 멈추고 말았다. 졸지에 그녀들의 말을 엿듣게 된 것은 물론, 그녀들이 떠나갈 때까지 제자리에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된 헤르세인은 숨을 죽이며 어서 그녀들이 이 자리를 떠나주길 바라야 했다.

“고백하면 뭐해, 이미 그 사람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고백해봤자 이미 늦었다고.”

“세상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거야? 고백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바뀔지 아님, 안 바뀔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을 때면 질투가 나 미치겠는데 그 사람, 누가 봐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얼굴이란 말이야.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 막상 고백했는데 그저 나를 친구로밖에 안 봤으면 어떡할 건데? 내 마음은? 그저 나를 친구로 밖에 안 봤다는 그 사람 앞에 하하 웃으며 그럼 우리 계속 친구할 수 있지? 라고 넌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난 못해, 더 이상 친구로도 못 지내고 이제 남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처럼 대할 수가 있겠어?! 갈가리 찢기는 내 마음은 어쩌라고!”

“너 정말…….”

“알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는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른 여자가 곁에 있으면 질투가 나서 미치는데, 그런데도 그가 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 나 어떡하면 좋니?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나봐.”

사랑?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헤르세인은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 낮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몇몇의 슬럼가 사람을 보긴 했어도 오히려 헤르세인은 그런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느 누가 굶어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슬럼가. 그런 곳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먹을 것 하나 양보하는 꼴이라니. 한때는 그것을 사랑이라기 보단, 착해빠져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끝내고 싶은 멍청이가 아닌가 싶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았기에 헤르세인은 줄곧 혼자가 편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따윈 그저 짐덩이에 불과했고, 자신은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 만들 수 없을 거라 여겼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기적이여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저에게 제 아무리 밀어내도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 다가왔다. 바로 루드비카. 처음엔 그저 끈질기고 귀찮으며 상대하기 싫은 남자였지만, 그가 한발자국 씩 다가올수록, 자신의 세계는 그로 인해 점차 뒤바뀌었다.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는지 사람은 또 어떤 감정을 품는지, 그리고 그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인내심을 가져 기다리는 지를.

‘아니야, 아닐 거야. 이 감정은 그저 단순한 감정일 뿐이잖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감화된 것뿐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보처럼 지워주듯 어느덧 사라진 그 하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헤르세인의 머릿속을 강하게 찍어 울렸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이제는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른 여자가 곁에 있으면 질투가 나서 미치는데, 그런데도 그가 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

"나 어떡하면 좋니?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나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나봐."

기뻤다. 유일하게 저의 곁을 있어주는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기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다. 그저 이름뿐인 왕녀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봐주는 사람은 루드비카가 유일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유일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눈길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도 모를 열이 심장 중심부로 끓어오르면서 그를 향한 화가 아닌, 그의 옆에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큼 열이 솟아났다.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자신의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모습을 상상할 때면 도저히 끝까지 머릿속에 그릴 자신이 없어 스스로 관두고는 했다. 그런데 이것이 질투였을 줄이야. 끊임없이 그의 고백을 거절한 주제에 이기적이게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길 바란 그 모순이 결국은 사랑이었다니.

헤르세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유리온실이 있는 작은 길을 따라 발걸음을 움직였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루드비카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떠올려봤지만 헤르세인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유리온실에 도착해 저보다 어느덧 먼저 도착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미칠 듯이 뛰는 심장과 그 잔잔한 고동소리가 얼마나 기쁘게 뛰는지를. 그리고 제 자신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그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아가씨.”

원래부터 그의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란 건 알고 있었지만, 유독 오늘따라 그 울림소리가 좋게 들린다면 착각일까.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다정어린 목소리로 ‘헤세’불러주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심장을 울리는지 그는 알지 못할 것이었다.

“…헤세.”

‘아아,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그가 한발자국 씩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담긴 손끝을 뻗어 제 손을 잡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것 또한 헤르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헤르세인은 한발자국 뒤로 움직여 그가 먼저 잡으려던 손길을 피해버렸다.

“아가씨…?”

“사과하고 싶었어,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둔 채로 난 이기적이게도 당신이 준 선물에만 신경을 썼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왜 화를 냈는지 나는 그걸 뒤늦게 서야 깨달았고… 당신에겐 셀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마움 마음이 가득한지 몰라.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난 정말로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원망스럽고 미워. 내가 원하지 않은 감정까지 갖게 해줬으니까.”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밉다니… 혹시 그때의 일에 화를 내시는 거라면 그땐 제가…….”

왜 그가 자신보다 다급한 얼굴로 해명을 하려는 건지 우스운 얼굴이 눈에 보였다.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인데… 그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일까.

“이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가씨!”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당신은 날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저 ‘여자’로 있게 만드니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던 루드비카는 석상처럼 몸을 굳히며 흔들리는 눈동자로 헤르세인의 눈과 마주쳤다. 이토록 흔들리는 눈동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루드비카는 잘게 숨을 토해내며 자신의 귀가 착각이 아닌 것을 듣고자 다시 한 번 물었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은 한건가요? 저 때문에 아가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저 ‘여자’로 있게 만든 다는 그 말은….”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어느새 내가 알던 내 자신이 아니게 돼. 언제부턴가 당신을 기다리는 내가 생소하고 당신이 오지 않을 때면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도 당신이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면 미칠 듯이 기쁘고. 당신을 따라서 나는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으면 가슴이 미어져. 내 심장이 마치 내 심장이 아닌 느낌이야.”

“아가씨 그건 설마 저를…….”

“그래, 당신을 좋아해.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게 한 당신이 밉고 원망스러워. 왜 하필 나인거야. 나보다 잘난 공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나 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나인거야. 왜 하필 나를 좋아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든 거지?! 왜 나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여자로서 당신을 좋아하게 만든 거야!!”

제 자신의 이런 나약한 감정을 갖게 한 그가 밉고 원망스러웠다. 아니, 어쩌면 그 감정이 제 자신을 향한 건지도 몰랐다. 그를 향한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을 때, 제일먼저 자각한건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을 그였다. 파도처럼 빗물처럼 현실을 직시하라는 무서움이 자신의 머리를 지배했다. 그야 자신은 그와 차원이 다른 신분이 아니던가. 아무리 자신의 위치가 이름뿐이 왕녀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름뿐인 직위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인 왕녀. 거기다 왕비의 치부이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생아.

그런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하면 세간에서 어떤 시선으로 그를 보겠던가. 그 곱지 않은 시선이 자신이 아닌 그를 향할까봐 무서웠고, 자신으로 인해 그의 신분까지 낮춰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애초에 자신과 전혀 다른 위치의 사람인데… 그것을 두 눈뜨고 가만히 지켜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밀어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최선이자 그를 위해 그나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나에게 그런 감정을 만들어준 것을 다 떠나, 나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리고 난 그렇게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성격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어 오히려 사람보다 물욕이 더 많고 그것에만 더 애착을 가지는 성격이니까. 당신과 돈, 둘 중 택하라고 하면 나는 돈을 더 택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날 여전히 좋아할 수 있어? 내가 이토록 이기적인데도?”

일부로 더 표독하게 비웃기까지 하며 그를 밀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질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익숙한 품에 안기어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의 두 눈동자는 큰 파문이 일어났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 마음을 그토록 보여줬음에도 아가씨는 끝까지 저를 밀어냈죠. 그런데도 아가씨는 제가 곁에 있기를 원했고, 그런 아가씨가 이기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했죠. 아가씨의 곁에 남기를. 그리고 사람이 살다보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히 선택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아가씨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그런 아가씨를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가씨를 여전히 사랑하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와 똑같았다. 어디 하나 달라진 점 없는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 그리고 말투. 자신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그는 바보처럼 자신을 놓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이토록 제 품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왜 이 사람은 이토록 바보일까. 자신이 놓아주겠다는데, 그를 위해 일부로 잔뜩 비꼬고 화를 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다.

“왜 몰라주는 거야? 나랑 있으면 당신은 좋은 취급 받지 못할 거야. 내가 받을 손가락질을 당신도 받게 될 거고! 나로 인해 당신은 더 힘들어질 거고, 더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놓아주겠다잖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그의 가슴을 세게 두드리며 발작을 일으키는 병자처럼 그를 내쳤지만 헤르세인은 손짓은 어느새 멈춰지고 말았다. 입술을 짓누르는 또 다른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틀어막았고, 한번 짓누른 입술은 오히려 떨어질 생각 없이 그녀의 온기를 찾아 그 뜨거운 열기를 앗아가는 동시에 또 다른 열기를 나눠주었다. 입술과 입술사이에 그 어떤 행위는 없었다. 그저 강하게 내리 누르고 있을 뿐. 그리고 입술사이로 흩어지는 그 숨결을 앗아간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어 깨질 수 없는 각인처럼 속삭였다.

“사랑해요, 내 모든 것을 전부 당신에게 줄만큼. 나에겐 이제 당신이 내 세상이고 내 전부니까.”

“!!”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그에게 통하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다. 그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사랑한다는 그 속삭임에 얼음이 한순가 녹아내리는 봄의 계절과도 같았다. 자신이 세상의 전부임을 말하던 악마와도 같은 유혹. 헤르세인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도 이제 그가 없음을 안 된다는 것을. 루드비카만이 자신의 세상이고 자신의 전부이며 그가 없는 세계는 완전한 끝임을.